

장 민 정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禮書에 나타난 儀禮服飾 再現

- 사례편람을 중심으로 -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김기상

禮書에 나타난 儀禮服飾 再現

- 사례편람을 중심으로 -

장 민 정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김 기 상

인 준 서

김기상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조선시대 통과의례(通過儀禮)인 사례복식(四禮服飾)에 대해서 살펴보고, 복식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문헌을 중심으로 한 고증은 실물과의 비교를 위한 기초적인 과정이므로 문헌의 기록들을 각 과정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사례복식은 문헌자료가 있어도 자세한 제작 방법이나 치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 문자와 그림으로 기록이 남아 있어 예서에 나와 있는 복식에 대해서 실물 재현을 시도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서(禮書)에 기록되어 있는 복식관련 자료를 발취하여 사례의식에서 착용되었던 복식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복식을 제작하여 자료가 갖는 가치를 실물로 구현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선행된 연구는 거의 대부분이 복식관, 복식의 형태와 구성, 복식의 색, 복식의 상징 등을 분석 연구로 실제로 복식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인 복식 제작법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고증을 토대로 실질적인 제작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관혼상제례 복식에서 대표적인 복식만을 제작 하여 복식에 대한 이론적인 오류를 바로 잡고 올바르게 재현함으로써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 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예서에 제시된 복식을 고증 제작하여 본뜨기, 재단 및 바느질법, 구성법을 살펴봄으로써 제작 당시의 의복구성 형태(색감과 질감) 등을 파악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복식과 관련된 이론적 분석보다는 현재 제작되고 있는 사례복식과 예서에 나와 있는 복식자료에 따라 실물을 제작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사대부가의 전통 사례가 보편화되었던 조선시대로 제한하였고, 특히 현존하는 예서 중 조선후기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조선시대 후기의 관례(冠禮)·혼례(婚禮)·상례(喪禮)·제례(祭禮) 복식(服飾)과 그와 관련된

예서 및 유물 자료를 포함한다.

연구 방법은 예서에 나와 있는 의례복식을 각 예서별로 정리하여 관혼상제 절차와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복식제작에 있어서 대표적인 복식을 선택하여 복식의 형태 및 특징을 살펴본 후에 이를 토대로 고증 및 복식을 재현하여 중요한 부분의 바느질법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전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고증 제작 및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복식은 『사례편람(四禮便覽)』과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에 나타나는 의례복식을 위주로 하였고, 『사례편람』에 제시되지 않은 복식에 대한 치수나 복식 그림이 제시되지 않은 복식은 『주자가례』, 『상례비요』의 예서와 출토 복식 등의 자료를 참고 하였다.

이러한 예서와 출토복식 고증을 근거로 의례복식에서는 관례복(사규삼, 난삼, 배자), 혼례복(단령 여자의 혼례복인 활옷), 상례복(최의, 최상과 부인의 상례복인 대군장수), 제례복(심의, 도포) 등 총 10벌을 재현하였다. 그러나 복식제작에 중요한 지척과 포백척의 길이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른 점을 감안해서 본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 문헌만이 아니라 유물을 기준으로 제작하였고, 재현 과정에서 치수, 바느질 방법, 마름질 방법 등은 동시대 유물들을 참조 하였다. 제작치수와 옷감, 색상, 필요한 옷감의 양, 명칭, 본뜨기, 마르기, 바느질하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제시하였다.

목 차

논 문 개 요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4
1. 예서에 대한 고찰	4
2. 사례편람으로 본 의례복식	11
1) 관례복	11
2) 혼례복	19
3) 상례복	21
4) 제례복	25
III. 의례복식 재현	28
1. 관례복(사규삼, 난삼, 배자)	28
2. 혼례복(단령, 활옷)	69
3. 상례복(최의, 최상, 대수장군)	95
4. 제례복(심의, 도포)	116
IV. 결론	134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예서의 종류 및 특징	10
<표 2> 예서에 나온 의례복식.....	18
<표 3> 사규삼 제작치수.....	30
<표 4> 난삼 제작치수.....	45
<표 5> 배자 제작치수.....	61
<표 6> 단령 제작치수	71
<표 7> 활옷 제작치수	85
<표 8> 대수장군 제작치수.....	111
<표 9> 심의 제작치수.....	119
<표 10> 도포 제작치수.....	128

그 립 목 차

<그림 1> 사규삼 전도.....	12
<그림 2> 심의 전도.....	14
<그림 3> 난삼 전도.....	16
<그림 4> 최의, 최상, 대수장군 전도.....	25
<그림 5> 사규삼 명칭.....	29
<그림 6> 사규삼 본뜨기.....	31
<그림 7> 사규삼 등솔 바느질.....	32
<그림 8> 사규삼 수구단 바느질.....	33
<그림 9> 사규삼 옆단 · 뒤트임 단 만들기.....	33
<그림 10> 사규삼 소매 바느질.....	34
<그림 11> 사규삼 앞 · 옆단 바느질.....	35
<그림 12> 사규삼 도련단 바느질.....	35
<그림 13> 사규삼 연귀음 하는 방법.....	36
<그림 14> 사규삼 뒤트임 · 옆단 바느질.....	36
<그림 15> 사규삼 배래 바느질.....	37
<그림 16> 사규삼 깃 만들기.....	37
<그림 17> 사규삼 깃 달기.....	38
<그림 18> 사규삼 깃 · 동정 달기.....	38
<그림 19> 사규삼 단추 만들기.....	39
<그림 20> 사규삼 박쥐단추 만들기	40
<그림 21> 사규삼 박쥐단추 달기.....	40
<그림 22> 사규삼 완성작품 (앞면).....	41
<그림 23> 사규삼 완성작품 (뒤면).....	42

<그림 24> 난삼 명칭	44
<그림 25> 난삼 본뜨기.....	46
<그림 26> 난삼 앞·뒤길 마르기.....	47
<그림 27> 난삼 깃 마르기.....	48
<그림 28> 난삼 겹감·안감 바느질.....	48
<그림 29> 난삼 섯단 바느질	49
<그림 30> 난삼 무단 바느질.....	49
<그림 31> 난삼 앞 도련단 바느질.....	50
<그림 32> 난삼 뒤 도련단 바느질.....	50
<그림 33> 난삼 수구단 바느질	51
<그림 34> 난삼 겹섯·안섯 바느질.....	51
<그림 35> 난삼 무 달기.....	52
<그림 36> 난삼 소매 바느질.....	52
<그림 37> 난삼 겹감·안감 바느질.....	53
<그림 38> 난삼 단령 깃 만들기.....	55
<그림 39> 난삼 단추 및 고리.....	56
<그림 40> 난삼 품대 고리 바느질.....	57
<그림 41> 난삼 완성작품 (앞면).....	58
<그림 42> 난삼 완성작품 (뒤면).....	59
<그림 43> 배자 명칭	61
<그림 44> 배자 본뜨기.....	62
<그림 45> 배자 앞·뒤길 마르기.....	63
<그림 46> 배자 단 바느질.....	64
<그림 47> 배자 소매 바느질.....	64
<그림 48> 배자 겹감·안감 바느질.....	65
<그림 49> 배자 배래 바느질.....	65

<그림 50> 배자 깃 달기.....	66
<그림 51> 배자 단추 달기.....	66
<그림 52> 배자 완성작품 (앞면)	67
<그림 53> 배자 완성작품 (뒤면).....	68
<그림 54> 단령 명칭	70
<그림 55> 단령 본뜨기	72
<그림 56> 단령 등솔 바느질.....	73
<그림 57> 단령 겹섶·안섶 바느질.....	74
<그림 58> 단령 무 바느질.....	74
<그림 59> 단령 소매 바느질.....	75
<그림 60> 단령 겹감·안감 바느질.....	76
<그림 61> 단령 배래 바느질.....	76
<그림 62> 단령 도련 단 바느질	77
<그림 63> 단령 단추 달기.....	78
<그림 64> 단령 무 고정.....	78
<그림 65> 단령 안고름 달기.....	79
<그림 66> 단령 품대 고리 바느질.....	79
<그림 67> 단령 흉배 달기.....	80
<그림 68> 단령 완성작품 (앞면).....	81
<그림 69> 단령 완성작품 (뒤면).....	82
<그림 70> 활옷 명칭	85
<그림 71> 활옷 본뜨기	86
<그림 72> 활옷 앞길·뒤길 바느질.....	87
<그림 73> 활옷 색동·한삼 바느질.....	88
<그림 74> 활옷 소매 바느질.....	88
<그림 75> 활옷 길·소매 바느질.....	89

<그림 76> 활옷 곁감·안감 바느질.....	90
<그림 77> 활옷 배래 바느질	91
<그림 78> 활옷 고대 바느질.....	91
<그림 79> 활옷 동정 바느질.....	92
<그림 80> 활옷 완성작품 (앞면).....	93
<그림 81> 활옷 완성작품 (뒤면).....	94
<그림 82> 최의 명칭	98
<그림 83> 최의 마르기	99
<그림 84> 최의 완성작품 (전면).....	102
<그림 85> 최의 완성작품 (뒤면)	103
<그림 86> 최상 허리말기 및 끈 만들기	105
<그림 87> 최상 폭 만들기	105
<그림 88> 최상 허리말기· 폭 잇기.....	106
<그림 89> 최상 완성작품 (앞면)	107
<그림 90> 최상 완성작품 (뒤면)	108
<그림 91> 대수장군 명칭.....	110
<그림 92> 대수장군 본뜨기.....	112
<그림 93> 대수장군 상 바느질	113
<그림 94> 대수장군 완성작품 (앞면)	114
<그림 95> 대수장군 완성작품 (뒤면).....	115
<그림 96> 심의 명칭.....	118
<그림 97> 심의 본뜨기.....	120
<그림 98> 심의 등술 바느질	121
<그림 99> 심의 소매폭 바느질	121
<그림 100> 심의 상 폭 바느질	122
<그림 101> 심의 의와 상 잇기	122

<그림 102> 심의 완성작품 (전면)	124
<그림 103> 심의 대대	124
<그림 104> 심의 완성작품 (뒤면).....	125
<그림 105> 도포 명칭	127
<그림 106> 도포 큰 무·등바대 연결	130
<그림 107> 도포 단 바느질.....	131
<그림 108> 도포 완성작품 (앞면).....	132
<그림 109> 도포 완성작품 (뒤면).....	133

I. 서론

우리 민족의 전통 생활 문화는 유교사상에서 비롯되어 유교의 기본인 예(禮)를 중시하는 예제문화(禮制文化)로 정착 되었다. 조선건국 초기에는 주자학(朱子學)을 정치 이념으로 학문적, 사상적으로 문화 전반에 걸쳐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유교가 전해지고 성리학이 발달 되면서 유교가 생활의 기본이념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예를 중요시 하게 되었고 특히 관혼상제의 예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즉 유교 의례는 조선시대 생활 문화에 중요한 부분이었고 예의 표현 방법으로 의례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예를 갖추는 기본으로 복식 착용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 의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복식은 그 시대의 생활상과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의례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나 개화와 더불어 가정의례의 간소화와 서구화의 경향이 나타나 전통의례는 유지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고 일부는 본래의 의미마저 퇴색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오랫동안 전승되어온 우리의 전통문화인 의례복식의 보존·계승의 차원에서 의례의식에서 착용 되었던 복식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 고찰해 봄과 동시에 이를 유지 보존 할 수 있는 실천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통과의례(通過儀禮)인 사례복식(四禮服飾)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바를 각 과정별로 고찰 정리 하여 보고자 한다. 문화적 산물인 복식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문헌을 중심으로 한 고증은 실물과의 비교를 위한 기초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헌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자세한 제작 방법이나 치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 문자와 그림으로만 기록이 남아 있어 예서(禮書)와 출토복식을 각각 고찰하고 이를 근거로 실물 재현을 시도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서에 기록되어 있는 복식관련 자료를 발췌하여 사례의식에서 착용되었던 복식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출토된 의례 복식을 참고로 그 복식을 제작하여 자료가 갖는 가치를 실물로 구현해보고자 한다.

한국복식사 연구에 있어 평상복이나 공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관혼상제 같은 예복의 연구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선행된 연구는 거의 대부분이 복식관(服飾觀), 복식의 형태와 구성, 복식의 색, 복식의 상징 등을 분석 연구로 실제로 복식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인 복식 제작법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증을 토대로 실질적인 제작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관·혼·상·제례 복식에서 대표적인 복식만을 제작하였다. 이렇게 검증을 통하여 복식에 대한 이론적인 오류를 바로 잡고 올바르게 재현 하므로써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 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며, 예서에 제시된 복식을 고증 제작하여 본뜨기, 재단 및 바느질법, 구성법을 살펴봄으로써, 제작 당시의 의복구성 형태(색감과 질감) 등을 파악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는 복식과 관련된 이론적 분석보다는 현재 제작되고 있는 사례복식과 예서에 나와 있는 복식자료에 따라 실물을 제작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시각 자료가 복식을 이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제시 하는데 이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연구 범위는 사대부가의 전통 사례가 보편화되었던 조선시대로 제한하였고, 특히 현존하는 예서 중 조선후기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조선시대 후기의 관례(冠禮)·혼례(婚禮)·상례(喪禮)·제례(祭禮)복식과 그와 관련된 예서들을 참고 하였다.

연구 방법은 예서에 나와 있는 의례복식을 각 예서별로 정리해보고, 관혼상제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는 사례전체를 간략히 살피고, 복식제작에 있어

서는 예서에 나와 있는 것 중 대표적인 복식을 선택하여 복식의 형태 및 특징을 살펴본 후에 자료를 토대로 고증 및 복식을 재현하며, 중요한 부분의 바느질법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바느질의 전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증과 제작 재현은 당시 사람들의 의생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될 수 있는 뜻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 고증제작 및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복식은 『사례편람(四禮便覽)』과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에 나타나는 의례복식을 위주로 하였고, 『사례편람』에 제시 되지 않은 복식에 대한 치수, 바느질 방법, 마름질 방법 등은 동시대 유물들을 참고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예서에 대한 고찰

예(禮)는 동양 유교사회에 있어서 정신적·물리적 생활의 기준이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예를 중요시한 유교중심사회로, 예는 윤리, 정치, 법률, 교육, 생활관습 등의 모든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었고, 많은 예서들이 편찬·간행되었다.

예서(禮書)는 인간이 지켜야 할 예법에 관하여 쓴 책이다. 예법은 사회집단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기본으로 관·혼·상·제례(冠·婚·喪·祭禮)는 일상에서 중요한 의례이다. 사례(四禮)는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생애의 단계들을 거쳐 가는 의례이기 때문이다. 예법은 시대적인 현실과 상황에 의해 바뀌지 않을 수 없었고, 시대에 따라 수록된 내용도 시대가 요구하는 형태로 변해왔다.

사례라 함은 첫째로 인간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행하는 관례(冠禮)가 있고, 둘째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일가(一家)를 이루는 혼례(婚禮)가 있으며, 셋째로 인간이 세상을 마치고 타계 하였을 때의 상례(喪禮)가 있고, 넷째로 돌아가신 부모·조상을 위하는 제례(祭禮)가 있다. 이 네 가지의 예의를 갖추는 것을 사례라 하며 그 네 가지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입는 의복과 장식을 사례복(四禮服)이라 하였다¹⁾.

주(周)나라 때 주공(周公)은 국가의 통치 방법으로 예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역대 왕조에서는 이를 정비하고 보완하였다. 하지만 이 예법은 국가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예법일 뿐 가정을 다스리기 위한 것으로는 적당하지 못하다 하여 수백 년 동안 여러 학자들은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한 『가

1) 유송옥(1998), 『한국복식사』, 서울 : 수학사, p. 316.

례』를 저술하는 데 힘썼다. 그리고 마침내 송(宋)나라 때의 주희가 지은 『주자가례(朱子家禮)』가 그 완결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자가례(朱子家禮)』는 『문공가례(文公家禮)』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말 충렬왕 12년(1286)에 주자학과 함께 안향에 의해 주희(朱熹)의 『가례(家禮)』가 소개되었다.²⁾

사례(四禮)라고 하는 관혼상제에 관한 예서인 『주자가례』는 조선 초부터 왕실과 사대부가는 물론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보급되었다. 그런데 중국 송나라에서 저술된 『주자가례』는 당시 조선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조선의 현실에 맞춰 재해석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주자가례』를 우리 현실에 맞게 수정한 예서가 편찬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선 중기 이후에는 여러 예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각 가정의 관혼상제에 대한 규정을 저술한 책들이 많이 저술되었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이재의 『사례편람』은 『가례』에 근거하여 각 부분에 고증을 덧붙이고 쉽게 풀이하면서 실제 행해지는 절차에 맞도록 개편한 대표적 예서로 전통의례는 이에 의거하여 실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복식의 의례의 성격을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의례의 의미를 더욱 구체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³⁾.

조선시대에는 유교에 의한 백성의 교화를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하여 국가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관혼상제의 예를 국법으로 정하였다. 조선 건국 초 태조(太祖)는 즉위 교서에서 관혼상제는 나라의 큰 법이니 일정한 법령으로 정하여 인륜(人倫)을 후하게 하고 풍속을 바로 잡을 것⁴⁾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태조 4년에는 관혼상제의 예를 상정(詳定)하게 하였다.

2) 이은주(1997). 『전통 의례복식의 변천』. 한국복식2천년 : 국립민속박물관 역음, 서울 : 도서출판 신유. p. 229.

3) 상계서, p229.

4) 상계서, p229.

조선시대 예서인 『경국대전』은 조선왕조 건국 전후부터 1484년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간의 교지·조례 등을 엮은 법전으로 이·호·예·병·형·공전의 6전으로 구성되어있고 예전은 61항목으로 의장·오복(五服)등에 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⁵⁾

『세종실록』은 1452년에 황보인, 김종서, 홍재인 등이 총 재관이 되어 1473년에 편찬되었고, 163권 154책으로 되어 있으며 제128~163권은 오례(五禮)가 수록되어 있다. 오례는 길례(吉禮)·가례(嘉禮)·빈례(賓禮)·군례(軍禮)·흉례(凶禮) 이다.⁶⁾

『국조오례의』는 신숙주(申叔舟)·정척(鄭陟)등이 왕명을 받아 1474년에 오례의 예법과 절차 등을 그림을 곁들여 편찬한 책이다. 이 책은 국가의 기본예식인 오례 즉 길례(吉禮)·가례(嘉禮)·빈례(賓禮)·군례(軍禮)·흉례(凶禮)에 대해 규정한 예전(禮典)이다.⁷⁾

『성재집(省齋集)』, 『사례편람』, 『성호사설(星湖僿說)』, 『향례합편(鄉禮合編)』, 『광례람(廣禮覽)』, 『사례집의(四禮集儀)』,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증보사례편람』 등은 사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의 관혼상제 예법의 실체를 볼 수 있다.

『성재집(省齋集)』은 신응순(辛應純 1572~1636)이 저술한 관례·혼례·상례 때 실생활에서의 실천상의 여러 가지 보완점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⁸⁾.

『사례편람』은 이재(李穡 1680~1746)가 관혼상제의 사례에 대해 저술한 책이다. 의례, 예기, 가례, 상례비요의 예서와 사마온공, 문중자, 정자, 김장생, 송시열등 제가의 예설 및 당시의 예제와 시속을 보충하여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게 저술된 책이다. 이 책이 간행되고 세상에 보급된 후 편술된 가례서들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고 사회의 예속(禮俗) 역시 여기에 준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권』 서울 : 삼화인쇄주식회사 . p. 839.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권』, p. 619.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권』, p. 758.
 8) 문옥표 외(1999). 역주해제. 『朝鮮時代 冠婚喪祭(1)』冠禮-婚禮篇, 서울 : 정아 인쇄사. p.3.

하여 행용(行用) 되었다.⁹⁾

『성호사설(星湖僿說)』은 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星湖) 이익(李瀾 1681(숙종7)~1763(영조39))이 쓴 책이다. 이 책에는 ‘천지문(天地門)’, ‘만물문(萬物門)’, ‘인사문(人事門)’, ‘경사문(經史門)’, ‘시문문(詩文門)’으로 분류하고, 생각나고 의심나는 점을 그때그때 적어둔 형식을 취했다. 만물문에 생활에 직접·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복식등에 대해서 서술하였고, 고례(古禮)에 없는 서민을 위한 가례를 만들었다. ¹⁰⁾

『향례합편(鄉禮合編)』은 이병모(李秉模)가 1792년에 향례와 관한 것을 모아서 엮은 책이다. 3권 2책으로 되어 있으며 3권은 사관례(士冠禮)와 사혼례(士婚禮)가 서술되어 있다. 각 예에는 『의례(儀禮)』·『예기(禮記)』·『가례(家禮)』 등 중국의 여러 예서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등 우리나라 예서의 원문과 과 주(注)·소(疏)를 함께 실고, 백성이 보고 실행하기에 편하도록 쉽게 풀이하고 있다.

『광례람(廣禮覽)』은 수산(綏山)이 1893년에 사례 가운데 상례·제례·관례등에 관하여 긴요한 내용만을 간추려 만든 책이다. 서문에는 이재의 『사례편람』과 김정계의 『상례편람(喪禮便覽)』 등이 너무 번잡하여 급할 때는 찾아보기 힘들뿐 아니라, 흔히 쓰이는 예법에 대해서는 너무 간략하게 쓴 감이 있어 이 책을 만들게 되었다는 편찬 동기를 밝히고 있다.¹¹⁾

『사례집의(四禮集儀)』는 박문호(朴文鎬)가 1922년에 편집 간행한 사례관계의 예서이다. 10권 5책으로 관례·혼례·상례·장례를 두 책으로 삼고, 제례는 모두 의례로 보아서 우제의(虞祭儀)·소상의(小祥儀)·길제의(吉祭儀)·묘제의(墓祭儀)등과 같이 세분하여 세 가지의 책으로 꾸몄다.¹²⁾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는 다산(茶山:여유당이라고도 함) 정약용(丁若

9)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전계서 10권, p 794.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상계서 12권, p. 560.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상계서 3권. p. 165.

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상계서 10권. p. 792.

鏞)의 저서를 한데 모은 문집으로 154권 7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인보(鄭寅普)와 안재홍(安在鴻)이 교열하였으며 1936년 신조선사에서 다시 간행하였다. 제3집은 24권 12책인 예 집은 『상례사전(喪禮四箋)』·『상례외편(外編)』·『상례절요(喪禮節要)』·『제례고정(祭禮考定)』·『가례작의(嘉禮酌儀)』·『예의문답(禮儀問答)』·『풍수집의(集義)』 등이 있는데 주로 상례에 관한 저술이 가장 많으며 주정설적(主情說的) 예론에 근거하고 있다. 『상례절요』에서 저자는 고례(古禮)를 위주로 하고 다시 『주자가례』와 우리의 속례를 들어 설명 하였는데 시졸(始卒)부터 소렴·대렴·소상·대상 등을 다루고 상중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¹³⁾

『증보사례편람』은 이채(李采)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원고를 정리하여 원본을 만들었고, 황필수(黃泌秀)가 1900년에 간행 하였다¹⁴⁾. 『사례편람』을 증보한 예서로 8권 4책이다. 『가례』를 중심으로 선유(先儒)들의 여러 설을 참작 수록하여 경례(經禮)에서부터 변례(變例)까지 보충 첨가하였으며, 각권마다 그 의절(儀節)에 따른 도식도 실어 이용에 편리 하도록 하였다.

여러 예서들 중에서 관·혼·상·제례 복식에 대해서 잘 서술되어 있는 『국조오례의』, 『성재집』, 『사례편람』, 『여유당전서, 가례작의』, 『사례집의』, 『광례람』, 『가례집해』를 주로 참고 하였다.

『사례편람』은 『주자가례』를 보완하여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편하게 저술 하였고, 제례와 상례는 『상례비요』를 참고 하여 당시에 관행을 참고 하였다고 한다. 관례와 혼례는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이 없어 여러 학자들의 주장과 고례(古禮)를 보충하고 자신의 해석과 판단을 곁들여 관혼상제에 있어서 통용될 수 있는 『사례편람』을 간행하였다. 『사례편람』이 보급된 후에 간행된 예서들이 대부분 이 책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사회에서 시행되는 예속 역시 이 책을 따르고 있어 『사례편람』이 조선시대에서 가운데

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상계서 15권 p. 170.

14) 문옥표외(1999), 전계서. p. 11.

가장 영향력 있는 저술서이기 때문에 『사례편람』과 『증보사례편람』을 중심으로 고찰 하고자 한다.

이상 『주자가례』를 시작으로 조선시대 <예서>의 변천 과정과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예서의 종류 및 특징

예서	저자와 연대	내용 및 특징	사례복식에 대한 내용
주자가례(朱子家禮)	주희(朱熹) 1139~1200	예의 기본 논리인 사회질서와 기강을 위한 관혼상제의 의장을 제정하고 그 내면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유지하며, 일상에서 실천할 것을 강조 하였다.	사례의 의식을 소개하고 예의 주요 원리, 복식, 복제등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심의의 구체적인 복식제도와 제작 방법을 소개 하였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신숙주(申叔舟)·정척(鄭陟) 1474	오례의 예법과 그림을 곁들여 편찬한 책이다.	오례의 예법과 절차에 관하여 기록 하였다
성재집(省齋集)	신응순(辛應純) 1572~1636	관례·혼례·상례때 실생활에서의 실천상의 여러 가지 보완점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혼례시 용어나 전체를 중요 절목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복식에 대해서는 고례를 따르다 하였다.
사례편람(四禮便覽)	이재(李穡) 1680~1746	관혼상제의 사례에 대해 저술한 책이다. 『의례』, 『예기』, 『가례』, 『상례비요』의 예서 제가의 예설 및 당시의 예제와 시속을 보충하여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게 저술 되었다.	사례복식에 대한 그림과 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 하였다.
여유당전서, 가례작의(與猶堂全書, 嘉禮酌儀)	정약용(丁若鏞) 1762~1836	관례와 혼례 두 가지만을 아우른 것으로 『의례』, 『주자가례』를 기본으로 하고, 항목마다 고례(古禮)와 『주자가례』에서의 예를 제시하고 우리의 풍속을 참작하여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관례·혼례복에 대해서 『주자가례』, 『사례편람』에 따르다 하였다.
향례합편(鄉禮合編)	이병모(李秉模) 1792	사관례, 사혼례가 서술되어 있고, 『의례(儀禮)』·『예기(禮記)』·『가례(家禮)』 등 중국 예서와 『국조오례의』 등 우리나라 예서의 원문과 주·소를 달아 백성이 보고 실행하기 쉽게 풀이하였다.	관례·혼례의 절차를 위주로 서술하였고 복식은 예서에 따르는 것으로 서술 하였다.
사례집의(四禮集儀)	박문호(朴文鎬) 1846~1918	중국과 조선의 고금의 152종의 예서들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혼상제에 관한 종합예서로 『사례편람』 까지도 아울러 집대성 하였다.	사례복식에 대해서는 각 예서에 나와 있는 복식을 따랐다.
광례람(廣禮覽)	수산(綏山) 1893	사례 가운데 관례·상례·제례등에 관하여 긴요한 내용만을 간추려 만든책이다	복식에 대한 서술이 없고 예서에 나와 있는 복식을 따르다 하였다.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	황필수(黃泌秀) 1900	『가례』를 중심으로 선유(先儒)들의 여러 설을 참작, 수록하여 경례(經禮)에서부터 변례(變例)까지 보충, 첨가하였으며, 각권마다 그 의절(儀節)에 따른 도식도 실어 이용에 편리 하도록 하였다.	『사례편람』 과 동일하다.

2. 사례편람으로 본 의례복식

『예기(禮記)』에서는 “예는 관례로 시작하며, 혼례를 근본으로 삼고, 상례와 제례를 중시하며 조빙(朝聘)을 높이고, 연례(宴禮)와 사례(射禮)를 화락(和樂)하게 하는 것”¹⁵⁾ 이라고 하였다. 즉, 혼례는 근본이 되는 예이고, 제례와 상례는 중요한 예인 것이라 하였다.

1) 관례복

관례는 사례(四禮)중 가장 먼저 치러지는 의례이다. 관례란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의례로서 남자의 관례와 여자의 계례(笄禮)를 뜻한다.

관례에 대해서 『사례편람』 卷之一 冠一, 卷之一 冠十九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卷之一, 冠一, ‘男子年十五至二十 皆可冠, 卷之一 冠十九, 年十五雖未許嫁亦笄, 卷之一 冠一, 必父母無碁以喪始可行之 大功未葬亦不可行’

『사례편람』에는 남자 나이 15세에서 20세까지 관례를 할 수 있다 하였다. 여자는 15세가 되면 출가가 정해지지 않았어도 계례를 치르게 한다고 하였으며, 예서에 관례는 초가(初加)·재가(再加)·삼가(三加)례로 이루어져 있다¹⁶⁾. 삼가례는 관을 세 번 갈아 씌우고 옷을 세 번 갈아입히는 절차를 말하며, 부모는 일년복 이상의 상(喪)을 입지 않아야 자식의 관례를 비로소 행할 수 있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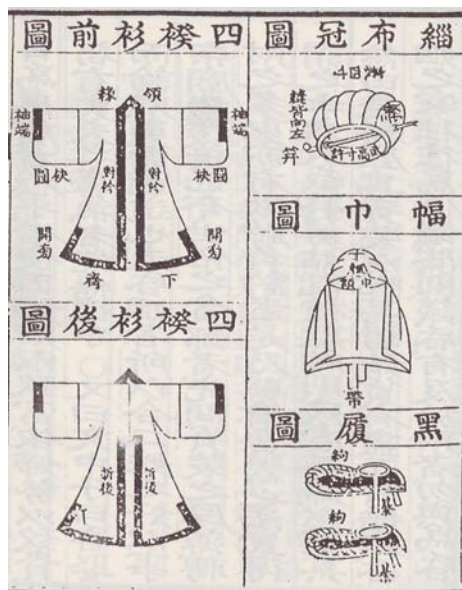
15) 『禮記』, 原集 內篇, 卷三十一, 19~20, 『禮設』 ‘禮設二·禮志’.

16) 이윤정(2002), 「冠禮의 節次 服飾에 內在된 의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5.

본 연구에서는 관례전의 복식인 초출복을 살펴보고, 관례복으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초가·재가·삼가 복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초출복(初出服)

관례 전 복식으로는 동자복(童子服)을 입는데 『주자가례』와 『사례편람』의 기록에는 머리는 쌍계(雙紒)를 하고 사규삼(四揆衫)<그림 1>을 입고 발에는 늑백(勒帛)을 매고 채리(采履)나 채극(彩履)이라 하였다.(『朱子家禮』, 卷二 冠禮, ‘將冠者, 雙紒四揆衫勒帛采履’, 『四禮便覽』, 卷之一 冠十, ‘將冠者雙紒四揆衫勒帛采履房中南面’)



<그림 1> 사규삼 전도

<출처 『사례편람』 卷之一 冠 圖二>

(2) 초가(初加)복식

초 가례는 어린 뜻을 버리고 성숙한 덕을 따라 길하게 오래 살며 큰 복을

더욱 키우라는 의미가 있으며 아울러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일러준다.¹⁷⁾ 초가례 복식은 『주자가례』에서는 동자복을 입었던 관례자는 상투를 틀고 망건을 쓴 후에는 치관(緇冠)에 계(笄)를 꽂은 후 복건을 쓰고 방으로 들어가서 사규삼(四揆衫)을 벗고, 심의(深衣)를 입고, 대대와 조(條)를 띠고, 이(履)로 갈아 신는다고 되어있다. 『사례편람』에 나타난 초가례 복식은 치관에 계를 꽂고 그 위에 복건을 쓰며 심의를 입고 대대(大帶)와 조를 띠고 이¹⁸⁾를 신는다고 하였다. 『가례작의』에 관리는 공복을 입고, 그 외에는 청포를 입는다고 하였다. 세조 2년(1456)¹⁹⁾ 양성지의 상소문에는 관례시 초가례에는 입자(笠子)나 사모(紗帽)를 사용하자고 하였고, 『증보사례편람』 신증에 초가에는 입자(笠子)를 사용하고, 김장생(金長生)은 복건이 없으면 정자관을 사용하라고 하였다²⁰⁾. 『성재집』에는 관직이 있으면 공복을 입고 대를 띠고 화를 신는다. 진사(進士)는 난삼을 입고, 처사는 조삼을 입는다. 장만 할 수 없으면 심의나 양삼(涼衫)을 입어도 무관 하다 하였다²¹⁾.

『국조오례의』에는 입자를 쓰고 원령(團領)을 입은 위에 조아(條兒)를 띠고, 화(靴)를 신는다 하였다.²²⁾ 심의 전도는 <그림 2>와 같다.

17) 이정옥(1990), 「冠禮服飾研究」, 영남대학교 출판부, p.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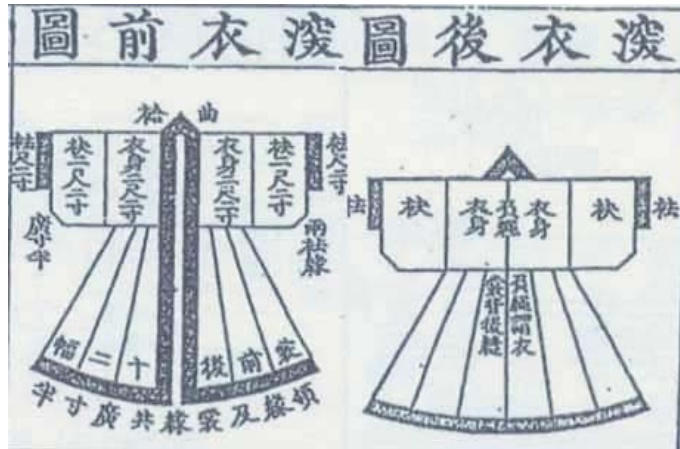
18) 李緯, 『四禮便覽』, 卷之一 冠 三, ‘緇冠幅巾大帶條履具’.

19) 『世宗實錄』, 二年 三月 丁酉.

20) 李緯, 『四禮便覽』, 卷之一 冠 七, ‘初加笠子 沙溪曰無幅巾則初加程子冠’.

21) 辛應純, 『省齋集』 冠婚喪祭 二, ‘盛服者有冠則公服帶靴進士則襪衫處士則白衫又不能具則或深衣或涼衫’.

22) 『國朝五禮儀』, 卷之 三, 嘉禮 文武官儀 五禮三 六九, ‘加笠履位揖冠者適方服圓領條兒納靴以出’.



<그림 2> 심의 전도

<출처 『사례편람』 卷之一 冠圖 一>

(3) 재가(再加)복식

재가례(再加禮)는 사회에 공헌하여 경사스러움을 받아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오래도록 모시라는 효 사상을 가르치는²³⁾ 관례 절차이다. 재가 의식에서는 관자가 정한 자리에 나오면 빈이 축사를 읽고 찬이 치포관과 복건을 벗기고 축사를 마친 후 재가관(사모)을 씌운 뒤에 장관자는 방에 들어가서 심의를 벗고 조삼(阜衫)을 입고 혁대를 띠고 혜(鞵)를 신는다²⁴⁾ 하였다.

『국조오례의』에는 사모(紗帽)를 쓰고, 원령(團領)을 입고 위에 각대(角帶)를 띠라 하였다.²⁵⁾ 『주자가례』에는 심의를 벗고 모자에 조삼을 입고 혁대를 띠고 가죽신을 신으라 하였다.²⁶⁾ 『사례편람』에는 조삼을 입고 모자를 쓰고, 혁대(革帶)를 띠고, 혜(鞋)를 신으라고 하였다.²⁷⁾

(4) 삼가(三加)복식

23) 이정옥(1990), 전게서, p.139.

24) 李緯, 『四禮便覽』, 卷之六, ‘欄衫帶靴阜衫深衣大帶腹節掠皆’

25) 『國朝五禮儀』, 卷之三 嘉禮 文武官冠儀 五禮 三 六九, ‘加紗帽與復位揖冠者適房服圓領角帶以出’.

26) 朱熹, 『朱子家禮』, 卷二 冠禮, ‘再加帽子, 釋深衣服. 阜衫 革帶, 繫鞋.’

27) 李緯, 『四禮便覽』, 卷之一 冠十二, ‘再加帽子服阜衫革帶繫鞋’.

삼가례에는 온 집안이 번영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되어 영화를 누리라는 의미가 담겨있다.²⁸⁾

삼가례 복식은 부모가 관직에 있는 사람은 공복을 입고²⁹⁾, 관직이 없는 사람은 난삼을 입는다 하였다. 난삼은 관직이 없는 생원이나 진사가 입던 예복으로 옥·남색 비단으로 만들며 청흑색 비단으로 넓이 4~5치 되게 령의 가, 소매 끝, 옷의 가장자리를 장식한다³⁰⁾ 하였다. 『주자가례』는 관직의 유무에 따라 옷이 다르다 하였다. 관직이 있는 경우에는 복두를 쓰고 공복을 입고 혁대를 띠고 가죽신을 신고 홀(笏)을 들고 관직이 없는 경우에는 난삼을 구하지 못하면 심의나 양삼을 입는다 하였다.³¹⁾

이익(1681~1783)은 『성호사설』에 우리나라에는 원래 난삼의 제도가 없었으나 가례에 난삼을 쓰도록 하였기에 아들이 관례를 치르면 중국 시장에 가서 난삼을 사와야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³²⁾

『국조오례의』에는 복두를 쓰고 공복을 입는다 하였다.³³⁾

삼가례때 띠는 대는 조대·영대라고도 하는데 실을 엮어서 만든다. 삼가례에는 백관이 공복과 함께 신었던 목이 높은 화를 신는다.

『주자가례』는 삼가에는 복두와 공복 또는 난삼을 사용하였다.³⁴⁾ 난삼 전도는 <그림 3>과 같다.

28) 이은주(1997), 전계서, p.140.

29) 黃泌秀, 『增補四禮便覽』卷之一 冠 八, ‘家禮陳官服條註有有冠者公服’.

30) 黃泌秀, 『增補四禮便覽』卷之一 冠 七, ‘用藍絹或玉色絹布, 爲材, (沙溪曰以青黑絹廣四五寸, 飾領緣及袖端與衣間)’.

31) 朱熹, 『朱子家禮』, 家禮 十二, ‘凡言盛服者有冠則幘頭公服帶靴笏...無官者通用帽子衫帶又不能具則或深衣或涼衫’.

32) 李漢 『星湖僿說』, 卷之 六, 萬物門. ‘襴衫非古也家禮用於冠禮盖徒俗也’.

33) 『國朝五禮儀』, 卷之三 嘉禮 文武官冠儀 五禮三 六九, ‘加幘頭與復位冠者 設訖冠者着公服’.

34) 丁若鏞, 『與猶堂全書』第三集 第二十三卷 禮集 其三, 『嘉禮酌儀』冠禮, ‘《朱子家禮》, 始加冠, 用深衣, 再加帽, 用阜衫, 三加幘頭, 用公服或襴衫’.



<그림 3> 난삼 전도

<출처 『沙溪全書』 卷之 二十四 >

여자는 남자의 관례에 해당되는 계례를 하는데 남자의 관례가 초가·제가·삼가인데 비해, 단가로 되어 있고 복식은 시가복(時加服)과 계례복(筭禮服)의 두벌만 사용 된다. 『사례편람』에 기록되어 있는 계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계례는 초가 단계로만 시행되며, 초례와 가자례(加字禮)를 한다. 계례를 행하려면 집안에 기년 이상의 상이 없어야 하며 장계자의 나이가 15세가 되면 출가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계례를 한다. 아직 출가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평상시에는 비녀를 뽑고, 머리를 갈라 땅아 내린다.³⁵⁾

『사례편람』에 의하면 계례 전 복식으로 머리는 쌍계(雙紒)를 하고 삼자(衫子)를 입는다 하였다. 삼자는 속칭 당의로 소매의 길이가 무릎에 오고 소매가 좁은 여자의 평상복³⁶⁾이라 했다.

계례때는 머리를 풀어 빗겨 하나(合髮)로 정리하여 계(髻)를 만든다. 그

35) 李穡, 『四禮便覽』, 卷之一, 冠二十二, ‘主婦如主人之位將筭者雙紒衫子房中南面’.

36) 李穡, 『四禮便覽』, 卷之一 冠二十二, ‘筭者雙紒衫子’, “衫子 俗稱(唐衣)長至腿袖狹女字常”.

후 관과 계를 꺾는다. 계례자는 방으로 들어가 배자(背子)를 입고 나온다³⁷⁾ 하였다. 『주자가례』는 계례(笄禮) 전에 쌍계(雙紵)를 하고 삼자(衫子)를 입고, 계례 후에는 관계(冠笄)에 배자(背子)을 입는다 하였다.³⁸⁾ 배자는 색이 있는 주·견으로 만들며 길이는 치마와 같고 것이 맞 닿아 있으며 겨드랑이 아래는 트였고 소매는 둥글며 반소매이기도 하고 소매가 없기도 하다고³⁹⁾ 하였다. 계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복은 부인은 소의·나대의·족두리·치마이다. 대의는 빛깔 있는 명주로 만들며 대수 또는 원삼이라고도 한다. 시집을 가지 않은 딸이나 친정에 와 있는 사람은 족두리에 배자를 입으며, 첩은 가계(假髻)에 배자를 입는다. 예서에 보이는 관례복식은 <표 2>와 같다.

37) 李穡, 『四禮便覽』, 卷之一 冠二三, ‘解髮梳之, 爲合髮, 侍者以冠笄盤進, 賓詣將笄者前, 加冠笄, 起復位, 笄者與適房, 易服徹櫛笄者服上衣背子出房’.

38) 朱熹, 『朱子家例』, 卷二 冠禮, ‘長笄子, 雙紵衫子, 房中南面’ ‘賓爲將笄者, 加冠笄 適房服 背子’

39) 李穡, 『四禮便覽』, 卷之一 冠 二十一, ‘用色紬或絹爲之, 長與裙齊對衿開旁圓被或半臂或無袖’.

<표 2> 예서에 나온 의례복식

구분	관례복														
	남자						여자								
	초출복		초가복		대대·신발		재가복		삼가복		계례복				
예서	두식	의복	대대·신발	두식	의복	대대·신발	두식	의복	대대·신발	두식	의복	대대·신발	두식	의복	대대·신발
사례편람		사규삼	늑백, 채극	치포관, 복건	심의	대대, 조, 루	입자 / 소모	조삼	혜대, 혜	복두(사모)	난삼	대대((조대, 영대), 화)	관	배자	
증보사례편람	(동계)	사규삼	늑백, 채극	입자, 정자관	심의	대대	초림	청포	혜대, 혜	복두	난삼	띠, 신	관	배자	

	혼례복						상례복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사례편람	단령, 사모, 품대, 흑화	염의, 피, 관, 삼자, 군, 띠	염의, 최의, 최상, 중의, 요대, 짚신	상관, 최의, 최상, 중의, 요대, 짚신	상관, 대수장군, 요대, 짚신	상관, 대수장군, 요대, 짚신	복두(모자), 공복, 난삼, 조삼, 심의, 양삼	복두(모자), 공복, 난삼, 조삼, 심의, 양삼	족두리, 대수장군, 배자, 짚신	족두리, 대수장군, 배자, 짚신	족두리, 대수장군, 배자, 짚신
증보사례편람	단령, 사모, 품대, 흑화	염의, 피, 관, 삼자, 군, 띠	염의, 최의, 최상, 중의, 요대, 짚신	상관, 최의, 최상, 중의, 요대, 짚신	상관, 대수장군, 요대, 짚신	상관, 대수장군, 배자, 짚신	복두(모자), 공복, 난삼, 조삼, 심의, 양삼	복두(모자), 공복, 난삼, 조삼, 심의, 양삼	족두리, 대수장군, 배자, 짚신	족두리, 대수장군, 배자, 짚신	족두리, 대수장군, 배자, 짚신	족두리, 대수장군, 배자, 짚신

2) 혼례복

관혼상제의 사례중 혼례를 가장 경사스럽게 여겨 혼례 당일만은 일반 서민들도 궁중 예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하였다. 우리나라의 혼례는 중국의 의식절차(儀式節次)와 예복(禮服)등을 모방(模倣)하여 왔다. 고례(古禮) 혼례의식은 주자의 문공가례(文公家禮)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 문공가례에 의한 혼례는 납채(納采)·문명(文名)·납길(納吉)·납징(納徵)·청기(請期)·친영(親迎)의 육례(六禮)로 되어 있다. 도암 이재는 문공가례를 자세히 고찰(考察)하여 『사례편람』을 편찬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풍속과 실정에 맞지 않는 문명·납길·청기를 생략하고 혼례를 의혼(議婚)·납채(納采)·납폐(納幣)·친영(親迎)의 사례로 치루게 한 것이다. 『사례편람』 발행된 이후부터 사대부(士大夫)는 물론 서민(庶民)들 사이에도 이에 따르고자 노력하였다⁴⁰).

『사례편람』은 혼인하는 나이를 남자는 16세에서 30세, 여자는 14세에서 20세에 한다(卷之二, 婚禮 議婚, 男子年十六之三十, 女子, 年十四之二十) 라고 하였다. 『사례편람』 혼례편에는 혼례 시 신랑의 예복으로는 사모(紗帽), 단령(團領), 혁대(革帶), 흑화(黑靴)를 준비 한다고 하였다(卷之二, 婚 十二, 親迎, ‘初婚壻盛服. 諸其. 紗帽. 團領品帶. 黑靴’).

『현토주해 사례편람(懸吐註解 四禮便覽)』은 첫 장가를 들 때에는 붉은 색 단령을 입고, 재혼이나 세 번 장가가는 경우에는 검은색 단령을 입는다고 하였다.⁴¹

『가례작의』에 신랑은 사모를 쓰고, 비포(緋袍)를 입고, 서대(犀帶)를 띠며, 신부는 화관을 쓰고, 하피를 입고, 대대를 띠는데 가난한 선비의 집에서는 협수장의를 하피 대신 입어도 될⁴²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혼례는 인륜지 대사라고 하여 반상(班常)을 가리지 않고 백관의 평상복인 사

40) 朴錦珠(1988), 「四禮便覽의 婚禮服과 現行 婚禮服과의 比較研究」,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2.

41) 홍순필, 『懸吐註解 四禮便覽』, 新式婚喪禮. ‘卽軟紅團領 初娶紅色, 再三娶黑色’

42) 丁若鏞, 『與猶堂全書』第三集 第二十三卷 禮集 婚禮, ‘東俗婚服紗帽緋袍犀帶, 女服花冠霞帔大帶. 今且從俗, 然貧士之家, 安得盡然 宜用夾袖長衣以代霞帔’.

모를 쓰고, 단령을 입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초행때는 신랑집과 신부집과의 거리 또는 지방에 따라 초행 시에 신랑이 초례 할 때와 같은 성장(盛裝)을 하고 오기도 하며, 평복에 주의(周衣)를 입고 와서 막차(幕次) 안에서 사모관대로 갈아입기도 하였다. 하지만 1924년에 출간된 『현토주해 사례편람』에는 “강사포(絳紗袍: 붉은 비단 도포) 즉 연홍색, 분홍 관대를 입는데, 첫 장가를 들 때에는 붉은 색, 재혼이나 세 번 장가가는 경우에는 검은색 단령을 입는다”라고 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복식에도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⁴³⁾.

신부의 예복은 관, 염의(衿衣), 대, 피(帔), 군(裙), 삼자로 되어 있다. 『사례편람』은 옛날에는 혼인에 염의를 입는데, 검은 옷에 붉은 선을 둘렀으니 취할 만한 의미가 있고, 지금의 풍속에는 붉은 장삼을 쓰니 심히 말못할 일이다. 예의를 좋아하는 집에서는 염의를 쓰는 것이 당연하니 통속을 변화시켜 옛것으로 돌아가는 조짐이 되었으면 한다(卷之二, 婚 十六, 古者昏用衿衣, 玄衣而纁緣義有所取, 今俗用紅長衫甚無謂, 好禮之家當製用衿衣, 以爲變俗復古之漸矣)라고 하였다. 염의·소의(宵衣)·단의(椽衣)는 모두 같은 것인데 그 만드는 법을 알 수 있는 것은 현의(玄衣)뿐이며 치마는 다르지 않다 하였고, 염의는 다만 붉은 선을 두르는 것만 다르다 하였다(卷之二 婚 十五, 玄色連衣裳異色, 用綾綺之屬爲之, 以素紗爲裏以纁緣爲異耳). 우암 송시열의 설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염의의 제도를 상고 할 수 없으므로, 고제(古制)를 인용하려 한 것으로 저고리와 치마를 연결시켜 붉은 단을 찼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염의는 바로 심의이며 붉은 색 선을 달았다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卷之二 婚 十六, 一則以爲衿亦是深衣而但緣用紅色爲異)라고 하였다. 또한 단의는 『주례(周禮)』의 왕후(王后)의 육복(六服)가운데 하나이며, 육복은 만드는 법은 다르지 않고, 다만 빛깔과 무늬가 다를 뿐이다(卷之二 婚 十六,

43) 홍나영(1999), 「혼례복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사례복(관·혼·상·제)의 전망과 발전」, 한복사랑운동협의회.

周禮王后六服之一，六服制度無異特色章各殊爾)라 하였다. 염의에 대해서 『사례편람』 卷之二 婚 十五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周禮圖只有服之之象而衣制則未嘗著也,就 考三才圖會, 有所畫 皇后禕衣制度, 恰與男子包相以, 惟文章燦爛而已, 祿衣士妻得以服之則當去其文章.

<周禮圖(주례도)>에는 다만 입을 모양만 있을 뿐 옷을 만드는 법은 실린 적이 없다. 『三才圖會』를 상고해 보면 황후의 위의(禕衣)제도를 그려 놓은 것이 있는데 남자의 포와 비슷하고, 다만 무늬가 찬란한 점만 다르고 단의는 선비의 아내가 입을 때에는 그 무늬를 없애야 되며 이것대로 만든다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현토주해 사례편람』은 “염의는 활옷이며, 신랑과 신부가 맞절 할 때와 시부모 뵈 때에 입는 것이고⁴⁴⁾, 우귀(于歸)에 신부 집에서 단의와 면사포를 갖추는데, 단의는 “속칭 ‘당의’이며, 현재의 원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신부가 시부모를 뵈 후에 화관, 낭자에 원삼을 입되, 가난한 집에서는 원삼을 쓰지 않는다고 하여 1920년대에는 거의 소의나 염의는 별로 사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염의는 활옷으로 단의는 당의나 원삼으로 대신 하였던 것⁴⁵⁾으로 추정된다.

3) 상례복

상례복은 상중에 있는 상제나 복인(服人)이 입는 예복이다. 상복을 엄숙하게 갖추어 입는 것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죽은 사람을 예로써 보내기 위한 산 사람들의 예의 표현 방법이다. 상복을 입는 것을 성복(成服)한다고 하는데, 자식이 죽음을

44) 洪淳泌, 『懸吐註解四禮便覽』, 婚禮 四十四, ‘其制가廣袖傍圻에畧如舊日而以紅段爲質燦爛紋繡者 婿婦交拜及見舅姑時所着’.

45) 홍나영(1999), 전게서.

차마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차마 급히 성복하지 못하고, 반드시 4일이 지난 뒤에 성복한다고 했다. 대렴과 성복은 같은 날에 함께 시행할 수 없다. 3일이 지난 뒤 대렴을 하고, 그 날로 성복하는 것은 예절의 본뜻을 잃은 것이다 하였다(卷之四 喪 一 喪禮 成服, 人子不忍死其親故不人遽成服, 必四日而後成服,,據此, 大斂與成服不可同一并行也, 世人或以殮具未備過三日而大殮, 仍其日成服殊失禮意).

초종(初終)때 『사례편람』 사상기(士喪記)의 주에 손님이 오면 조복(朝服)을 입고, 서민은 심의(深衣)를 입는다 했으나 경황 중에 꼭 조복을 입을 필요는 없다. 또한 화려한 옷이 아니라면 반드시 바꿔 입어야 할 필요는 없고 만약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옷옷을 지금의 도포나 직령 등으로 여긴다면 잘못(卷之三, 喪 一, 男子養疾者所改服, 古禮雖云貴人朝服賤者深衣, 今當代以道袍或直 領婦人服但用新潔)이라 되어 있다.

상례복에는 오복(五服)이 있는데 죽은 사람에 대한 유복자의 친속원근과 존비, 신분에 따라 참취(斬衰)·재취(齋衰)·대공(大功)·소공(小功)·시마(緦麻)등으로 나뉜다. 이와 같이 오복은 사자와의 관계에 따라 착용되기 때문에 3개월부터 3년까지 4계층으로 규정되어 있다.⁴⁶⁾ 『사례편람』에 상복 착용에 대하여 卷之四 喪 一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卷之四, 喪 一, ‘去括髮免, 著喪冠, 以孝巾承之, 加首經, 服衰裳, 承以中衣, 帶絞帶 腰經, 諸履杖, 杖碁以上執杖, 婦人去髮, 亦着冠, 衰裳經帶履杖 五服冠及孝巾絞帶纓武布, 各於其服, 用稍細者, 婦人蓋頭衰 裳布, 準男子冠裳之布’

『사례편람』에 상복착용에 대해서 머리의 묶음과 통건 등을 벗고 상관을

46) 백영자(1993), 『한국의 복식』, 서울 도서출판 경춘사, p.388.

쓰고, 효건을 받친다.(최상 아래 상복을 입고, 중의를 받쳐 입고 수질을 쓴다. 요대와 요질을 띠고, 짚신을 신고 상장을 짚는다. 부인도 상관을 쓰고, 수질과 요질을 하고 상장을 짚는다 하였다. 의절에 오복을 입을 사람들이 각기 옷을 입고 상관을 쓰되 효건을 위에 쓰고, 수질을 하고 죄를 입는데 중의를 먼저 입고, 교대를 두르고, 요질을 두르고, 짚신을 신는다. 여자는 머리를 풀고 관을 쓰고, 죄를 입고, 수질·요질을 하고, 짚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는다. 오복의 제도란 상복을 만드는 채질과 방법에 따라 종류를 5가지로 나눈 것이다. 상기에 맞추어 참최 3년이고, 이 옷의 정상적 정복(正服)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한 것이다. 딸이 아직 시집을 안 갔거나 시집을 갔다 되돌아 온 사람도 같다 하였다.(『四禮便覽』, 卷之四 喪 九, ‘斬衰三年其正服則子爲父也女子子在室, 嫁反在室’) 겹쳐 입는 가복(加服)은 맏손자가 아버지가 이미 작고해서 할아버지나 증 고조에게 승중(承重)한자가 입는 것이다. 아버지가 집을 이어갈 맏아들을 위한 옷이라 하였다(『四禮便覽』, 卷之四 喪 九 其加服則嫡孫父卒爲祖苦曾高祖承重者也, 父爲適子富爲後子也). 의리로 입는 의복(義服)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위한 옷과, 남편이 승중 했으면 따라 입는 옷이다 하였다(『四禮便覽』, 卷之四 喪 十, ‘其義服則婦爲舅也,, 夫承重則從服也). 남의 후사로 양자된 이가 양부모를 위한 옷과 양자된 이가 승중이 된 할아버지에게 입는 옷이다. 남편이 남의 후사로 양자 되었으면 그 아내도 따라 입는 옷이다. 아내가 남편을 위한 옷이다 하였다(『四禮便覽』, 卷之四 喪 九爲人後者爲所後父也爲所後祖承重也, 夫爲人後則妻從服也, 妻爲夫也, 妾爲君也). 채최 3년이고, 이 옷의 정상적인 옷은 아들이 어머니를 위한 옷이다. 시집을 가지 않은 딸이나 시집 갔다 되돌아온 딸도 같다. 서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위한 옷이다. 덧입는 옷은 맏손자가 아버지가 작고해서 할머니나 증고할머니를 위한 승중복이다. 어머니가 가계를 이을 맏아들을 위한 것이다(『四禮便覽』, 卷之四, 喪 十一, ‘其正服則子爲母也, 庶子爲其母同也, 其加服則適孫父卒, 爲祖母苦曾高祖母承重者也, 母爲適子當爲後者也’). 대공 9개월

옷은 종형제 자매를 위한 옷이라 하였다(『四禮便覽』卷之四, 喪 十四, ‘其正服則爲從夫兄弟姊妹’), 소공 5개월 옷은 종조조부와 대고모를 위한 옷이다 하였다(『四禮便覽』卷之四, 喪 十五, ‘其正服則爲從祖祖父從祖祖姑’). 시마 3개월 옷은 종증조부 족증조고를 위한 옷(『四禮便覽』卷之四, 喪 十六, ‘其征服則爲族曾祖父族曾祖姑’)으로 정하였다. 그 외에도 상기나 상복을 감안하여 입는 봉복, 대신하여 입는 대복, 마음으로 상문하는 심상 등이 있었다⁴⁷⁾. 남자 상복 일습은 최의와 최상이 기본이 되고, 중의·관, 수질·요질·교대·상장·신·행전이 있다⁴⁸⁾. 참최의 지팡이는 검은색으로 대나무를 사용하는데 저장⁴⁹⁾이라 하였다. 아버지는 하늘의 둥근 형상을 나타내며, 마디는 슬픔이 애절함을 나타낸다고 한다. 재최의 지팡이는 오동나무를 사용하는데 이를 삭장(削杖)⁵⁰⁾이라고 하였다.

여자 상복으로서의 옷으로는 대수장삼(大袖長衫)을 입는다. 대수장삼은 대수장군(大袖長裙)이라고도 하며 남자의 중의(中衣)와 같으나 대하척(帶下尺)과 임(裋)이 없다. 요질·교대·장은 모두 남자와 같으나 모양은 약간 작고 가늘며 요질에는 산수가 없다.⁵¹⁾

『증보사례편람』 권 4 상례 2 성복편에 참최에는 아주 거친 생포를 사용하고, 재최에는 그 다음 거친 생포를 사용하고, 일년복에는 그 다음 생포를 사용하고, 대공에는 조금 거친 누인 베를 쓴다. 관과 효건과 교대, 갓끈, 무에 쓰는 베는 각 복에 따라 그 복보다 조금 고운 것을 쓴다 하였고, 여자들의 쓰개와 상복의 베는 남자의 관과 옷에 쓰는 베를 기준으로 하였다⁵²⁾. 비요(備要)에 의하면 참최는 옷의 가장자리를 꿰매지 않고, 자최 이하는 가

47) 문광희(1999), 「한국의 상례복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 2(3), p.22.

48) 조효순(1995), 『한국인의 옷』, 서울 : 밀알, p.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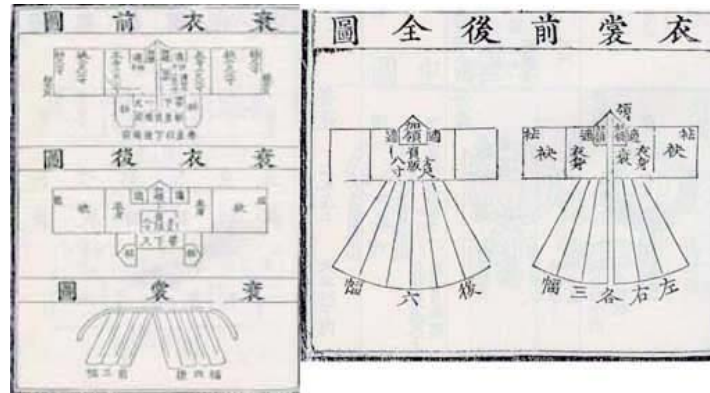
49) 『禮記』, 卷 二七 問喪, ‘爲父苴杖, 苴杖 竹也’.

50) 상계서, ‘爲母削杖, 削杖, 桐也’.

51) 유송옥(1998), 전계서, p. 329.

52) 黃泌秀, 『增補四禮便覽』, 卷之四 喪禮二 成服, ‘斬衰極麤生布, 齊衰次麤生布, 碁次等生布, 大功稍麤熟布, 五服冠及孝巾絞帶纓武布, 各於其服用稍細者, 婦人蓋頭衰裳布’.

장자리를 꿰맨다 하였다. 중의는 최복 밑에 입는 것이고, 최복보다 약간 곱고, 만드는 법은 심의와 같다 하였다.⁵³⁾ 상복의 전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최의, 최상, 대수장군 전도

<출처 『사례편람』 卷之四 喪圖 七>

4) 제례복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옷을 제복이라고 한다. 제사는 왕이 주도하는 나라의 제사로 부터 각 가정에서 조상을 추모하는 제사에 이르기 까지 그 종류와 명칭은 다양하다. 제복은 그 제사에 따라 다르고 입는 사람의 신분 따라 달랐다. 제복을 입기 시작한 것은 왕권이 확립되고 국가의 틀이 잡힌 이후 부터 라고 본다. 고대 사회에서는 제정일치라 하여 나라의 제사를 가장 중요한 행사로 시행 되었다. 조선시대까지는 나라의 제사를 길례로 여겼기 때문에 왕이 착용하는 의복 중에 가장 귀중한 옷으로 규정하여 입었다. 예로부터 문공가례를 중히 여긴 관습으로 각 가정에서 지내는 제사도 엄격하게 시행되어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의관을 갖추어 입어야 되었다.

제례(祭禮)는 『주자가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조선시대는 효에 중점을

53) 상계서, 卷之四 喪禮二 成服, ‘用以承衰服者, 用布生熟同衰服, 布升比衰稍 細, 制同深衣斬衰亦 以布, 綠邊’.

둔 유교의 조상숭배 신앙 기반 위에서 유교식 제례를 수용하였고 현재 까지도 의식과 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례 중 관·혼·상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번은 반드시 거치는 통과 의례에 해당 되지만 제례는 예외로 자손이 선조를 위하여 지내는 예이다. 제례는 조상의 영혼에 대한 의례이며 조상에 대한 효행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의례로 여겼다. 제례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사례편람』에 제례의 종류에는 사당제(祠堂祭), 사시제(四時祭), 예제(禰祭), 기일제(忌日祭), 묘제(墓祭)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경국대전』에 보면 6품 이상의 무관은 3대까지 제사지내고 7품 이하는 2대까지 제사지내며 일반 사람은 단지 부모에게만 제사 지낸다고 기록⁵⁴⁾ 되어 있다.

『사례편람』 제례 편에 정월·동짓달·초하루·보름이 되면 참배한다(卷之八 祭 五, 正至朔望則參) 하였고, 성복이란 관직이 있는 사람은 공복을 입고 복두를 쓰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는다(卷之八 祭 六, 成服者, 有冠則幘頭公服帶靴). 진사(進仕)의 경우 난삼을 입고 복두를 쓰고 띠를 띠는다(卷之八 祭 六, 進士則幘頭襪衫帶). 처사(處士)는 조삼을 입고 복두를 쓰고 띠를 띠는다(卷之八 祭 六, 進士則幘頭襪衫帶). 관직이 없는 사람은 보통 쓰는 모자를 쓰고 삼(衫)을 입고 띠를 띠고(卷之八 祭 六, 無冠者通用帽子衫帶), 이것을 갖추지 못하면 양삼(涼衫)나 심의를 입는다(卷之八 祭 六, 又不能具則深衣或涼衫) 벼슬이 있는 사람이라도 모자 이하를 통용하여 착용하되, 성복으로 여기지 않는다(卷之八 祭 六, 有冠者或通服帽子以下, 但不爲成服). 부인은 족두리·치마·대의(大衣)와 장군(長裙)요(卷之八 祭 六, 婦人則冠與帔大衣長裙), 시집안간 딸이나 친정에 있는 딸은 족두리·배자를 입고 첩들은 가계(假髻)머리에 배자를 입는다(卷之八 祭 六, 女在室者冠子背子, 衆妾假髻背子). 사당 참례 와 묘제(卷之八 祭 三十八, 主人深衣) 때에도 제례복으로 심의를 입었고 사시제(卷之八 祭 十八, 主人師衆丈夫深衣) 때에도 하루 전날 주인이

54) 『經國大典』, 三 三十五, ‘文武官六品以上祭三代七品以下祭二代庶人則只祭考’.

남자들을 데리고 자리를 정하는데 이때에도 심의를 착용 하였다.

『성호사설』에서는 예전 도복은 조선 풍속에서 말하는 도포인데 후세에 와서 제사 지낼 때 입는 옷으로 정해졌다(卷之 五 萬物門 道袍 四二 ‘古之道服東俗所謂道袍也比亦後世賓祭之服)는 내용으로 보아 제례복식으로 도포를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의 제복은 정월초하루·동지·매달초하루·보름과 사당 참례때의 성복은 단령과 직령을 허용하였고(祭儀抄, 參禮儀, ‘主人以下盛服(團領或紅直領亦可), 시제 때에는 벼슬을 지낸 사람은 단령을 입고 사모를 쓰고 품대를 띠고, 벼슬이 없는 사람은 단령을 입고 실띠를 띤다. 부인은 저고리와 치마를 고운 옷으로 입는다(祭儀抄, 時祭儀, 有官者紗帽團領品帶 無官者團領條帶, 婦人上衣下裳皆極其鮮盛之服). 묘제 때에는 주인 이하 모두 검은 갓에 흰옷을 입고, 검은 띠를 띠고 참례하였다(祭儀抄, 墓祭儀, 主人以下 玄冠素服黑帶).

Ⅲ. 의례복식 재현

본 연구는 대표적인 조선시대 예서 『사례편람』에 대해 고찰한 후 의례복식을 재현 제작 한 것이다.

본 논문의 복식제작에서 치수는 지척과 포백척의 길이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문헌과 유물의 치수를 기준으로 제작 하였으며, 예서에 나와 있는 치수는 『사례편람』에 나타난 지척인 1척 23cm로 치수를 풀이 하였다. 그밖에 치수가 제시 되지 않은 옷에 대한 치수는 현재 남성, 여성의 표준치수를 사용하였고, 포백척은 현재 사용되는 50cm 포백척을 기준으로 제작 하였다.

1. 관례복

『사례편람』에 초출복으로 사규삼, 초가복으로 심의, 재가복으로 조삼 혹은 청 도포, 삼가복으로 난삼을 입는다 하였고 여자 계례복 으로는 배자를 입는다 하였다. 본 연구자는 현재 관례식(성년식)에서 관례복식을 남자는 앵삼을 착용하고, 여자는 당의 혹은 원삼을 착용하고 있으며 예서에 나와 있는 난삼과 배자는 착용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례복식에서는 사규삼·난삼·배자를 재현 제작 하고자 한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고 복식 연구에 있어 체계적인 재현 제작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며, 심의와 도포는 제례 복식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제례 복식에서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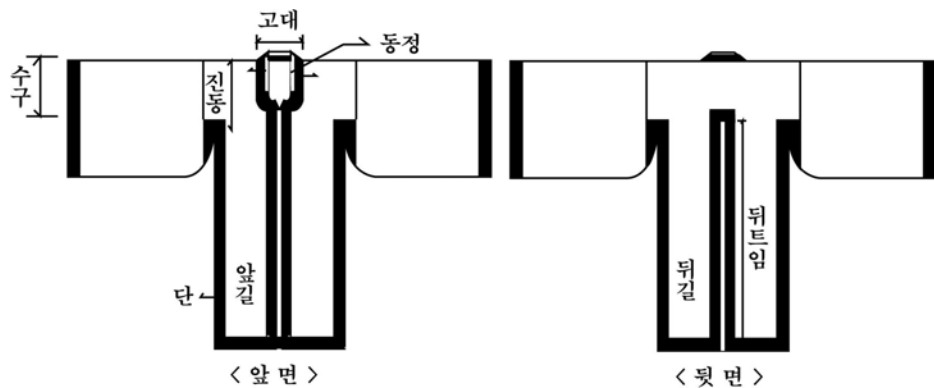
1) 사규삼(四揆衫)

관례 전 초출복인 동자복으로 결과삼(缺髻衫) 이라고도 하며, 세조대(細條

帶)를 띠고 복건을 썼다. 『四禮便覽』에는 “결과삼(缺髻衫)과 같다고 하였다.⁵⁵⁾ 옷감은 남견이나 명주를 사용하여 만들고 깃은 맞대며 소매는 둥글게 하고 앞깃을 열어놓고 뒤를 트고, 비단으로 깃과 소매 끝에 검은단을 친 것으로 동자(童子)의 상복(常服)이지만 중치막(中致幕) 종류와 같아 대응할 만하다⁵⁶⁾ 고 하여 사규삼의 형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관례 때 사용하는 옷이라 하였다.

(1) 제작치수

여기에 사규삼의 형태와 옷감에 대한 설명만 되어 있고 치수는 나와 있지 않아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1호 침선장 박광훈의 『전통한복구성학(傳統韓服構成學)』⁵⁷⁾의 치수를 참고 하였다. 옷감은 화문단으로 하였으며 길은 연두색, 단은 검은색으로 하였다. 옷감 필요량은 길 약 1.6마, 소매 약 2.5마가 필요하고, 검은색 단은 약 1.2마가 필요하다. 사규삼 제작에서의 각 부분 명칭은 <그림 5>와 같고, 사규삼 제작 치수는 <표 3>과 같다.



<그림 5> 사규삼 명칭

55) 李緯, 『四禮便覽』, 卷之一 冠 十一, ‘或稱 缺髻衫’.

56) 상계서, ‘用藍絹或紬爲之,對衿圓袂開放析後,以錦緣領及袖端與裾兩放及下齊,童子常服,如俗中赤莫之類,可代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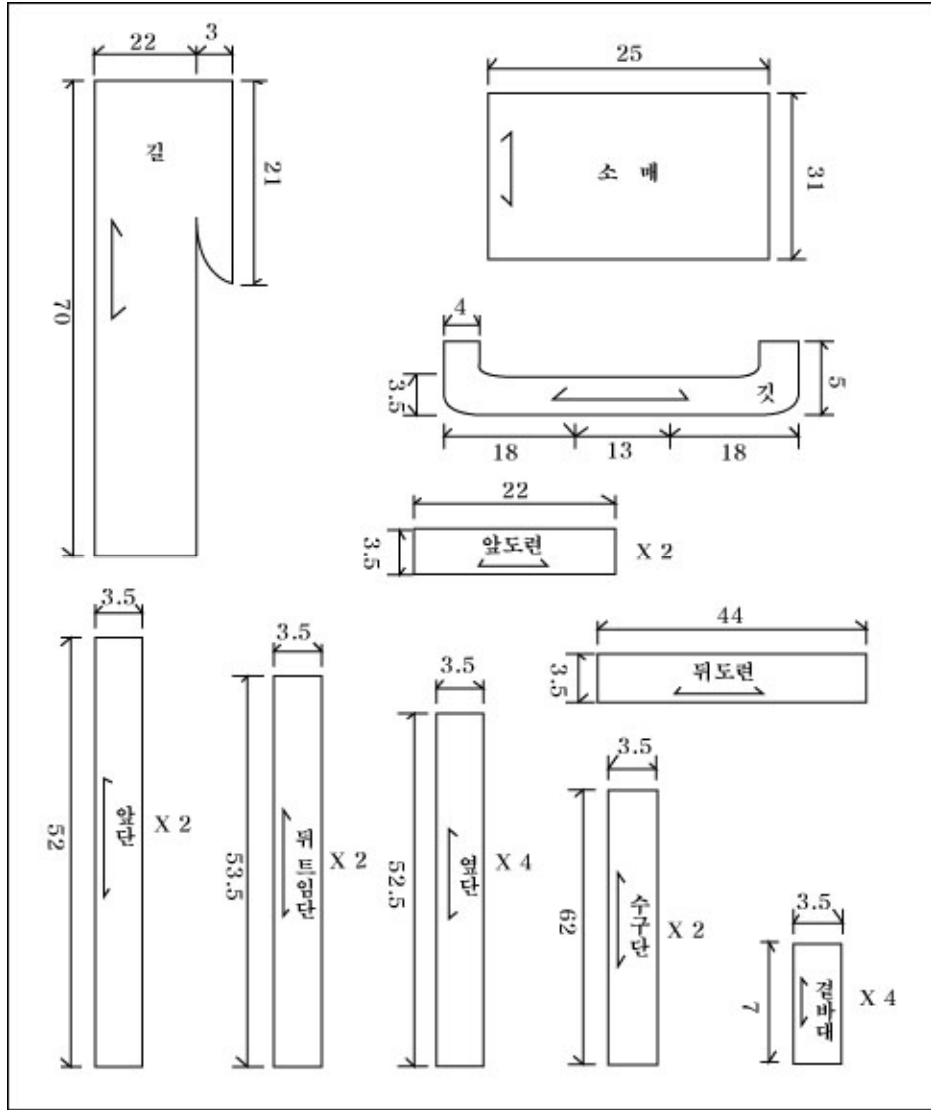
57) 朴宣映(2001), 『傳統韓服構成學』, 서울 : 수학사, p. 44.

<표 3> 사규삼 제작치수

명칭	치수	명칭	치수
앞길	70cm	뒷길	70cm
뒤폭	44cm	화장	50cm
고대	13cm	진동	21cm
두리소매나비	3cm	수구	13cm
뒤트임	50cm	배래나비	31cm
겉깃길이	18cm	단나비	3.5cm
깃나비	3.5cm		

(2) 본뜨기

길은 두리소매를 포함하여 한쪽 길만 본을 떠 좌·우, 앞·뒤를 같이 사용한다. 소매는 골 선으로 하며, 앞 중심 단은 길이 70cm에서 겉깃 길이 18cm를 뺀 길이로 한다. 옆단은 길이 70cm에서 진동 21cm를 뺀 후 단나비 3.5cm 길이로 한다. 도련은 1/4폭 길이로 한다. 수구 단은 앞·뒤 길이를 더하여 한다. 뒤트임 단은 길이 70cm에서 등술기20cm을 뺀 후 단나비 3.5cm를 더한 길이로 한다. 깃은 맞깃 이므로 좌·우 같은 모양으로 겉깃·고대·안깃 길이를 더하여 만든다. 본뜨기 방법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사규삼 본뜨기

(3) 마르기

재단을 할 때는 완성치수로 본뜬 것에 각각 1cm의 시접을 주고 어깨솔기 없이 식서 방향으로 앞·뒤 길이를 마른다. 식서 방향으로 소매 2장, 앞선단 2장, 옆선 단 4장, 수구 단 2장, 결바대 단 4장, 가로 방향으로 앞도련 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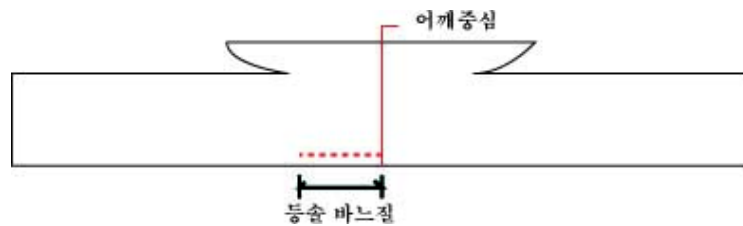
장, 뒤 도련 1장 을 마른다. 깃은 함입 깃으로 양쪽 같은 모양으로 재단을 한다. 앞단을 마를 때 주의 사항은 사규삼의 길이에서 겹깃 길이를 뺀 길이로 마르기를 하여야 단이 깃 안으로 들어간다.

(4) 바느질

바느질 옆단 만들기, 등솔, 수구 단, 소매, 앞단, 옆단, 앞뒤 도련 단, 배래, 깃 달기, 동정달기, 단추달기 순으로 바느질을 한다.

① 등솔 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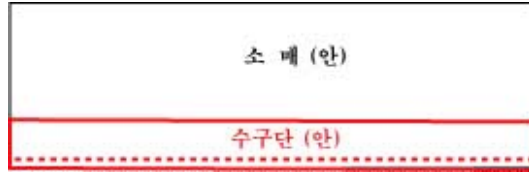
뒷길에 뒤트임이 있으므로 등솔은 고대에서 뒤트임 전인 20cm까지만 바느질 하고 솔기는 오른쪽으로 꺾는다. 등솔 바느질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사규삼 등솔 바느질

② 수구 단 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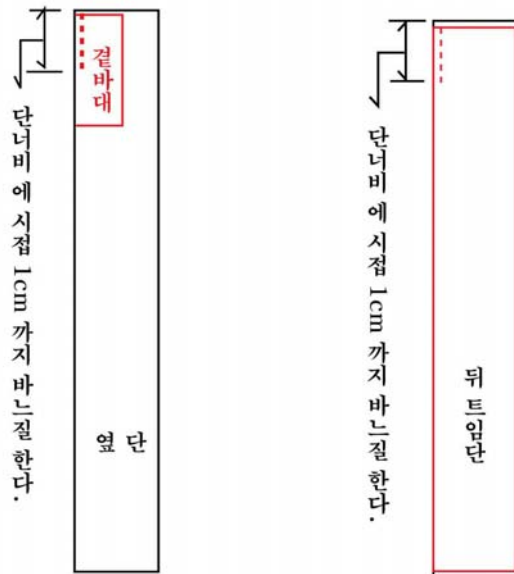
소매 끝에 수구 단을 배래 시접 끝에서 배래 시접 끝까지 천 안쪽에서 바느질한다. 겹쪽으로 넘어갈 단의 시접을 꺾어 다림질 한 후 넘겨서 겹쪽에 공그르기로 바느질 한다. 수구 단 바느질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사규삼 수구단 바느질

③ 옆단·뒤트임 단 만들기

옆단상과 결바대 윗 쪽을 맞추고 단 나비 3.5cm까지 바느질하고 바느질 한곳에서 솔기를 잘라 준다. 솔기는 가름솔로 한다. 옆단 만들기는 <그림 10>과 같다. 뒤트임 단은 단의 위쪽을 맞추고 단 나비만큼 바느질 하고 바느질 한곳에서 시접을 잘라 준다. 솔기는 가름솔로 한다. 뒤트임 단 만들기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9> 사규삼 옆단·뒤트임 단 만들기

④ 소매 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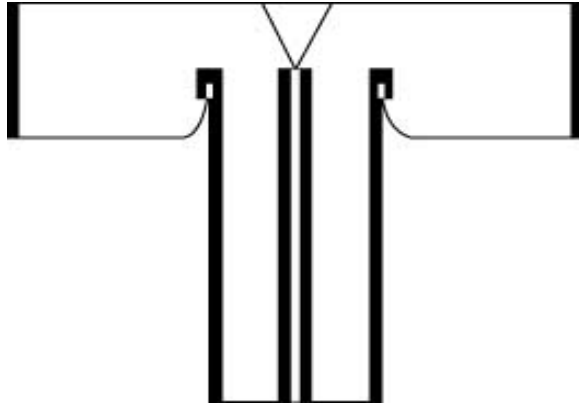
소매는 길 어깨 중심에 소매 중심을 맞추고 시접 끝에서 시접 끝까지 바느질 하고 솔기는 가름솔로 한다. 소매 바느질은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사규삼 소매 바느질

⑤ 앞·옆단 바느질

단은 길 아래쪽에서 맞추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바느질을 길 완성선까지 만 천 안쪽에서 바느질하고 겹으로 넘어갈 단의 시접만큼 꺾어 다림질 한 후 겹으로 넘겨 공그르기로 바느질 한다. 앞 옆단 바느질은 옆단과 결바대 바느질 할 때 시접을 잘라 놓은 곳부터 천 안쪽에서 아래쪽 길 완성선까지 바느질 한 후 단 쪽 시접을 꺾어 다려서 겹감 쪽으로 넘겨 공그르기로 바느질 한다. 단 바느질 할 때는 세로 단부터 바느질 하고 가로 단을 바느질 하여야 한다. 앞·옆단 바느질은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사규삼 앞·옆단 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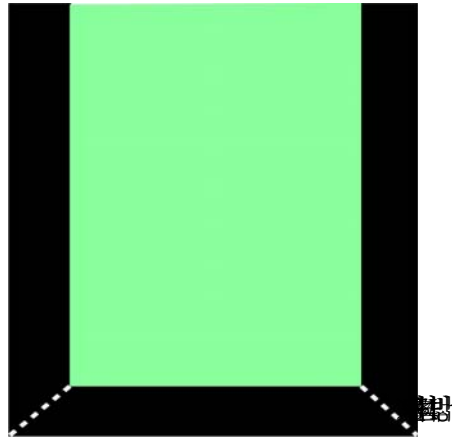
⑥ 앞·뒤 도련 단 바느질

도련 단 바느질은 앞·옆단 바느질 할 때 아래쪽 길 완성선 까지 바느질 한 부분에 도련 단 완성선을 맞추어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까지 바느질 한다. 도련 단은 겉쪽으로 넘겨서 양쪽 모서리에서 연귀이음으로 처리해야 된다. 도련 단 바느질은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사규삼 도련단 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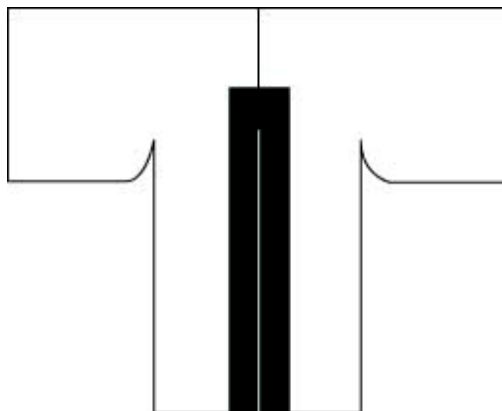
모서리는 연귀이음으로 처리 하는데 도련 단을 바느질 한 후 겉으로 넘겨서 양쪽 모서리를 사선을 꺾어 단속으로 넣은 후 공그르기로 바느질 한다. 연귀이음 하는 방법은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사규삼 연귀이음 하는 방법

⑦ 뒤트임 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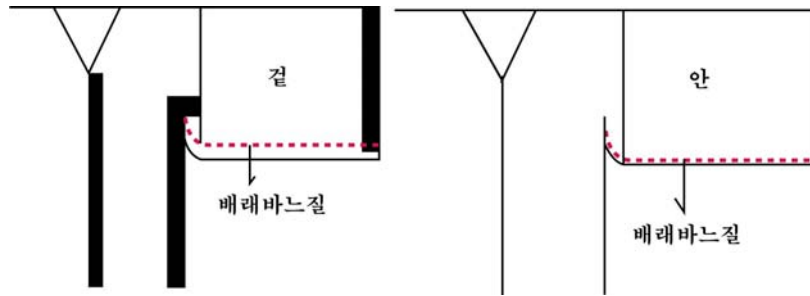
뒤트임 단은 양쪽단의 위쪽에 바느질 하고 시점을 자른 곳부터 아래쪽 길 완성선까지 바느질 한다. 뒤트임·옆단 바느질은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사규삼 뒤트임·옆단 바느질

⑧ 배래 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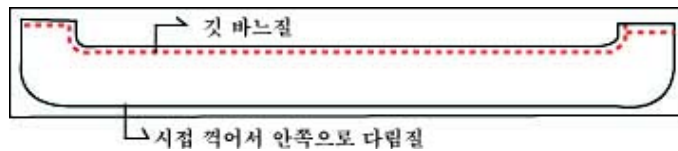
배래는 통솔로 처리한다. 겉쪽 완성선에서 시접 쪽 밖으로 5mm 바느질 한 후 시접을 3mm정도 남기고 잘라 내어 시접을 꺾어 다림질 한 후 뒤집는다. 다시 소매의 겉과 안을 맞대고 배래 완성선에 바느질 한다. 배래 바느질은 <그림 15>와 같다.



<그림 15> 사규삼 배래 바느질

⑨ 깃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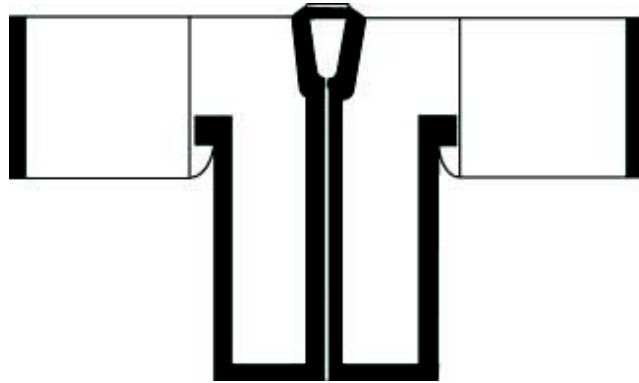
사규삼은 홑옷 이므로 깃은 겉·안깃을 시접을 주고 골로 재단하여 골 부분을 시접만큼 바느질 한다. 깃 길이는 겉깃 길이, 고대, 안깃 길이를 더한 것으로 좌·우 모양을 똑같이 만든다. 홑옷으로 겉·안깃에 시접을 주고 골로 재단하여 골 부분을 시접만큼 바느질 하고, 시접을 0.5cm정도로 정리하며, 곡선 부분에 가위밥을 준 후 겉깃 쪽으로 꺾어 다린다. 깃 바깥쪽 시접을 꺾어 안쪽으로 다림질 한다. 깃 만들기는 <그림 16>과 같다.



<그림 16> 사규삼 깃 만들기

⑩ 깃 달기

깃은 맞깃으로 만든 깃을 반으로 접어 중심을 표시한 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침을 해서 앞쪽에서 좌·우 깃이 맞는지 확인한 후 깃을 바느질 한다. 깃 달기는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 사규삼 깃 달기

⑪ 깃·동정 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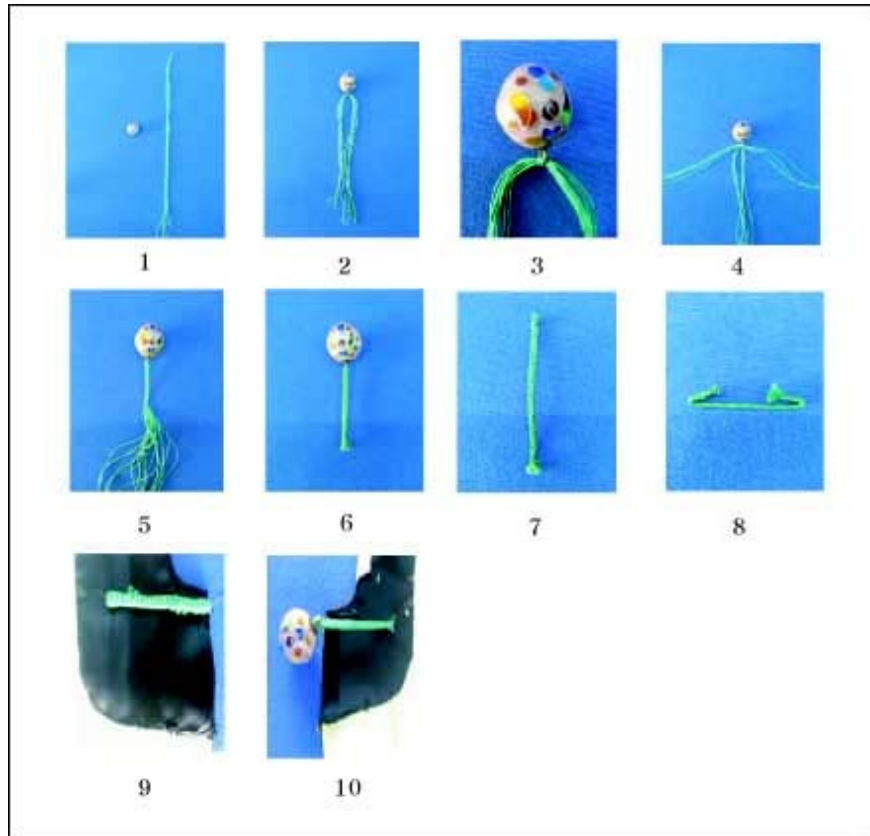
동정도 합임 깃 이므로 좌·우 길이를 똑같이 단다. 깃·동정 달기는 <그림 18>과 같다.



<그림 18> 사규삼 깃·동정 달기

⑫ 단추 고리 만들기 및 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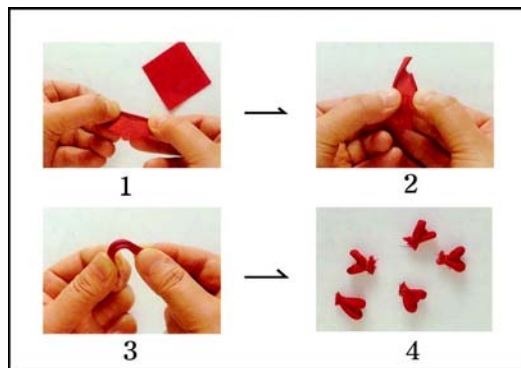
단추 구멍(아래 그림 참조)에 들어갈 정도의 실 을 잘라서 단추 구멍에 넣고 두 갈래 실을 매듭을 지은 후 세 갈래로 나누어서 아래 그림과 같이 따고 본인이 원하는 길이가 되었을 때 멈추고 남은 세 가닥끼리 매듭을 지어준다. 고리는 원하는 고리의 길이만큼 잘라서 처음에 매듭을 지어 주고 원하는 고리 길이만큼 따고 실 가닥을 잘라서 매듭을 짓고 남은 세 가닥으로 매듭을 짓는다. 그림처럼 오른쪽에 단추 2개를 달고 왼쪽에 단추 고리 2개를 단다. 단추 고리 만들기 및 달기는 <그림 19>와 같다.



<그림 19> 사규삼 단추 만들기

⑬ 수구·뒤트임 박쥐단추 달기

박쥐 단추 만드는 방법은 옷 색에 맞춰 옷감은 가로·세로 3cm로 정사각형으로 자른다. 자른 천 조각을 양쪽 모서리에서 중심을 향하여 마주보게 말아준다. 말은 것을 풀리지 않게 뒤로 뒤집어서 반으로 꺾은 후 원하는 단추 길이 지점에서 실로 동여맨다. 박쥐 모양이 완성 되면 말은 부분을 약간 벌린다. 박쥐 단추 만드는 방법은 <그림 20>과 같다. 단추를 달기 전에 실로 동여맨 뒷부분을 가위로 잘라 내고 풀을 약간 칠한 다음에 다리미로 눌러주고 수구와 뒤트임에 달아 주는데 달 때 실 땀이 겉에서 보이지 않게 바느질 한다. 수구와 뒤트임 박쥐단추 달기는 <그림 21>과 같다.



<그림 20> 사규삼 박쥐단추 만들기



<그림 21> 사규삼 박쥐단추 달기

(5) 완성작품



<그림 22> 사구삼 완성작품 (앞면)



<그림 23> 사규삼 완성작품 (뒤면)

2) 난삼

난삼은 삼가 복식이다. 『사례편람』에서 보면 난삼(欄衫)은 조선시대 유생 복으로 진사복(進士服)과 관례복(冠禮服)의 하나다. 난삼(欄衫)이라고도 표기한다. 난삼은 남빛 비단이나 옥색 비단으로 만든다 하였다(卷之一 冠 十, ‘用藍絹或玉色絹布爲材’). 사계(沙溪)가 말하기를 청 흑색 비단으로 만들고 넓이 4~5치 되게 령(領)의 가장자리·소매 끝·옷자락 끝을 장식한다고 하였으며(卷之一 冠 十, 沙溪曰以青黑絹廣四五寸, 飾領緣及袖端與衣間末), 우암(尤庵)은 난삼을 만드는 법은 단령(團領)과 같은데 곁에 귀가 한 잎 이다 하였다((卷之一 冠 十, ‘尤庵曰制如團領而但傍耳一葉’). 난삼에 매는 대는 조대 또는 영대라고도 한다 하였다(卷之一 冠 十, 尤庵曰制如團領而但傍耳一葉). 난삼은 현재 전해지고 있는 유물이 없기 때문에 형태·재질·빛깔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앵삼(鶯衫)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앵삼과 같은 피꼬리색이 아니라 주로 옥색 바탕에 검은 선을 두른 옷이다 하였다⁵⁸⁾.

조선 초에는 청색 바탕에 검은 선, 세종 때에는 옥색 바탕에 청색 선, 선조 때에는 남색 바탕에 청색 혹은 검은 선을 둘렀다. 그리고 숙종 때부터는 옥색에 검은 선을 둘렀는데 이것을 조선말 까지 착용 하였다.⁵⁹⁾ 난삼은 유생복·진사복·생원복으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예복으로 관례·상례,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조상 사당에 고하는 제사 의식에 이용 되었다.

난삼은 조선후기에 피꼬리 색[鶯色]으로 옷 빛깔이 바뀌면서 명칭도 앵삼(鶯衫)으로 바뀌었다. 창덕궁에 소장되어 있는 앵삼 유물 을 보면 곁감은 연한 연두색 생주(生紬)이고, 안감은 노랑 명주를 받쳐서 피꼬리 색을 냈으며, 검정 색 주로 선을 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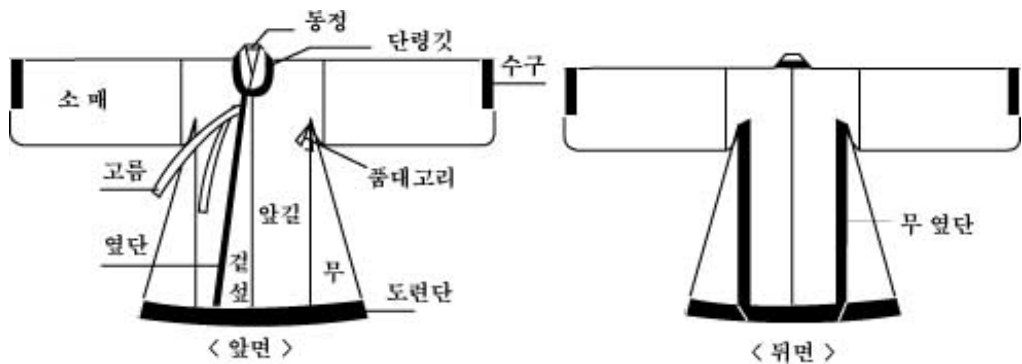
58)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전계서, p. 345.

59)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전계서, p. 345.

(1) 난삼의 제작치수

앵삼과 제작 방법이 같으나 도련 단이 넓고, 앞길에는 무를 달지만 뒷길에는 무를 달지 않는다. 뒷길 재단 시에는 무가 달리지 않기 때문에 진동아래부터 사선으로 재단을 한다. 앞길 무 옆선에 검은색 단을 바느질 한다.

예서에 난삼에 대한 형태와에 색깔 등에 대한 설명만 있고 치수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치수는 선행연구인 문영표(2003, 사례편람과 거가잡복고의 복식연구」 60)의 연구를 참고 하였다. 옷감은 옥색 갑사, 안감은 노란색 갑사, 단은 검은색 갑사를 사용 하였다. 옷감 필요량은 110cm폭으로 길 3마, 소매 2마 7치, 겹섧·안섧 1.5마, 무 1마, 깃,고름 포함 8마가 필요하다. 안감의 옷감 필요량은 겹감과 동일하다. 검은색은 2마가 필요하다. 난삼 제작에서의 각 부분 명칭은 <그림 24>와 같고, 제작치수는 <표 4>와 같다.



<그림 24> 난삼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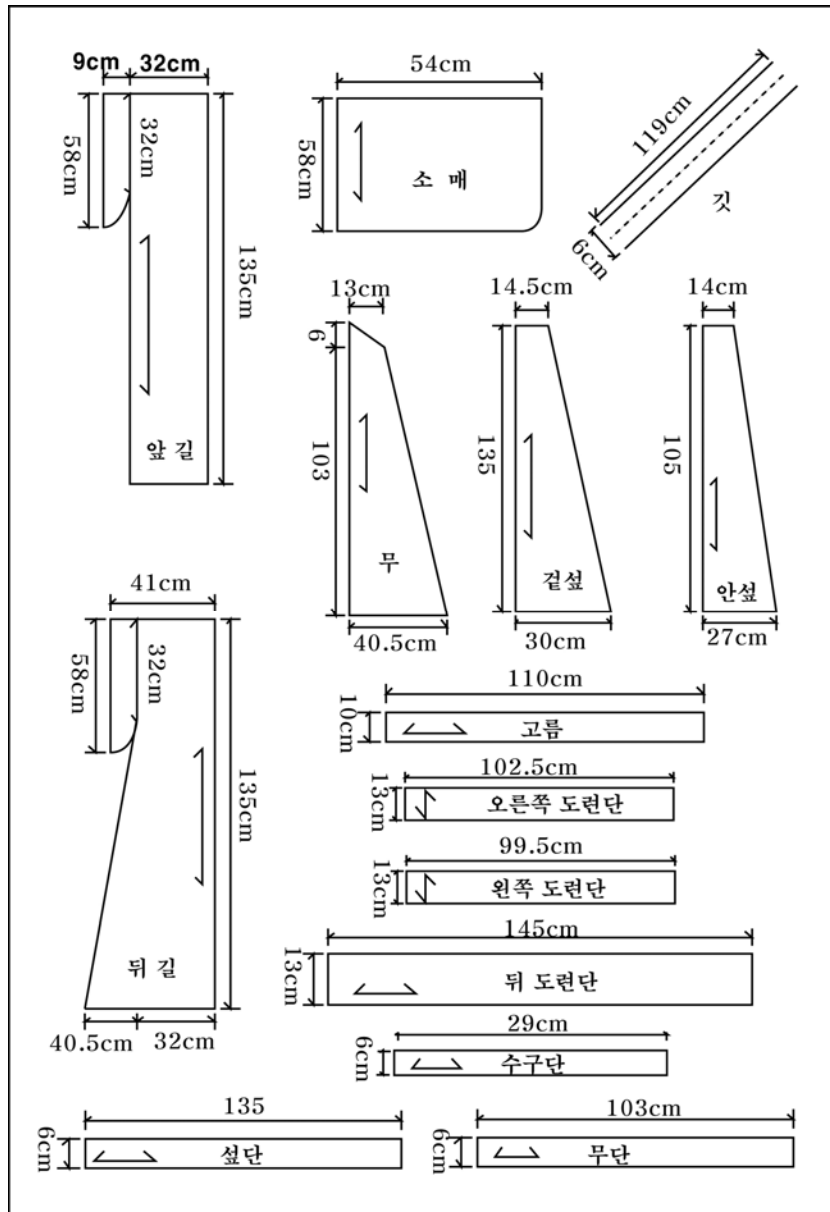
60) 문영표(2003), 「四禮便覽과 居家雜服攷의 복식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99.

<표 4> 난삼 제작치수

구 분		치 수	구 분		치 수
길	이	135cm	무	길 이	103cm
뒤	폭	64cm		위	13cm
진	동	32cm		아 래	40.5cm
화	장	95cm	겉 셔	길 이	135cm
고	대	28cm		위	14.5cm
수	구	23cm		아 래	30cm
두리소매	길이	58cm	안 셔	길 이	105cm
	너비	9cm		위	14cm
고 름	길이	110cm		단나비	아래
	나비	10cm	도련		13cm
				옆·셔·수구	6cm

(2) 본뜨기

길은 두리소매를 포함하고 뒤 길에는 무가 달리지 않으므로 앞길과 뒷길은 이어서 본을 뜬다. 소매는 골 선으로 하며, 앞 셔단은 길이 135cm와 같은 길이로 한다. 무는 135cm에서 진동 21cm를 뺀 길이로 뜬다. 무단은 길이 135cm에서 진동 32cm를 뺀 길이로 하고 무 직선부분 위쪽 삼각형 부분에 6cm를 추가 한다. 겉감 깃은 단령 깃이므로 정바이어스로 본을 뜬다. 셔단과 무단은 크기가 같고 앞·뒤 도련 단은 크기가 크다. 본뜨기는 <그림 2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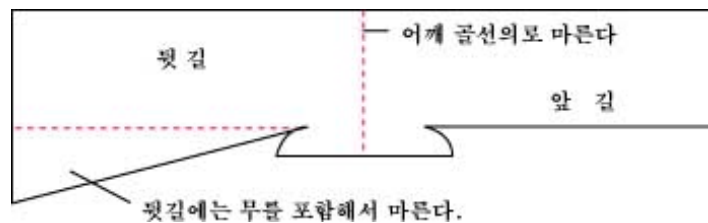
<그림 25> 난삼 본뜨기

(3) 마르기

겉감 재단을 할 때는 완성치수로 본 뜬것에 각각 1cm의 시접을 두고 어깨 솔기 없이 식서 방향으로 두리 소매로 앞·뒤 길을 마르는데, 뒤 길은 무를 달지 않기 때문에 무 나비만큼 포함해서 재단을 해야 된다. 소매는 골로 식서 방향으로 2장, 길이를 식서 방향으로 겹썬길이는 난삼 길이와 같게 재단하고, 안설피 길이는 난삼 길이보다 20cm정도 짧게 재단한다. 무는 식서 방향으로 2장, 폭 방향으로 앞 도련단 2장, 뒤도련단, 식서 방향으로 앞단 1장, 무 단 2장, 수구 단 2장을 재단한다. 깃은 단령 깃 이므로 정바이어스로 재단을 한다. 안감 재단은 겉감과 동일하게 하고 깃은 직령 깃으로 재단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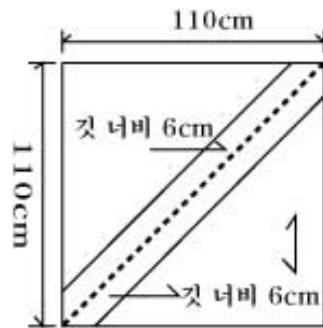
① 앞·뒤길 마르기

식서 방향으로 어깨솔기 없이 앞·뒤 길은 마른다. 앞길에는 무가 달리고 뒷길에는 무가 달리지 않으므로 무 나비만큼 추가해서 마르기를 해야 된다. 앞·뒤길 마르기는 <그림 26>과 같다.



<그림 26> 난삼 앞·뒤길 마르기

② 깃 재단은 <그림 27>과 같다.



<그림 27> 난삼 깃 마르기

(4) 바느질하기

바느질 순서는 겹썩, 무, 소매 끝에 검은색 단을 완성선 까지만 바느질한 다음에 길에 겹썩·알썩·무·소매 바느질 한다. 안감 바느질은 겹감과 동일하게 한다.

① 등술 바느질하기

등술은 고대에서 도련 쪽으로 바느질을 하고 술기는 입어서 오른쪽으로 꺾는다. (안감도 동일하게 바느질 하고 술기는 겹감과 반대로 꺾는다.) 겹감·안감 바느질 방법은 <그림 2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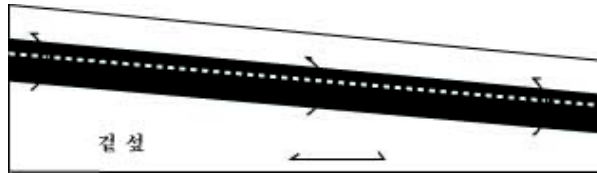


<그림 28> 난삼 겹감·안감 바느질

② 섹단 바느질

단 바느질은 겹썩선에서 단 나비만큼 들어 곳에서 도련 완성선 까지 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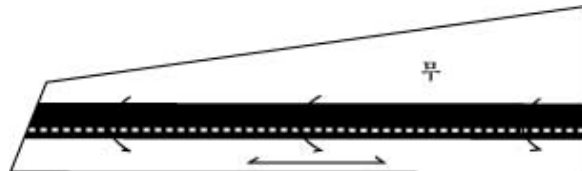
하고 단을 시접 방향 쪽으로 넘겨서 시침을 한다. 섯단 바느질 방법은 <그림 29>와 같다.



<그림 29> 난삼 섯단 바느질

③ 무단 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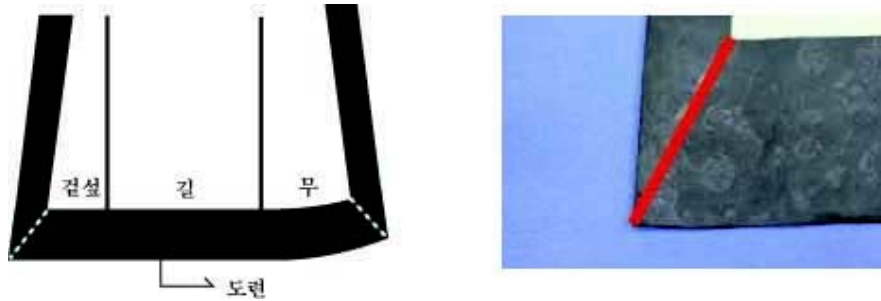
무의 직선 쪽에서 단 나비만큼 들어간 곳에서 도련 완성선 까지 바느질하고 단을 시접 방향으로 넘겨서 시침을 한다. 무단 바느질 방법은 <그림 30>과 같다.



<그림 30> 난삼 무단 바느질

④ 앞 도련단 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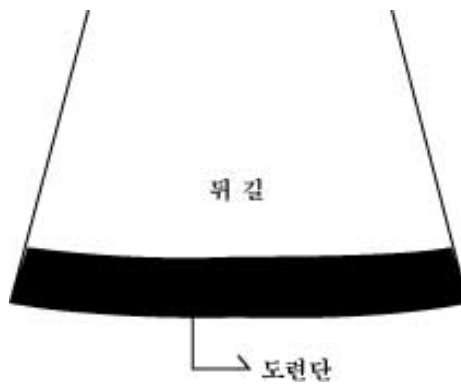
도련 단 바느질은 섯단과 무단을 바느질 한곳에 맞춰 바느질 하고 양쪽 모서리에서 연귀이음 부분을 공그르기로 마무리 하고 시침을 한다. 앞도련 단 바느질 방법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난삼 앞 도련단 바느질

⑤ 뒤길 도련단 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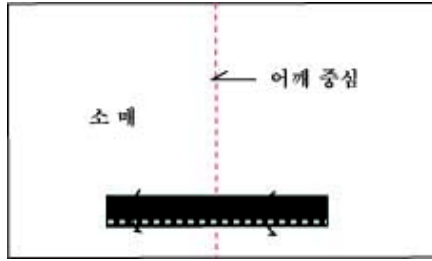
뒤 길은 무가 없으므로 도련 단만 바느질 한다. 단을 도련선 안쪽으로 단 나비만큼 들어가서 바느질 하고 단을 시침 쪽으로 꺾어 넘겨서 시침을 한다. 뒤길 도련 단 바느질 방법은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난삼 뒤 도련단 바느질

⑥ 수구 단 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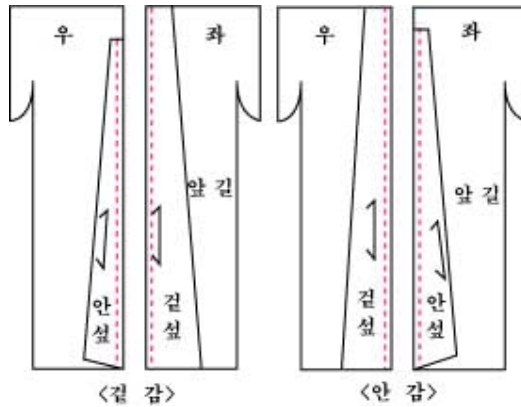
단 바느질은 소매 끝에서 안쪽으로 단 나비만큼 들어간 곳에 바느질 하고 단을 소매끝 부분으로 꺾어 시침을 한다. 수구 단 바느질 방법은 <그림 33>과 같다.



<그림 33> 난삼 수구단 바느질

⑦ 겹섶 · 안섶 바느질

겹섶은 길 겹과 섶 겹이 마주 보게 맞춰 중심선에 직선을 바느질 하고 술기는 겹섶 쪽으로 꺾는다. 안섶도 길 겹과 섶 겹을 마주 보게 맞춰 사선(어슷선)을 중심선에 바느질하고 술기는 길 쪽으로 꺾는다. 안감은 겹감과 반대로 바느질 한다. 겹섶 · 안섶 바느질 방법은 <그림 3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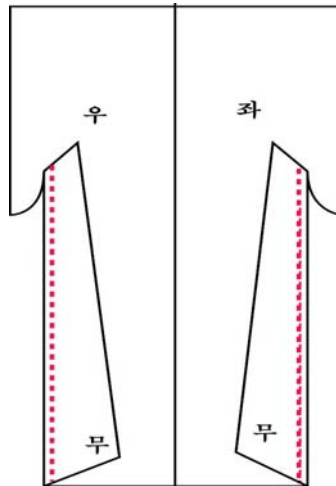


<그림 34> 난삼 겹섶 · 안섶 바느질

⑧ 무 바느질

무는 뒷길에는 무를 달지 않으므로 앞길에만 무를 바느질 한다. 무를 바느질 할 때는 무의 위(上)를 진동 점에 정확히 맞추고 길에 무의 사선을 대고 바느질 한 후 술기는 길 쪽으로 꺾는다. 안감도 동일하다. 무 바느질 방법은

<그림 35>와 같다.



<그림 35> 난삼 무 달기

⑨ 소매 바느질

길 어깨 중심과 소매 중심을 맞추고 끝에서 끝까지 바느질 하고 시접은 가름술로 처리 한다. 소매 바느질 방법은 <그림 36>과 같다.



<그림 36> 난삼 소매 바느질

⑩ 안감 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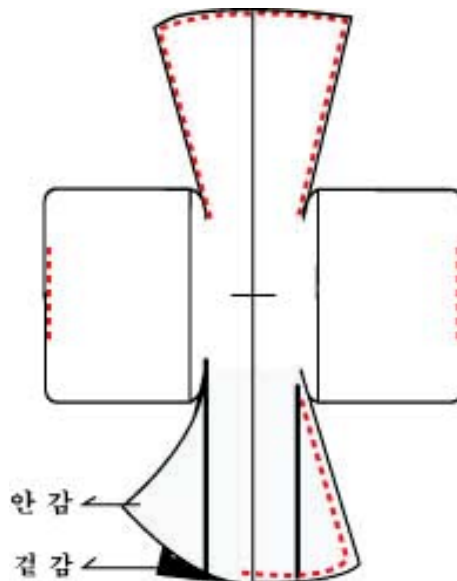
안감은 겉감과 동일하게 바느질한다. 겉감 바느질 하고 다른 부분은 겉섬과 안섬이 겉감과 반대로 바느질 하는 점이다. 안감에는 단을 붙이지 않는다.

⑪ 안감 깃 달기

안감 깃 직령 깃으로 만들어 안감을 완성한 후 깃을 달아도 되고 겹감과 안감을 맞춰 바느질 한 후 뒤집어서 깃을 달아도 된다. 겹감·안감을 바느질 하여 안감 깃을 달면 복잡하고 달기 힘들므로 여기에서는 안감에 먼저 깃을 다는 방법으로 설명 하였다. 안감 깃은 직령, 저고리등과 같이 단 후에 깃 크기 만큼 동정을 만들어 단다.

⑫ 겹감·안감 바느질

겹감의 겹과 안감의 겹은 마주보게 맞춰 겹·안섵선, 좌·우 도련선, 무, 수구, 뒤 도련 선을 바느질 한다. 겹감·안감 바느질 방법은 <그림 3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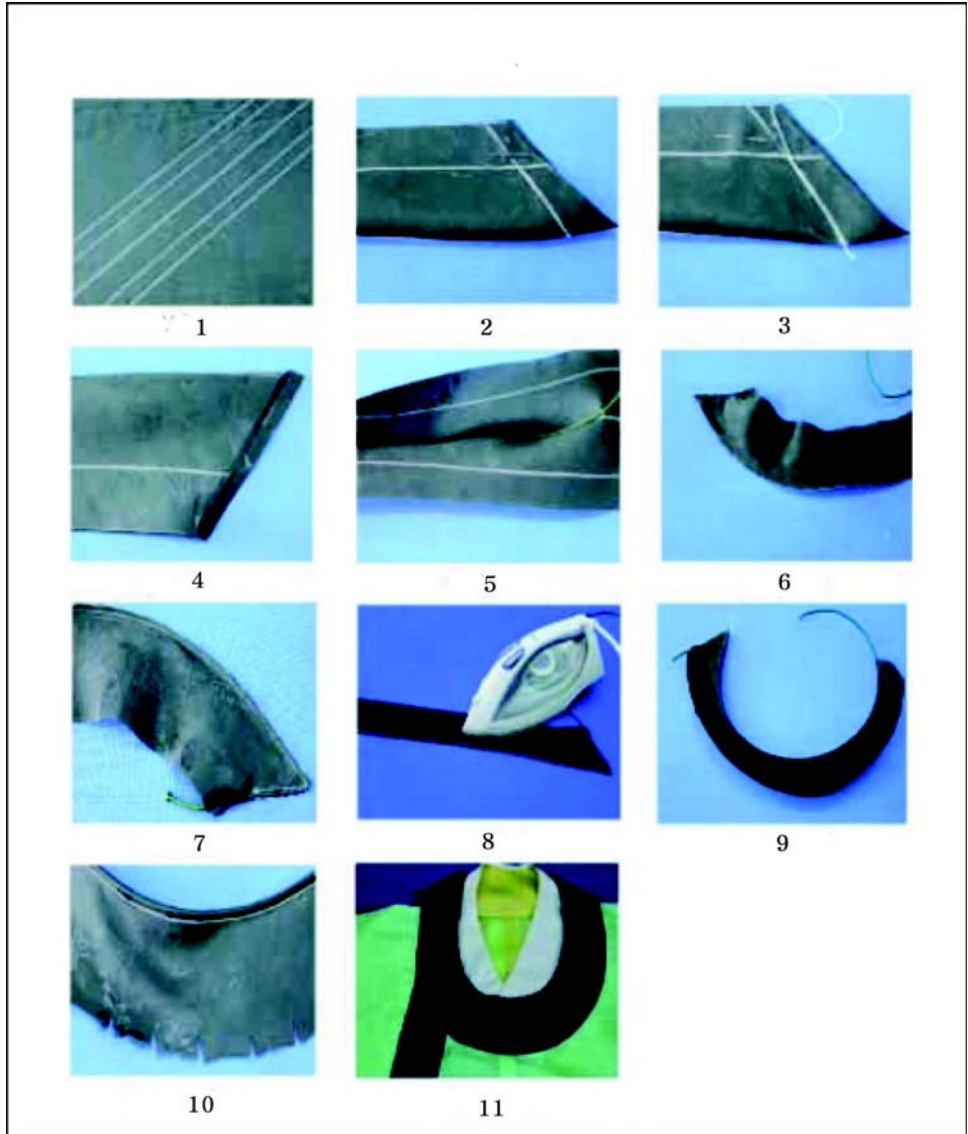
<그림 37> 난삼 겹감·안감 바느질

⑬ 배래 하기

겹감·안감 맞추어 바느질한 것을 앞길 좌·우를 뒤집어서 뒤 길에 넣은 후 배래를 네 겹으로 맞춘 후 배래 바느질을 한다.

⑭ 단령 깃 만들기

단령 깃은 겹깃·안깃 나비에 양쪽 깃에 시접을 넉넉하게 3cm씩 추가해서 정바이어스로 재단(그림 1)한다. 골로 접은 후 시침을 하고 어깨 고대 부분에 맞추어 사선(그림 2)을 그린다. 사선을 부분을 바느질(그림 3)을 한다. 바느질한 사선 부분을 다림질(그림 4)하여 시접을 겹깃 쪽으로 꺾어 다림질 한다. 사선을 바느질한 깃을 겹감이 겹으로 나오게 뒤집어서 골부분에 심(그림 5)을 맞춘다. 심이 골부분에 최대한 밀착되게 당겨서 시침(그림 6)을 한다. 시침을 한 후에 손바느질로 할 경우에는 고운 상침이나 홈질로 바느질을 하고 재봉틀로 할 경우에는 고운 땀(그림 7)으로 한다. 바느질을 할 때는 심과 같이 바느질 할때 옷감과 심을 같이 바느질 하면 안 된다. 깃의 곡선 부분을 만들때 심이 옷감과 따로 유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깃의 곡선을 만들때는 좌·우, 상·하로 다리미(그림 8)로 누르면서 늘린다. 다리미로 늘리면서 곡선(그림 9)을 확인하면서 원하는 곡선이 될 때 까지 시접에 가위집(그림 10)을 주면서 늘린후 곡선이 완성(그림 11)되면 시접 정리를 하고 시접을 깃 안쪽으로 꺾어 다린후 마무리 한다. 단령 깃 만드는 방법은 <그림 3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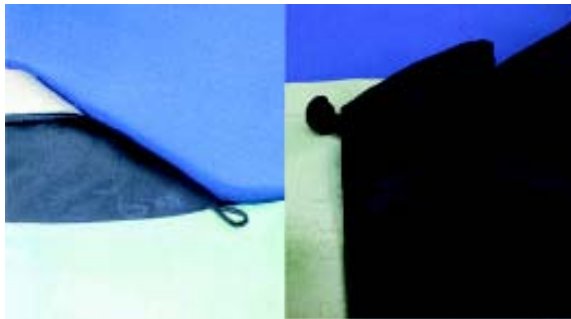


<그림 38> 난삼 단령 깃 만들기

⑮ 깃 바느질

배래를 바느질한 후 뒤집어서 길과 안섷을 바느질한 선을 등술에 맞추고 길과 겹섷을 바느질한 선을 중심선에 맞춘다. 깃을 달기전에 겹쪽 깃과 안쪽 깃의 시접을 안쪽으로 꺾어 넣을때 오른쪽 시접끝 부분에 매듭단추를 고정한다.

겉섀 도련 단을 오른쪽 도련 단에 맞춘 후 아래부터 위로 핀 시침을 위 까지 한 후 겉섀 위치를 표시한다. 표시한 부분에 깃본을 대고 완성선을 그린 다음 완성선을 따라 잘라 낸다. 겉섀 상부터 깃을 맞추어 시침을 하는데 오른쪽 고대점 2cm전에 단추 고리를 끼워 시침을 한다. 겉깃은 겉에서 공그르기로 바느질 하고 안깃은 안에서 공그르기로 바느질로 한다. 깃 단 추 및 고리 바느질 방법은 <그림 39>와 같다.



<그림 39> 난삼 단추 및 고리

⑰ 품대 고리 바느질

고리는 길이 40cm, 나비 2cm로 만들어서 반을 접어서 진동 점에 바느질 하고 앞뒤로 간 것을 아래로 꺾어 내려서 양쪽 모서리를 바느질 한다. 품대 고리 바느질 방법은 <그림 40>과 같다.



<그림 40> 난삼 품대 고리 바느질

(5) 완성작품



<그림 41> 난삼 완성작품 (앞면)



<그림 42> 난삼 완성작품 (뒤면)

3) 배자

배자는 계례시 계례자의 복식이다.⁶¹⁾ 색깔 있는 주나 견으로 만든다. 길이는 치마와 같고 깃이 맞 닿아 있으며 옆은 트이고 소매는 둥글며 반(半)소매이기도 하고 소매가 없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몽두의(蒙頭衣)라고 하였다⁶²⁾. 겹으로 만들며 깃은 일반 둥근 깃으로 합임 깃으로 단다. 형태는 사규삼과 비슷하나 소매는 저고리의 배래와 같이 하였다⁶³⁾. 옆·앞선과 앞·뒷길 도련 단, 수구단을 대었다. 깃이 끝나는 지점에 매듭단추를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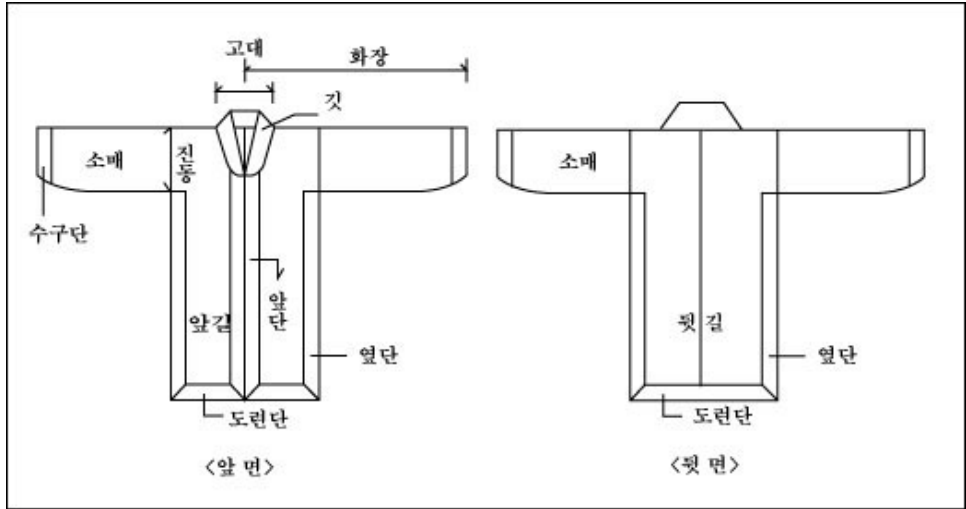
(1) 제작치수

예서에 배자에 대한 형태 및 색깔만 서술되어 있어 선행연구인 『사례편람과 거가잡복고 복식연구』의 연구내용을 참고 하였다. 옷감은 다홍색 화문단, 안감은 노란색 옥사, 단은 진홍색 화문단을 사용 하였다. 옷감 필요량은 폭 55cm길 약 2.9마, 소매 1.2마로 필요하다. 안감은 겹감과 동일하다. 단은 길이 1.1마가 필요하다. 배자 명칭은 <그림 43>, 제작치수는 <표 5>와 같다.

61) 李緯, 『四禮便覽』, 卷之 一 冠 二十一, ‘用背子冠禮’

62) 李緯, 『四禮便覽』, 卷之 一 冠 二十一, ‘用色紬或絹爲之, 長與裙齊對衿開旁圓被或半臂或無袖, 五禮儀 本國 蒙頭衣’.

63) 문영표(2003), 전계서. p.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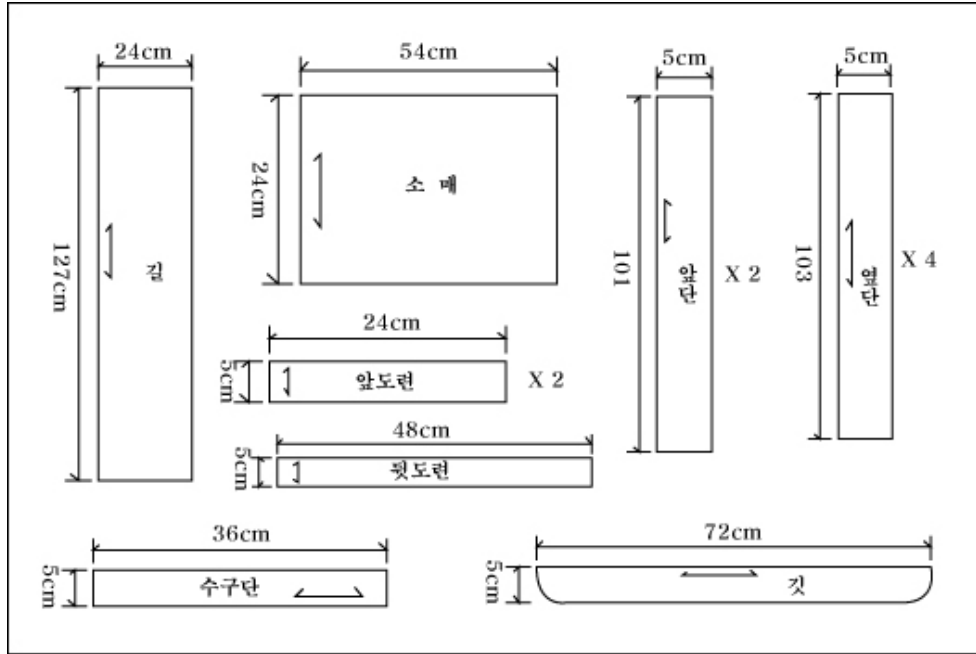
〈그림 43〉 배자 명칭

〈표 5〉 배자 제작치수

구 분	치 수	구 분	치 수	
길 이	127cm	화 장	78cm	
폭	48cm	고 대	20cm	
진 동	24cm	수 구	18cm	
단 너 비	5cm	겉 깃	길 이	26cm
			나 비	5cm

(2) 본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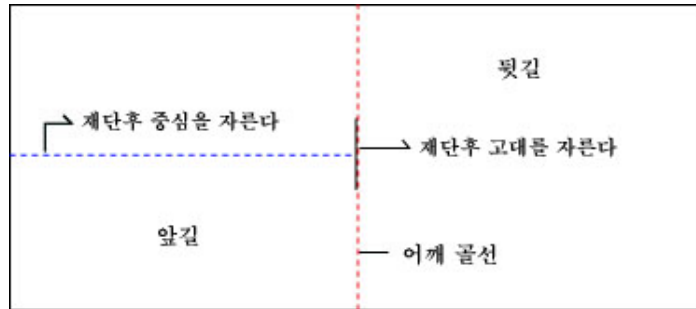
본은 한쪽길만 본을 떠서 좌우·앞뒤를 같이 사용한다. 소매는 골 선으로 하며, 앞 중심 단은 길이 127cm에서 겉깃 길이 26cm를 뺀 후 단 나비 5cm 길이로 한다. 옆단은 길이 127cm에서 진동 21cm를 뺀 후 단 나비 5cm 길이로 한다. 소매 끝동은 수구 18cm에 3cm 정도 더해서 한다. 깃은 일반 둥근 깃으로 맞깃 이다. 본뜨는 방법은 〈그림 44〉와 같다.



<그림 44> 배자 본뜨기

(3) 마르기

겉을 재단 할 때는 완성치수로 본 뜬것에 각각 부분에 시점을 1cm를 주고 어깨솔기 없이 식서 방향으로 마른다. 소매도 식서 방향으로 골로 해서 두 장을 마른다. 깃은 식서 방향으로 겹깃은 겹감 천으로 안깃은 안감 천으로 마른다. 좌·우 앞단은 식서 방향으로 배자 길이에서 겹깃 길이를 뺀 만큼 마른다. 좌·우 옆단은 식서 방향으로 배자 길이에서 진동 길이만큼 뺀 만큼 마른다. 앞 좌·우 도련단은 반품 길이로 뒤 도련 단은 품 길이로 재단은 폭 방향으로 한다. 좌·우 앞뒤기 마르는 방법은 <그림 4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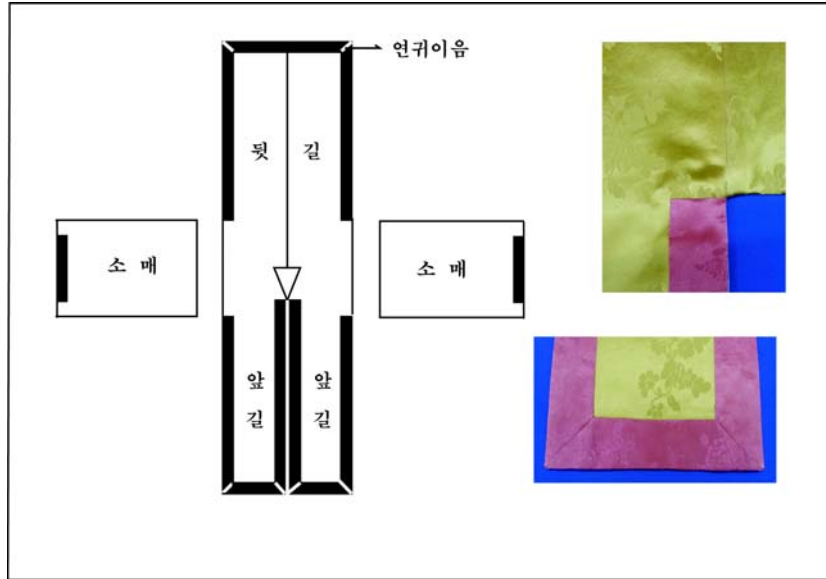
<그림 45> 배자 앞·뒤길 마르기

(4) 바느질

바느질 순서는 ① 등술, ② 단(앞단·옆단·수구·도련단), ③ 소매, ④ 겹감·안감 맞추기, ⑤ 배래, ⑥ 깃 달기, ⑦ 단추달기로 바느질 한다. 안감은 겹감과 동일하나 단을 바느질 하지 않는다.

① 앞·옆단, 앞·뒤 도련단, 수구단 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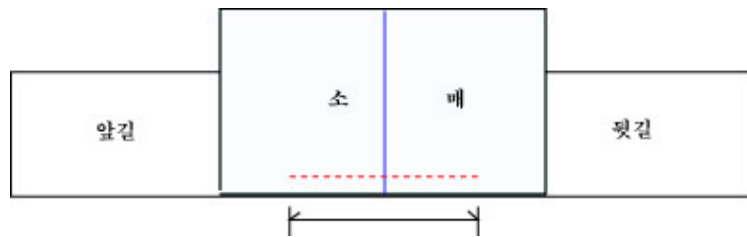
앞길 좌·우, 뒷길 좌·우단은 진동 점에 맞춰서 바느질 하고 단을 꺾어 다려서 길 겹쪽으로 넘겨서 공그르기 한다, 수구 단은 수구에서 수구까지만 바느질하여 단을 꺾어 다려서 겹쪽으로 넘겨 공그르기 한다. 앞·도련 단을 안쪽에서 바느질 하고 단을 꺾어 다려서 길 겹쪽으로 넘겨서 공그리기로 시침을 한다. 도련 단 양쪽 모서리는 연귀이음으로 처리 하는데 사규삼과 난삼하고 같은 방법으로 바느질 하여 공그리기로 바느질 한다. 각 부분 단의 바느질 방법은 <그림 46>과 같다.



<그림 46> 배자 단 바느질

② 겹감·안감 소매 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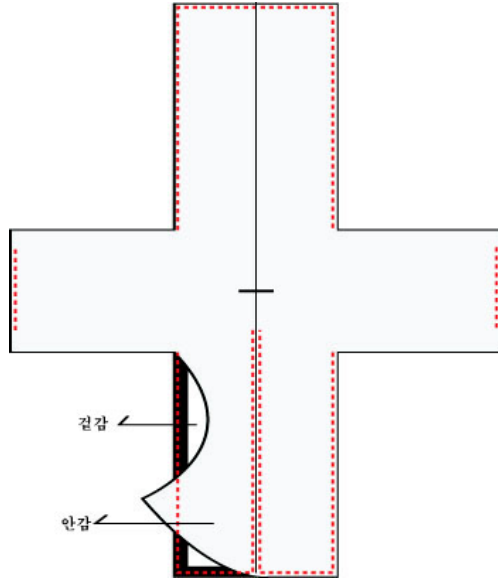
길의 어깨 중심과 소매의 중심을 맞춰 진동에서 진동까지 바느질 하고 슬기는 가름솔로 처리 한다. 겹감·안감소매 바느질 방법은 <그림 47>과 같다.



<그림 47> 배자 소매 바느질

③ 겹감·안감 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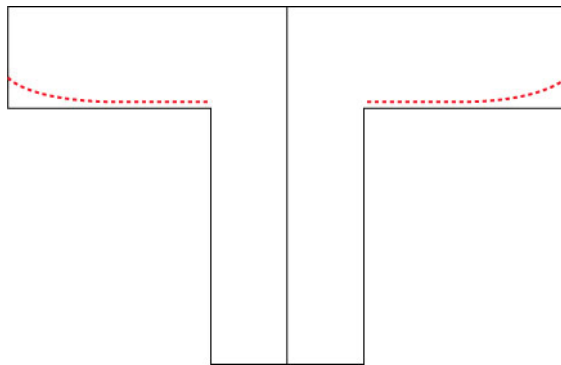
겹감 겹과 안감 겹을 맞춰 앞·옆·앞도련·뒤 도련을 바느질 한다. 겹감·안감 바느질 방법은 <그림 48>과 같다.



<그림 48> 배자 겉감·안감 바느질

④ 배래 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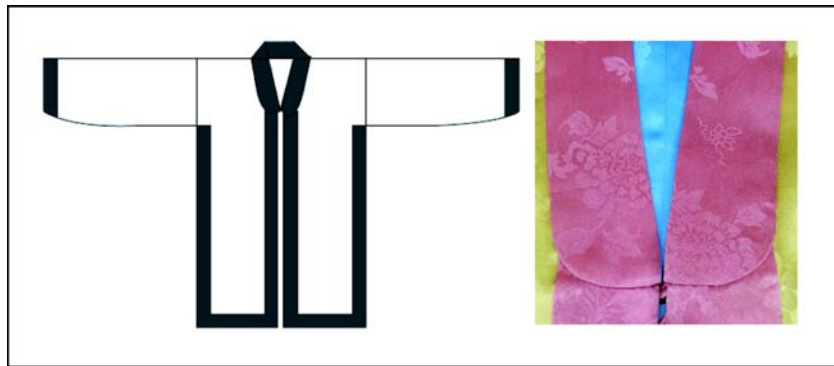
겉감·안감 바느질한 앞길은 뒤집어서 뒤 길에 넣은 후 배래를 네 겹으로 만든 후 배래 바느질을 한다. 배래 바느질 방법은 <그림 49>와 같다.



<그림 49> 배자 배래 바느질

⑤ 깃 달기

겉깃은 합입 깃이므로 등술기 중심에서 양쪽으로 맞춰 앞쪽에서 깃의 길이가 맞게 한 후 겉깃을 길에 시침을 하고 바느질 한다. 겉깃 바느질이 끝나면 안깃을 공그르기로 바느질 한다. 깃 바느질 하는 방법은 <그림 50>과 같다.



<그림 50> 배자 깃 달기

⑥ 단추 바느질

단추와 고리는 길감과 같은 천으로 매듭단추를 만들어 깃 아래에 바느질 한다. 단추 바느질 하는 방법은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배자 단추 달기

(5) 배자 완성작품



<그림 52> 배자 완성작품 (앞면)



<그림 53> 배자 완성작품 (뒤면)

2. 혼례복

신랑예복은 조선시대 혼례때 통상적으로 단령을 신랑예복으로 착용 하였다. 단령은 백관들의 상복으로 품계에 따라 옷 색깔과 흉배의 문양 등이 달랐다.

신부예복은 염의, 원삼, 활옷, 당의를 입었다. 이 옷들은 예가에서 입는 뜻있는 옷이라고 한다.⁶⁴⁾ 현의, 염의, 소의, 순의는 모두 같은 것인데, 속제로 원삼, 활옷을 입었다.⁶⁵⁾

1) 단령

단령은 남자의 혼례 복식이다.⁶⁶⁾ 단령은 원래 문무백관들의 공복(公服)과 상복(常服)으로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관복구조를 보면 공복으로 1품에서 정3품까지는 홍 단령을, 종3품에서 5·6품까지는 청을, 7품에서 9품까지는 록(綠)을 입었다. 상복으로는 1품에서 3품까지는 홍 단령을 입었는데 1품 문관은 공작(孔雀), 무관은 호표(虎豹) 흉배를 달고, 2품 문관은 운학(雲鶴)를, 3품 문관은 백학(白鶴), 무관은 태비(熊羆) 흉배를 달게 되어 있다.⁶⁷⁾

혼례시에 예복으로 관복인 남색, 녹색 또는 북청색의 단령을 착용하고 벼슬과 품계에 따라 그에 맞는 흉배를 달았다. 고종 때에 이르러서는 당상관과 똑같은 쌍학흉배를 달고, 1품이 착용하는 서대를 띠었으며 사모를 쓰고 목화를 신었다.⁶⁸⁾

(1) 단령의 제작치수

단령의 제작 방법은 난삼과 같으나 단령은 뒤길에 무를 달고 난삼은 뒤길에 무를 달지 않고, 단령은 단을 달지 않은 것도 다른 점이다.

64) 박경원(1976), 「圓衫에 관한 研究」, 이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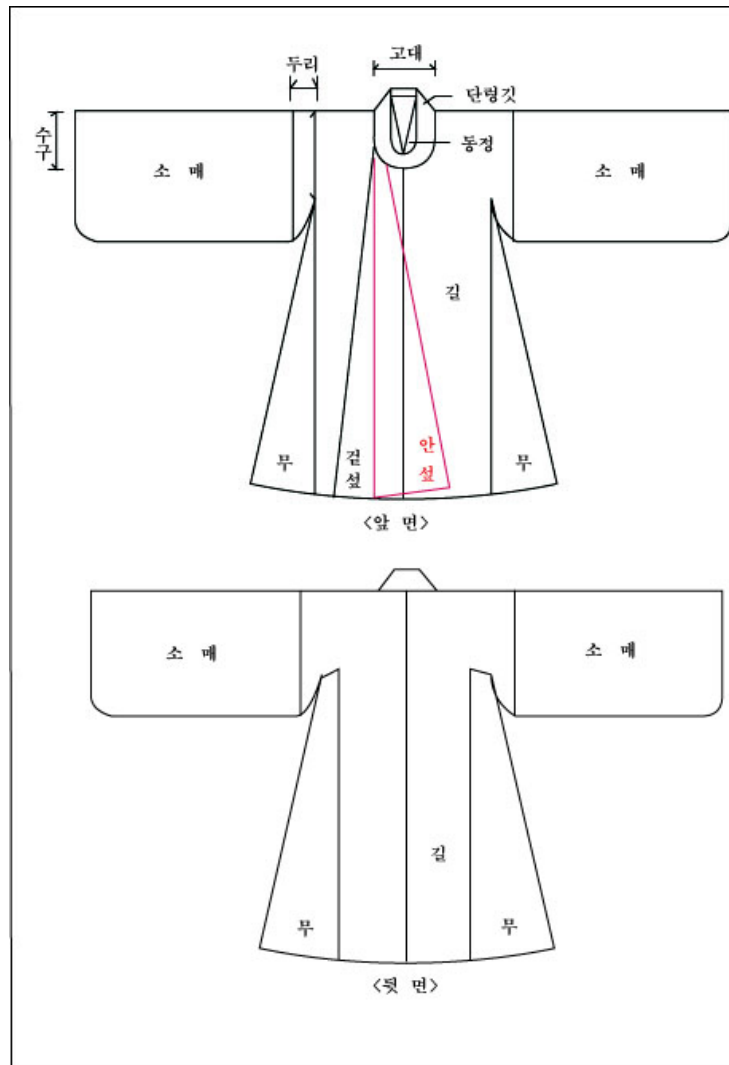
65) 박경자(1983), 『韓國服飾論考』, 서울 : 신구문화사, p. 219.

66) 李緯, 『四禮便覽』, 卷之二 昏 十一, ‘婿盛服團領’.

67) 유송옥(1987), 「儀軌圖의 繪畫史의 特徵과 그에 나타난 宮中 服飾」,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p. 137.

68) 전게서, p. 408.

예서에는 단령의 치수가 서술되지 않아서 『사례편람』이 서술된 동시대의 출토 복식인 남오성묘 출토복식 단령의 치수를 참고 하였다. 겹감은 녹색 운보문단, 안감은 적색 운보문단을 사용하였다. 옷감의 필요량은 길 3.2마, 소매 2.9마, 겹섷·안섷 1.6마가 필요하다. 무 1.2마가 필요하다. 단령 깃 1마가 필요하다. 단령의 명칭은 <그림 54>, 제작치수는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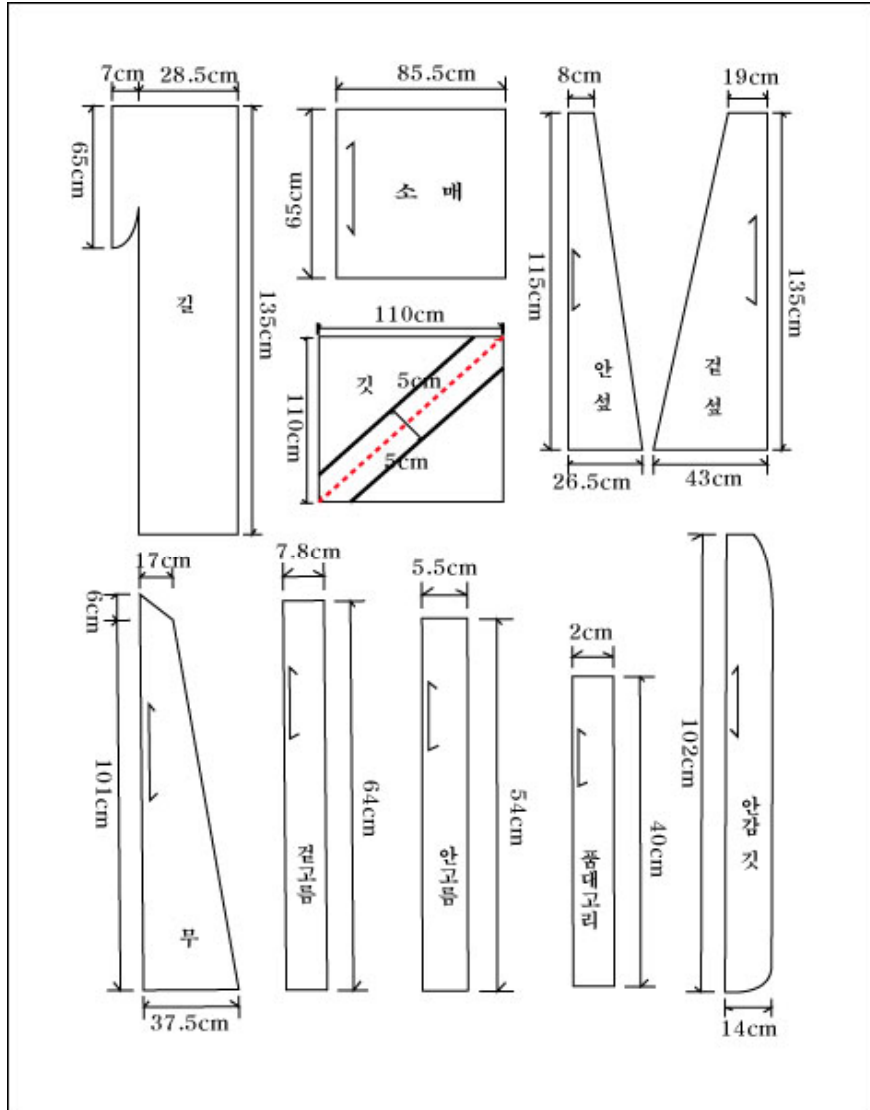
<그림 54> 단령 명칭

<표 6> 단령 제작치수

구 분		치 수	구 분		치 수	
길 이		135cm	화 장		121cm	
소 매 나 비		65cm	진 동		34cm	
수 구		27.7cm	고 대		26cm	
깃길이	겉깃	64cm	깃나비	겉깃	5cm	
	안깃	45cm		안깃	14cm	
동 정		14cm	폼		57cm	
췘	겉	상	고름	겉	길이	64cm
		하			나비	7.8cm
	안	상		안	길이	54cm
		하			나비	5.5cm
무	상	17cm	단나비		5cm	
	하	37.5cm				

(2)본뜨기

본뜨는 순서는 두리소매로 앞쪽 길 한쪽만 뜨고, 소매, 겉췘, 안췘, 무, 깃, 겉고름, 안고름, 폼대 고리, 안감 직령 깃을 뜬다. 본뜨기 방법은 <그림 55>와 같다.



<그림 55> 단령 본뜨기

(3) 마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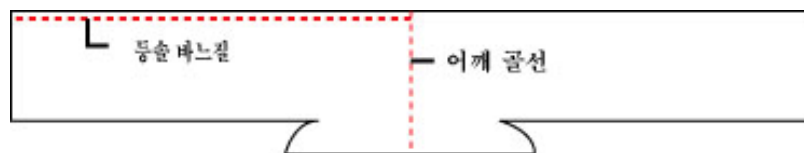
길 재단을 할 때는 완성치수로 본 뜬것에 각각 2cm의 시접과 도련 쪽에 제물 단 5cm를 추가해서 어깨술기 없이 식서 방향으로 두리소매로 마른다. 소매는 식서 방향으로 골로 2장을 마른다. 겹쇠 길이는 단령길이와 동일하게 마르

고 도련쪽에 제물 단 5cm를 추가한다. 안섷길이는 단령 길이보다 20cm 짧게 마르고 도련 쪽에 제물 단 5cm를 추가 한다. 무는 식서 방향으로 4장을 마르고 도련 쪽에 제물 단 5cm를 추가해서 마른다. 깃은 정바이어스로 142cm마르는데 길이가 짧을 때는 똑 같은 정바이어스로 잘라서 잇는다. 안감 직령 깃은 식서 방향으로 시접을 주고 112cm로 마른다. 겹고름, 안고름, 품대 고리는 식서 방향으로 마른다. 안감 마르기는 겹감과 동일하게 마르고 깃만 다르다.

(4) 바느질

① 등솔 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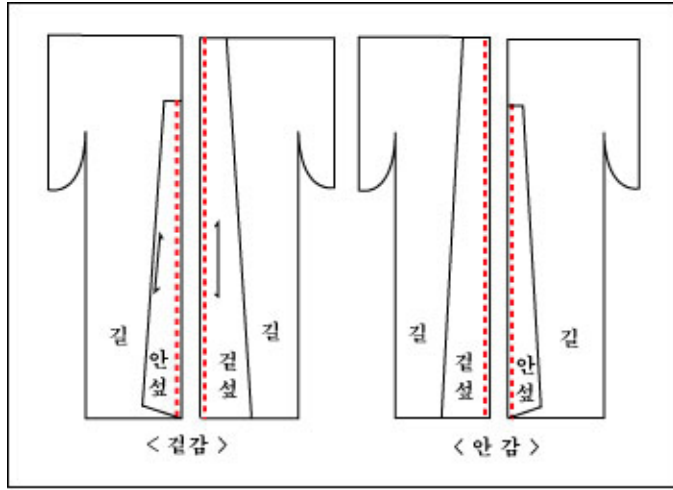
등솔은 고대에서 도련 쪽으로 바느질 하고 솔기는 오른쪽으로 꺾어 다린다. 등솔 바느질 방법은 <그림 56>과 같다.



<그림 56> 단령 등솔 바느질

② 겹섷 · 안섷 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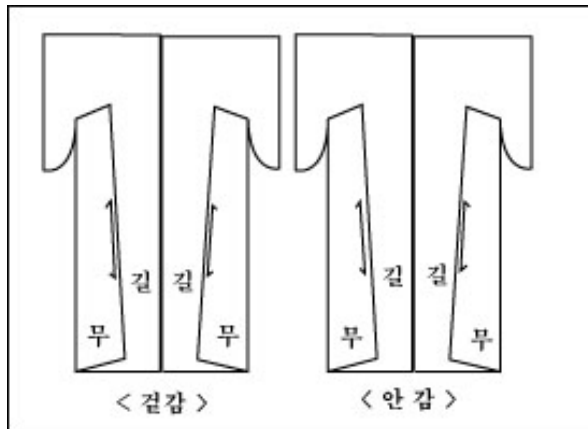
겹섷은 직선 쪽을 중심선에 바느질 하고 솔기는 섷 쪽으로 꺾어 다린다. 안섷은 사선을 중심선에 바느질 하고 솔기는 길 쪽으로 꺾어 다린다. 겹섷 · 안섷 바느질 방법은 <그림 57>과 같다.



<그림 57> 단령 걸췌·안췌 바느질

③ 무 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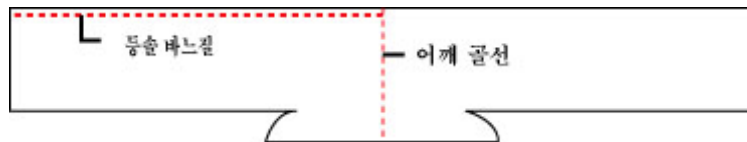
무의 곁과 길의 곁을 맞춰 무의 사선을 길에 바느질 하고 술기는 길 쪽으로 꺾어 다린다. 안감의 무도 동일하게 바느질 한다. 무 바느질 방법은 <그림 58>과 같다.



<그림 58> 단령 무 바느질

④ 소매 바느질

길 어깨 중심과 소매 중심을 맞추어 바느질 하고 솔기는 가름솔이다. 안감도 겉감과 동일하게 바느질 한다. 소매 바느질 방법은 <그림 5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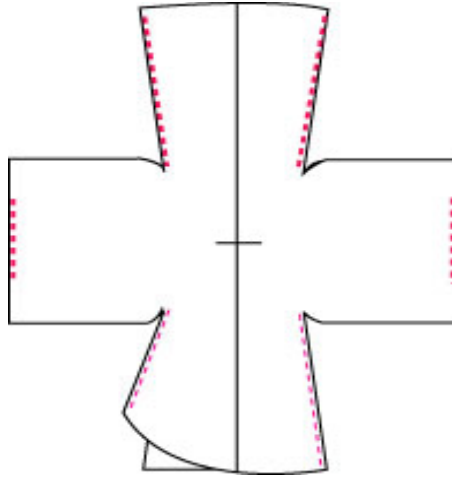
<그림 59> 단령 소매 바느질

⑤ 안감 깃 바느질

안감 깃은 직령 깃으로 첫 번째 방법은 안감에 깃을 달아서 겉감·안감을 맞추어 바느질 하는 것과 두 번째 방법은 겉감·안감을 맞추어 바느질 한 후 뒤집어서 직령 깃을 다는 방법이 있다. 본 제작은 안감에 깃을 먼저 달고 겉감·안감을 바느질 하였다. 깃을 바느질 하고 난후 깃 나비로 동정을 만들어 바느질 한다.

⑥ 겉감·안감 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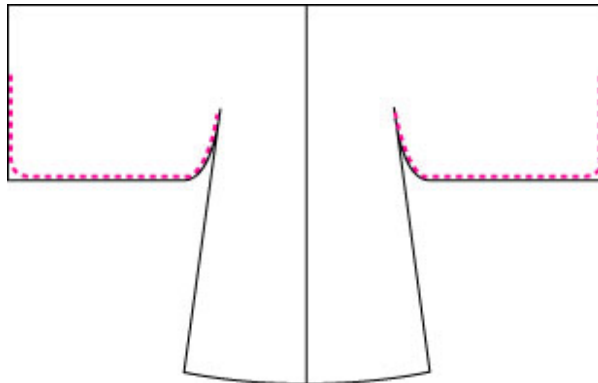
겉감의 겉과 안감의 겉을 맞추어 겉선타선·안선타선, 수구, 앞뒤 양쪽 무선을 바느질 한다. 무선을 바느질 할 때는 완성선 제물 단 전까지만 바느질 한다. 겉감·안감 바느질 방법은 <그림 60>과 같다.



<그림 60> 단령 곁감·안감 바느질

⑦ 배래 바느질

곁감과 안감을 맞추어 바느질한 것을 솔기를 곁감 쪽으로 꺾어 다린 후 앞길을 뒤집어 다려서 뒤길 속으로 넣은 후 배래가 네 겹이 되도록 한 후 바느질을 한다. 배래 바느질 방법은 <그림 61>과 같다.



<그림 61> 단령 배래 바느질

⑧ 도련단 바느질

겉감 도련단 5cm를 꺾어 다려서 안감 속으로 넣고 공그르기 하고, 안감 도련 단 5cm를 꺾어서 안쪽으로 넣어 공그르기로 바느질 한다. 도련 단 바느질 방법은 <그림 6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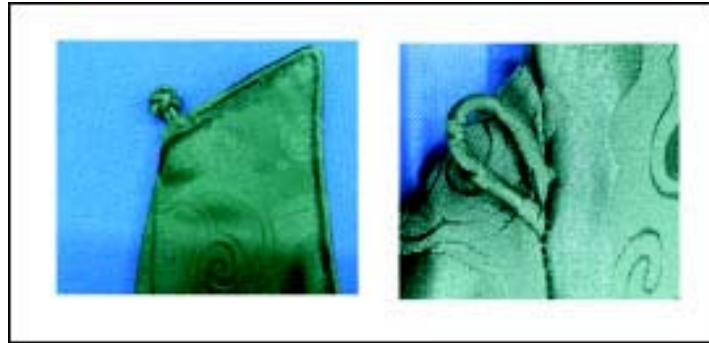
<그림 62> 단령 도련 단 바느질

⑨ 겹깃 만들기

단령 깃은 앞장에 설명한 난삼 깃 만드는 법과 바느질 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⑩ 단추 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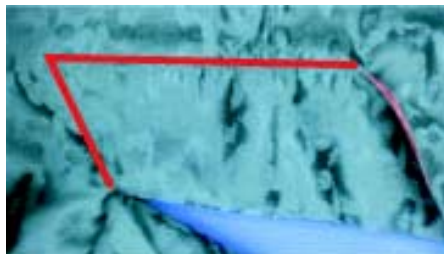
겉감과 같은 천으로 매듭단추를 만들어서 깃의 사선 끝에 단다. 고리는 고대 쪽에서 깃을 바느질 할 때 끼워서 바느질 한다. 단추와 고리 다는 방법은 <그림 63>과 같다.



<그림 63> 단령 단추 달기

⑪ 무 고정 하기

앞쪽 무와 뒤쪽 무의 삼각형 부분의 위쪽을 공그르기로 바느질 하고 옆쪽은 아래로 25cm까지 안쪽의 무가 밀려 나오지 않도록 공그르기 한다. 삼각형 위쪽부터 아래쪽 공그르기 한 부분을 상침으로 뒤 길에 고정 시킨다.⁶⁹⁾ 무 고정 방법은 <그림 64>와 같다.



<그림 64> 단령 무 고정

⑫ 안고름 달기

안고름 하나는 안깃 끝 쪽에 부착하고 나머지 하나는 왼쪽 진동아래에 바느질 한다. 안고름 바느질 방법은 <그림 65>와 같다.

69) 박선영(2001), 전계서, p.268.



<그림 65> 단령 안고름 달기

⑬ 품대 고리 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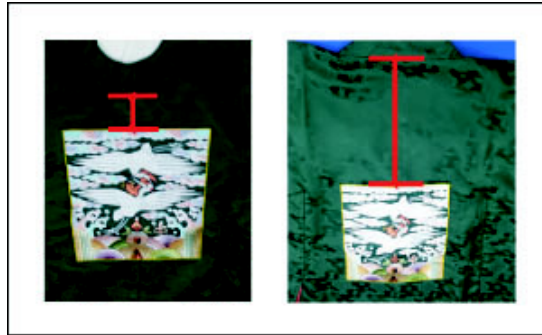
만들어 놓은 품대 고리를 반으로 접어서 진동아래에 바느질 하고 앞뒤 쪽을 모아서 양쪽 모서리에서 각각 징귀 준다. 품대 고리 다는 방법은 <그림 66>과 같다.



<그림 66> 단령 품대 고리 바느질

⑭ 흉배 달기

앞쪽 흉배는 깃 하단에서 6cm아래에 부착하고, 뒤쪽 흉배는 고대에서 26cm 아래에 부착 한다. 흉배 달기 방법은 <그림 67>과 같다.



<그림 67> 단령 흥배 달기

(5) 완성작품



<그림 68> 단령 완성작품 (앞면)



<그림 69> 단령 완성작품 (뒤면)

2) 활옷

활옷은 왕가의 예복으로 홍단(紅緞)에 수놓은 화려한 옷이다. 옷 모양을 같 으면서 도안내용에 있어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에 차이가 있다. 내 명부 활옷의 도안 내용은 목단(牧丹)·연(蓮)·수(水)·석(石)·불로초(不老 草)·봉(鳳)·접(蝶)·천도(天桃)·호리병·뇌문(雷紋)·소륜 화(小輪花) 등 다 양한 문양으로 구성 되었고, 등 양편에는 백복지원(百福之源) 이성지합(二姓之 合)이라고 수 놓여 있다⁷⁰⁾. 활옷에 대한 표현으로는 염의(褌衣), 활의(豁衣), 활의(割衣), 백화 포(百花袍), 홍 장삼(紅長衫)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활옷이 란 ‘화제(華制)의 옷’ 이라는 ‘화의(華衣)가 꽃, 문양을 표현하는 화(華)와 음 이 같은 ‘화의(花衣)’ 가 되고, 이 ‘화의’ 가 발음상 ‘활옷’ 이 되는 가운데 다시 한자화 하여 음이 같은 ‘활의’ ‘ 활의’ 가 된 것으로 추측 할 수 있 다.⁷¹⁾ 활옷이란 고려시대에는 왕비 복이었고, 조선조에서는 공주나 옹주의 대 례복이었다. 조선후기에는 혼례 때 이 옷이 서민들에게도 허용 되었다⁷²⁾. 조선 시대의 신부복 은 실제로는 염의, 활옷, 원삼, 당의 등이 함께 공존한 것 같 다.⁷³⁾

『사례편람』 에는 옛날에는 혼인에 염의를 쓰는데, 검은 옷에 붉은 깃을 들렸으니 취할 만한 의미가 있다. 지금의 풍속에는 붉은 장삼을 쓰니 심히 말 못할 일이다. 예의를 좋아하는 집에서는 염의를 쓰는 것이 당연하니 통속을 변화 시켜 옛것으로 돌아가는 조짐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되어 있어⁷⁴⁾ 혼례복 으로 현의, 염의를 입다가 『사례편람』 이 편찬된 시점을 전후로 장삼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염의를 사전에는 활옷이라고 되어 있으나 현재의 활옷은 장삼이 시속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0) 석주선(1971), 『韓國服飾史』, 서울 보진재, p. 122.

71) 유희경·김문자(1998),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 328.

72) 조효순(1988), 『韓國服飾風俗史研究』, 서울 일지사, pp. 295~296.

73) 조효순(2006), 『韓國服飾論』, 서울 수학사, p. 711.

74) 李緯, 『四禮便覽』, 卷之二, 婚 十六, ‘古者昏用衲衣, 玄衣而纁緣義有所取, 今俗用紅長衫甚無謂, 好禮之家當製用衲衣, 以爲變俗復古之漸矣.’.

활옷은 깃이 없고, 길에 동정만 달린 것으로 보는 기준에서 활옷과 원삼을 구분한다.⁷⁵⁾

활옷은 뒷길이 앞길보다 길며 등솔이 없고 통으로 되어 있다. 원삼을 비롯한 대부분 예복은 두리소매로 길에서 소매 쪽으로 7cm정도 추가해서 마름질 하나 활옷은 길에 소매를 바느질 하도록 되어 있고 깃은 따로 달지 않고 길 부분을 약간 안감 쪽으로 꺾어 넣고 뒷고대 부분만 조각으로 막는다⁷⁶⁾.

소매 끝에서부터 한삼, 홍색·남색·황색 단을 단다. 소매는 길에 소매를 바느질 하고 진동까지만 바느질 하고 진동 아래가 트여 있는 것이 특징 이다. 깃 동정 아래에 작은 고름을 달아 벌어지지 않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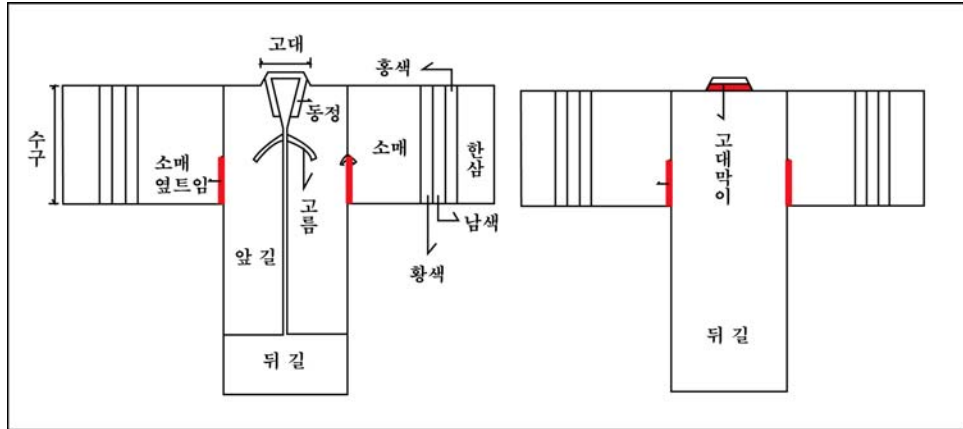
활옷은 원삼과 같이 겉과 안을 각각 홉으로 만들어 두벌을 합치는 것이 아니고 수를 놓은 뒤쪽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안감을 사용하여 겹으로 바느질 한다. 원삼의 경우 색동이 두 줄이지만 활옷은 세줄을 다는 것도 특징이다.

(1) 활옷의 제작 치수

예서에는 활옷에 대한 형태, 색깔 등에 대한 설명만 되어 있고 치수는 나와 있지 않고 창덕궁에 복은 공주 활옷 유물이 있으나 구성과 수를 놓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복은 공주 활옷의 치수를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치수는 『전통한복구성학』 의 치수를 참고 하였다. 옷감은 홍색에 수를 놓은 공단을 사용 하였고, 안감은 청색 공단을 사용 하였다. 옷감 필요량은 폭 55cm로 앞길 1.4마, 뒷길 1.6마, 소매 3마, 폭 110cm로 한삼 1.5마, 폭 55cm 색동 각각 1.5마 가 필요하다. 활옷의 명칭은 <그림 70>, 제작치수는 <표 7>와 같다.

75) 고복남(1986), 『韓國傳統服飾史研究』, 서울 : 일조각, p.255.

76) 손경자(1977), 「활옷의 형태와 무늬에 관한 연구」, 『복식』, 창간호, p.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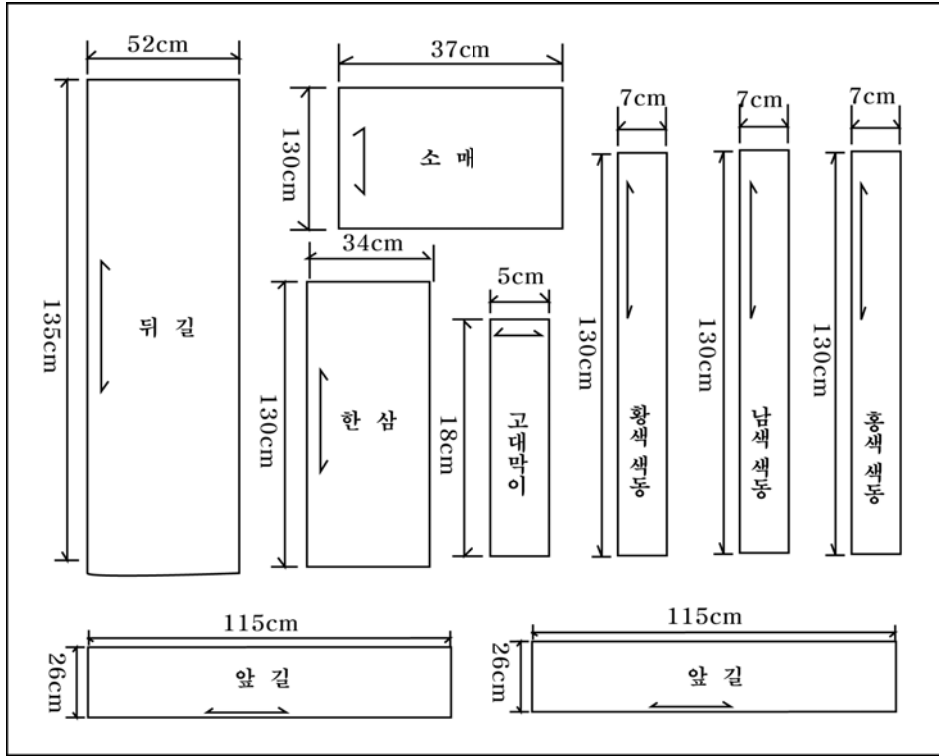
<그림 70> 활옷 명칭

<표 7> 활옷 제작치수

구 분		치 수	구 분		치 수
길이	앞	115cm	폭	앞	26cm
	뒤	135cm		뒤	52cm
화 장		118cm	진 동		27cm
색동 나비		7cm	한삼 나비		34cm
고 대		18cm	소매 길이		37cm
배래 나비		65cm	고 름	길이	35cm
깃 길이		23cm		나비	2.5cm

(2) 분뜨기

활옷은 앞길·뒤길·소매에 수를 놓은 것이므로 앞길·뒤길·소매를 각각 본을 떠야 한다. 황색·남색·홍색·한삼·고대막이 길이는 고대치수에 좌·우에 3cm씩 여분을 추가 한다. 고름의 본을 뜬다. 활옷의 분뜨는 방법은 <그림 71>과 같다.



<그림 71> 활옷 본뜨기

(3) 마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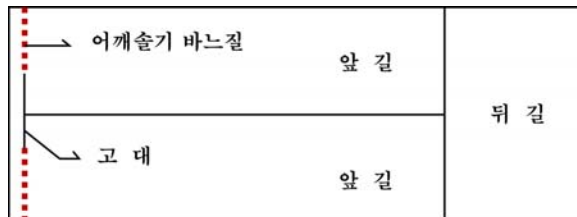
재단을 할 때는 완성치수로 본뜬것에 각각 1.5cm의 시접을 준다. 뒤길은 등솔기가 없고 어깨솔기가 있다. 시접을 1.5cm 주지만 어깨솔기 부분에는 2cm의 시접을 준다. 앞길 2장도 뒤 길과 같이 시접을 주고 어깨솔기에 2cm 시접을 준다. 소매·색동·한삼·고대막이도 각 부분에 시접을 1.5cm 준다. 안감에는 색동을 달지 않으므로 색동 3장의 나비만큼 추가해서 재단을 하고 한삼을 재단 한다. 고대 막이는 고대선보다 3cm 길게 마르고 안감도 같은 크기로 마른다.

(4) 바느질

바느질 순서는 앞길 2장을 뒤 길과 어깨에서 양쪽 고대 점 까지 바느질 한다. 색동 3장을 황색·남색·홍색을 하고 솔기는 가름솔로 한다. 붙인 색동에 한삼을 바느질 할고 솔기는 색동 쪽으로 꺾어 다린다. 소매에 색동과 한삼을 이은 것을 바느질 하고 솔기는 가름솔이다. 길의 어깨솔기와 소매의 중심을 맞추고 진동에서 진동까지 바느질 하고 솔기는 가름솔로 한다. 소매의 진동아래쪽이 턱여야 되므로 곁감·안감을 맞추어 바느질 할 때 진동 점에 배래까지 바느질을 해야 된다. 안감은 곁감과 동일하게 바느질 하나 안감에는 색동을 달지 않는다. 안감 소매에는 한삼만 바느질 하면 된다. 곁감과 안감을 맞추어 뒤집은 다음에 깃이 없으므로 고대 막이로 고대 부분을 막는다. 고대막이 곁은 곁감과 같은 천으로 하고 안은 안감과 같은 천으로 바느질 한다. 대대고리와 고름을 달고 완성 한다.

① 앞길·뒤길 바느질

앞길 양쪽과 뒤 길을 맞추고 고대점까지만 바느질 하고 시접은 뒤길 쪽으로 꺾어 다린다. 앞길·뒤길 바느질 방법은 <그림 7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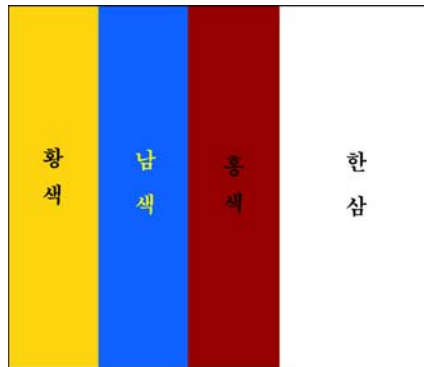


<그림 72> 활옷 앞길·뒤길 바느질

② 색동·한삼 바느질

색동 3장을 순서대로 바느질 하고 시접은 가름솔로 처리 하고 한삼은 홍색 색동과 바느질 한 후 솔기는 색동 쪽으로 꺾어 다림질 한다. 색동·한삼 바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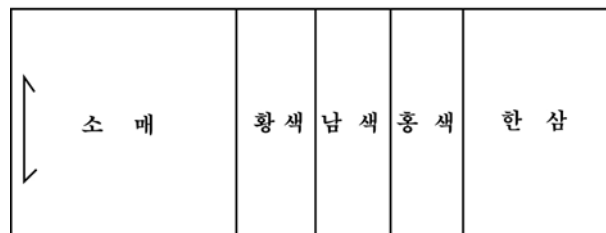
질 방법은 <그림 73>과 같다.



<그림 73> 활옷 색동·한삼 바느질

③ 소매 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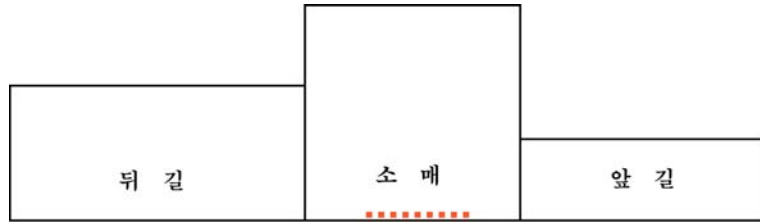
색동과 한삼을 바느질한 것을 소매에 바느질 한다. 이때 주의 할 점은 바느질한 색동의 중심과 소매 중심이 정확히 맞게 바느질해야 된다. 소매 바느질 방법은 <그림 74>와 같다.



<그림 74> 활옷 소매 바느질

④ 길·소매 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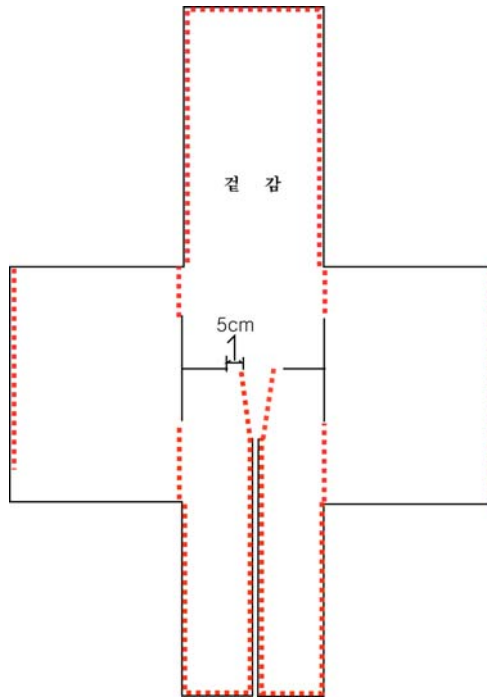
길의 어깨솔기와 소매의 중심을 맞춰 진동에서 진동까지만 바느질을 한다. 길·소매 바느질 방법은 <그림 75>와 같다.



<그림 75> 활옷 길·소매 바느질

⑤ 겹감·안감 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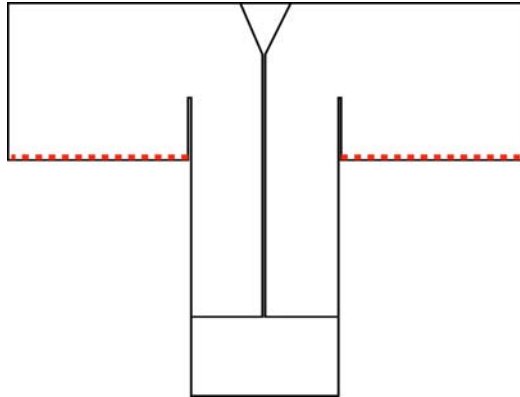
겹감과 안감 바느질은 앞 선을 바느질 할 때는 겹깃 길이 지점에 고름을 넣고 바느질 하여야 된다. 옆선·앞 양쪽 도련선·뒤 도련 선을 바느질 하고, 고대 점에서 옷의 중심 쪽으로 5cm 지점에서 앞길선과 이어서 바느질 한다. 진동점 아래부터 배래까지 턱여 있어야 되므로 진동 점에서 배래 끝까지 바느질 한다. 바느질이 다 끝나면 각 시접을 겹감 쪽으로 꺾어 다림질 한다. 겹감·안감 바느질 방법은 <그림 76>과 같다.



<그림 76> 활옷 겉감·안감 바느질

⑥ 배래 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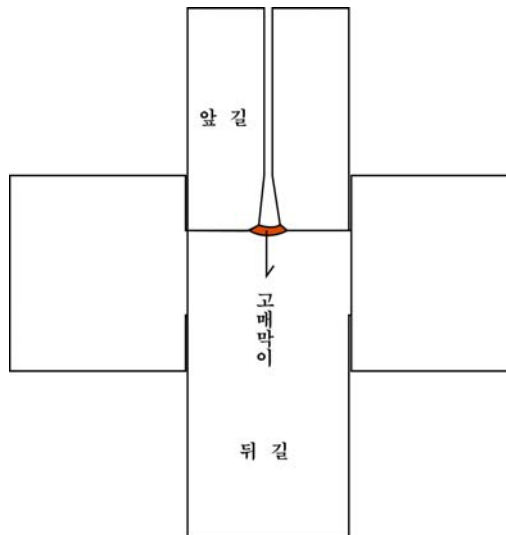
전체 바느질이 끝나면 앞길을 뒤집어 대려서 뒤길 쪽으로 넣은 후 배래를 네 겹으로 맞추고 바느질을 하고 고대로 뒤집는다. 배래 바느질 방법은 <그림 77>과 같다.



<그림 77> 활옷 배래 바느질

⑦ 고대 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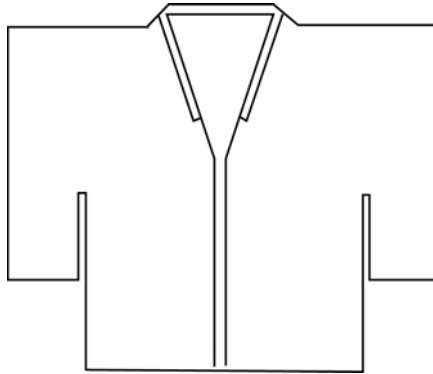
고대는 깃 천을 양쪽에 시접을 남기고 바느질 하고 시접은 깃 쪽으로 꺾는다. 고대 막이 고대 점 쪽 시접과 앞길 시접을 바느질 하고 시접은 뒤길 쪽으로 꺾는다. 고대 바느질 방법은 <그림 78>과 같다.



<그림 78> 활옷 고대 바느질

⑧ 동정 바느질

동정 나비는 2.5cm 만들고 겹깃 위치에서 4cm정도 올려서 좌·우 동정이 마주 보게 바느질 한다. 동정 바느질 하는 방법은 <그림 79>과 같다.



<그림 79> 활옷 동정 바느질

(5) 완성작품



<그림 80> 활옷 완성작품 (앞면)



<그림 81> 활옷 완성작품 (뒤면)

3. 상례복

상복(喪服)은 성복이라 하여 대림한 다음날이고, 사망한지 사일 째이다.⁷⁷⁾ 남자의 상복은 최의(衰衣), 최상(衰裳), 중의(中衣)등이며⁷⁸⁾, 최의는 상의를 말한다. 최의의 재료는 오복의 등급(等級)에 따라 다르며 마포(麻布)를 사용한다. 『비요』 참최(斬衰)에는 극추생포를 쓰고, 자최(齊衰)에는 다음 추생 포를 쓴다⁷⁹⁾ 하였다. 여자의 상복은 남자 상복에 준하여 대수장군이다. 최상은 여자의 경우 대수와 장군을 합한 것이며 오복에 따라 착용함은 남자복과 같다. 『비요』에 오복의 옷인 참최는 옷의 가장자리를 바느질 하지 않고, 재최 이하는 가장자리를 바느질 한다.⁸⁰⁾ 『가례』에 의(衣)의 솔기는 밖을 향하고 상(裳)의 솔기는 안을 향한다.⁸¹⁾ 하였다. 상례복의 치수는 『사례편람』에 서술되어 있는 치수를 참고 하였으므로 『사례편람』 나타난 지척인 1척 23cm로 치수를 풀이 하였다.

1) 최의

최의는 가장 곁에 입는 상의(上衣)로서, 최상과 함께 제복이라 한다.⁸²⁾

『사례편람』에 기록된 최의의 구성법은 다음과 같다. 사용된 척은 지척이며 1척은 23cm로 사용 되었다. 제작 방법은 의(衣)는 길이가 4척6촌(지척)인 베 두폭의 중심을 접으면 앞·뒤의 길이가 각 2자3치이다. 시접 1촌을 빼면 길이가 2척2촌이다. 양쪽 어깨에서 접은 곳에서 4촌 아래에서 앞·뒤 양옆을 맞추어 좌·우 폭을 각각 4촌을 잘라서 들어간 뒤에 자른 부분을 반으로 나누어 접어 각 양쪽 어깨 위에 덮어서 좌·우 적(適)이 되는 곳이 곧 벽령

77) 李緯, 『四禮便覽』, 卷之四 喪 一, ‘大斂之明日,死第四日’

78) 儀禮, 喪服傳.

79) 전계서, 『備要』 斬衰極麤生布,齊衰次麤生布’.

80) 전계서, ‘『備要』 五服衣裳斬衰不緝邊齊衰以下緝邊’

81) 상계서, ‘『家禮』 本註, 衣縫向外裳縫內向’.

82) 丁若鏞, 『雅言覺非』, 卷紙二, “喪服謂祭服 亦陋習也”

이다. 앞서 자른 것을 접어 밖으로 향하게 한 앞·뒤, 좌·우의 빈 부분의 사방 4촌이 활중(闊中)이 된다. 대공 이하는 벽령이 없고, 밖으로 접은 부분을 잘라 버린다. 뒤의 두 조각은 등솔기에 바느질 한다. 오복의 솔기는 모두 밖으로 향한다.⁸³⁾ 소매(袂)는 각기 길이 4척6촌 되는 베 두 폭의 중심을 접어 길의 좌·우에 바느질 하여 붙이고, 아래 가장자리를 바느질 하여 붙이고 시접 1촌을 빼면 각 2척2촌이 된다. 소매 끝 아래에 1척을 바느질 하여 모난 소매를 만들고 위에 1척2촌은 소매부리로 한다. 즉 그것이 소매부리다.⁸⁴⁾ 가령(加領)은 따로 1척6촌, 나비 8촌 되는 베를 사용하여 세로로 접어서 중심을 나눈다. 밑의 반쪽 양쪽 끝을 4촌씩 네 방향으로 잘라 쓰지 않고 중간에 8촌만을 남겨 후 활중에 붙이고 목 위로부터 좌·우로 나누어서 마주보게 접어서 앞으로 내려 뜨려서 전 활중(앞고대)에 덧붙인다.⁸⁵⁾ 겹(袷)은 안쪽에 대는 것으로 길이 1척6촌, 나비 1척4촌 되는 베 조각을 갈라서 세 조각으로 만들고 두 조각은 깃에 겹쳐 바느질해서 전 활중에 붙이고 한 조각은 가로로 접어서 두 겹으로 해서 후 활중에 붙여서 깃에 덧붙이면 세 겹 된다.⁸⁶⁾ 대하척(帶下尺)은 세로로 나비는 1척1촌의 베를 써서 위로 의(저고리)에 붙이고 가로 허리에 둘러서 허리의 둘레를 기준으로 삼고 시접 1촌을 빼면 높이는 1척이 된다.⁸⁷⁾ 임(裋)은 베 두 폭으로 각 길이 3척5촌으로 매 폭 마다 위 왼쪽 옆에서 1척, 아래쪽에서 6촌을 자르고, 아래쪽은 오른쪽 1척, 위쪽 6촌을 자르고 각 끝에서 사선으로 잘라서 넓은 쪽을 위쪽으로 향

83) 상계서, ‘用布二幅各長四尺六寸(指尺)中屈下垂前後各長二尺三寸除縫餘一寸則長二尺二寸兩肩中屈處四寸之下疊前後兩葉左右幅各裁八四寸訖分摺所裁者向外各加兩肩以上爲左右適,卽辟領也既摺所裁者向外其前後左右虛處各方四寸,卽闊中也大功以下無辟領其分摺向外者,卽前去之以後兩葉聯合背後縫,凡五服衣縫皆向外下並同’.

84) 상계서, ‘用布二幅各長四尺六寸中肩之縫聯於衣身之左右,又縫合其下際除縫飾一寸則亦各二尺二寸,又於袂端縫合其下一尺爲方袂留其上一尺二寸爲袂口,卽祛也’.

85) 상계서, ‘別用布長一尺六寸許闊八寸許,縱摺而中分之其下一半兩端各裁斷方四寸除去不用只留中間八寸,以加後之闊中,從項上分左右對摺向前垂下,以加於前闊中.’.

86) 상계서, ‘卽加於領裏者,用布一條長一尺六寸許廣一尺四寸,分作三條,二條疊縫於領以加於前闊中,一條橫摺爲二重,加於後闊中,並加領乃三中也.’.

87) 상계서, ‘用縱布廣一尺一寸,上屬於衣,橫續於腰以腰之闊狹爲度除縫餘一寸則高一尺’.

하게 겹쳐서 자른 베의 가장자리가 밖에 쪽으로 되어 있어 서로 덮어 내려가 제비꼬리 모양이 된다. 옷의 양쪽 겨드랑 밑에 겹쳐서 바느질 하는데 참쇠는 앞자락이 뒤 자락을 덮고, 재 쇠 이하는 뒤 자락이 앞자락을 덮게 한다.⁸⁸⁾ 쇠(衰)는 길이 6촌, 나비 4촌 되는 베를 써서 의의 앞쪽 가슴에 바느질하여 다는데 대공 이하는 붙이지 않는다.⁸⁹⁾ 부판(負版)은 사방 1척 8치 되는 베를 사용해서 깃 아래쪽에 바느질하여 등에 대어 늘어뜨리는데 대공 이하는 쓰지 않는다.⁹⁰⁾ 의계(衣繫)는 4개의 작은 띠다. 두개는 각기 안쪽과 겉쪽의 깃 가장자리에 바느질 하고 나머지 두개는 옷 밖의 오른쪽 겨드랑이 밑에 달고 하나는 안쪽 왼쪽 겨드랑이 밑에 달아서 서로 묶게 한다.⁹¹⁾

(1) 제작치수

제작 치수는 1척을 23cm로 계산하여 치수를 풀이 하였다. 옷감은 현재 시장에서 유통 되고 있는 극추 세포를 사용 하였다. 옷감의 필요량은 의신 4척6촌, 소매4척6촌 ,깃1척6치, 임 3척5촌, 부판 1척8촌으로 현재 포백척 50cm로 8자가 필요하다. 삼베 폭을 위주로 마르기를 해서 바느질을 하므로 본뜨기를 할 필요는 없다. 쇠의 명칭은 <그림 82>와 같다.

① 마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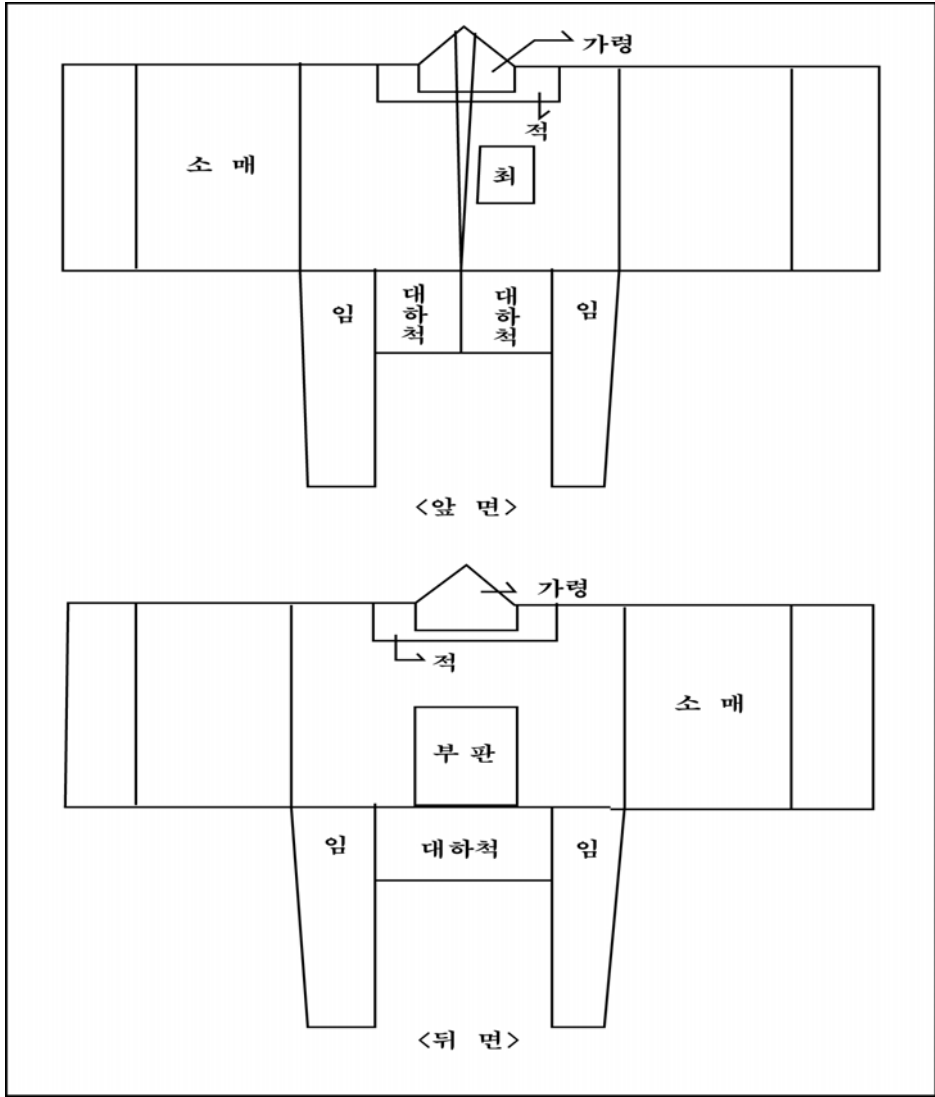
마르기 방법은 <그림 83>과 같다.

88) 상계서, ‘用布二幅各長三尺五寸,每幅上於左旁一尺下,裁入六寸下於右旁一尺之上亦裁入六寸便於盡,相望斜裁,以廣頭向上疊之,布邊在外交映垂之如燕尾狀,沓綴於衣兩旁腋下,斬衰前掩其後齊衰以下後掩其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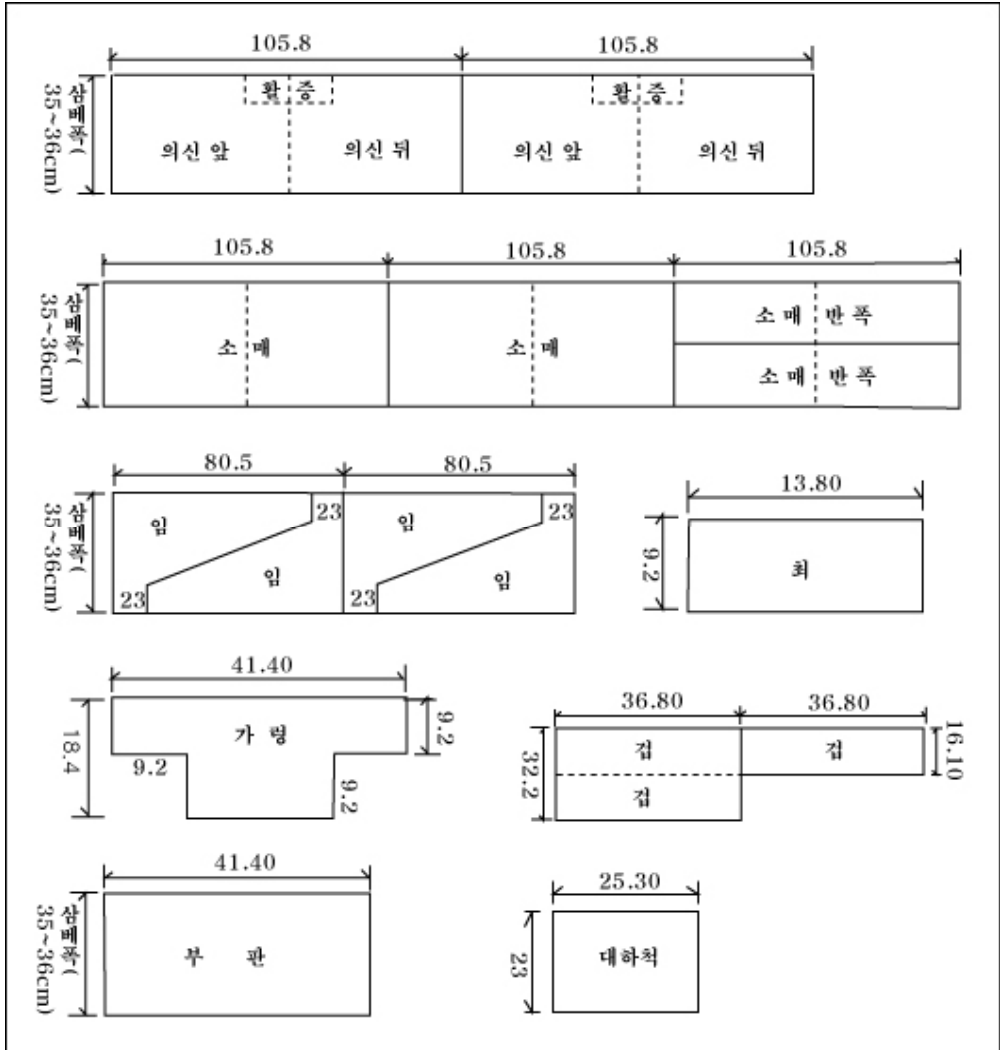
89) 상계서, 用布長六寸廣四寸,綴於衣外,衿之前當心處,大功以下不用’ .

90) 상계서, ‘用布方尺八寸綴於領下,當背垂之大功以下不用’ .

91) 상계서, ‘四,卽小帶,二各綴於內外衿旁一綴於衣外右腋下,一綴於衣內左腋下,使相掩結’ .



<그림 82> 최의 명칭



<그림 83> 최의 마르기

② 최의 바느질

길이 105.8cm 되는 배 두 폭을 각각 반으로 접으면 앞뒤가 된다. 등솔기는 위쪽에서 9.2cm내려와 바느질 하고 솔기는 밖으로 향한다.

③ 적(벽령) 바느질

적은 등솔기와 어깨가 마주치는 뒷 목점에서 뒤 길로 9.2cm, 앞길로 9.2cm씩 들어가 자른다. 자른 부분을 밖으로 접어서 양어깨 부분에 붙이면 좌·우적이 된다. 이때 벽령을 잘라서 양측으로 접어 넘기면 길이 18.4cm 폭 18.4cm의 직사각형이 생기는데 이것이 활중이 된다.

④가령(깃) 바느질

가령은 령을 덧대는 것을 말하는데 가령은 벽령을 각 부분에 밖으로 접어 넘겨서 만들어 지는 활중을 막기 위해서 별도의 베를 가령 부분에 부착하는 것이다. 길이 36.80cm, 폭 18.40의 베를 길이로 반을 접은 후에 골 선이 아닌 쪽의 하단 끝에서 각각 9.2cm씩 되는 정사각형을 잘라 낸 후 접은 선을 펴면 위쪽은 36.80cm, 아래쪽은 18.40cm가 된다. 이것을 36.80cm쪽의 반을 나눈 곳을 중심으로 각각 앞길로 접으면 아래가 18.40cm가 되고 옆길이가 9.20cm로 정사각형의 모양이 된다. 정사각형의 아래쪽은 뒤 활중을 막고 위 양쪽을 각각 앞으로 접어 앞 활중의 좌우를 막는다. 이는 최의의 깃과 고대와 좌우 앞 깃 길이를 결정하여 깃을 바느질 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⑤겹 바느질

겹은 가령 안에 대는 것으로 가령의 바느질 과정에 필요한 것이다. 깃과 활중을 잇기 위한 것으로 깃 안쪽에 대는 것이다. 길이 36.80cm, 폭 32cm의 베를 3등분으로 접어 두 장은 겹쳐서 앞에 붙이고 남은 한 장은 18.40cm가 되도록 반을 접어서 뒤쪽 활중에 붙여 바느질 하면 깃과 겹 합해져서 3겹이 된다. 소매는 길이 105.80cm의 베를 의신과 연결하고 진동에서 바느질 한후 솔기는 밖으로 향하게 바느질 한다. 삼베 한 폭만 소매에 붙이면 소매 길이가 짧으므로 삼베 한 폭을 이등분 하여 양쪽 소매에 반폭을 붙이면 소매 끝이 손을 가릴 정도가 된다. 솔기는 밖으로 향한다.

⑥ 입 바느질

입은 길이가 80.50cm의 베 두 폭을 각각 23cm씩 남기고 위아래에서 13.80cm를 잘라 들어가고 각 잘라 들어간 부분에서 아래위쪽으로 사선으로 자른다. 자른 입의 직선 부분을 마주보게 하여 넓은 쪽을 의에 바느질 한다. 옷 고름은 옷의 중심선에 저고리 고름을 다는 방법과 같이 바느질 한다.

⑦ 대하척 바느질

대하척은 길이 1척(23cm), 나비 1척 1촌(25.30cm)로 입을 바느질 할때 몸판 앞뒤로 같이 바느질 한다.

⑧ 부판 바느질

부판은 길이 41.40cm(적, 삼베 한 폭으로 깎아 아래 등에 단다.) 부판의 길이는 사용한 포백척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⑨ 최 바느질

최는 길이 13.80cm, 폭 9.20cm로 우측 가슴에 다는데 좌우양쪽에 달기도 하였다.

(2) 완성작품



<그림 84> 최의 완성작품 (전면)



<그림 85> 최의 완성작품 (뒤면)

2) 최상(衰裳)

참 최는 아래쪽을 바느질 하지 않고 재 최는 아래쪽을 바느질 하여 솔기는 안쪽으로 한다.

최상은 7폭으로 앞쪽 3폭은 양(陽)을 뜻하고 뒤쪽 4폭은 음(陰)을 뜻한다. 상(裳)은 하의로 재료는 최의와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최상의 제작은 베 7폭을 사용하는데 길이는 입는 사람에 따라 적당히 하고 앞은 3폭, 뒤는 4폭을 바느질 한다. 솔기 마다 좌우에 각 1촌씩 시접을 빼고 앞뒤는 바느질 하지 않는다. 폭마다 주름을 3개 잡는다. 주름을 잡을 때는 매 폭 위에 손가락으로 조금만 접어서 오른쪽을 향하게 접고, 다시 조금만 접어서 왼쪽을 향하게 접어 서로 끼워 실로 바느질 해두고, 가운데를 비워 두고 주름을 만들어 서로 끼워서 만든 주름이 밖에서 봐서 복건의 주름과는 같지 않다. 이렇게 세 번을 접고, 다시 나비 4~5촌 되는 베 한 조각을 세로로 접어서 앞뒤 7폭을 붙여 앞·뒤가 서로 마주보는 곳을 조금만 포개 끼워서 허리를 묶어 조금 여미는데 양 끝에는 작은 띠가 있다. 뒤쪽의 띠는 짧으며 앞쪽을 향해 있고, 앞쪽의 띠는 길고 뒤쪽을 향해 있다. 허리를 두 번 둘러서 앞에서 묶게 되어 있다.⁹²⁾

(1) 최상 제작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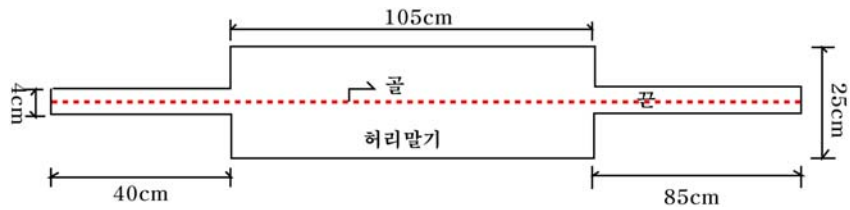
삼베는 16자가 필요하다. 삼베는 현재 시장에서 유통 되고 있는 극추 세포를 사용 하였다.

① 허리말기 만들기

허리말기 길이는 허리를 둘러서 여며 지는 정도이며 사람에 따라 길이는

92)상계서, ‘用布七幅長短隨宜縫合爲前三後四每縫除左右縫餘各一寸前後不連每幅作三輒其作輒則於每幅上頭,用指提起小許摺向右,又提起小許摺向左,兩相捧著用線綴住而空其中以爲輒相捧在外與幅巾輒不同,如是者三,又以布一條廣四五寸縱摺之綴前後七幅而前後相當處疊復小許而夾縫之約圍於腰,又交掩小許,兩端皆有小帶,後帶短向前,前帶長,向後使重圍而相結於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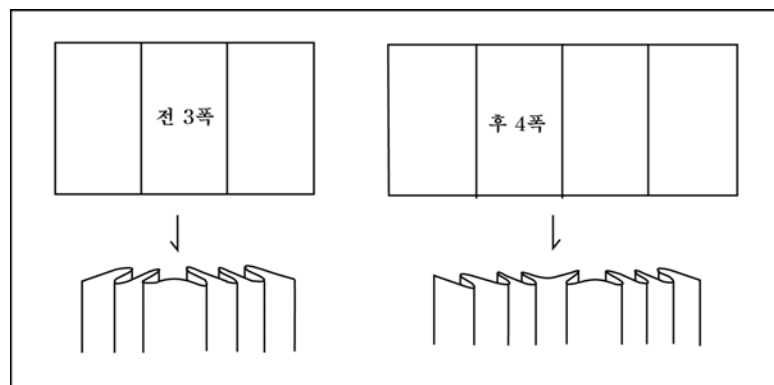
다르다. 나비는 25cm, 길이는 105cm로 재단하고 반을 접어 골로 만든다. 끈은 긴 끈과 짧은 끈 두 개를 만드는데 길이 85cm, 나비 4cm와 길이 40cm, 길이 40cm, 나비 4cm로 말기와 같이 연결하여 재단한다. 허리말기와 끈 만드는 방법은<그림 86>과 같다.



<그림 86> 최상 허리말기 및 끈 만들기

② 폭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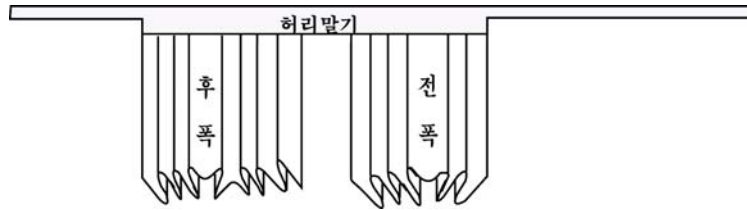
폭은 길이 75cm, 폭 36cm(삼베폭)로 전 3폭, 후 4폭으로 7폭을 재단하여 각각 폭을 잇고 주름을 잡아서 허리말기에 연결 한다. 폭 만드는 법은 <그림 87>과 같다.



<그림 87> 최상 폭 만들기

③ 허리말기 · 폭 잇기

허리말기에 폭을 바느질 하는데 말기 좌우 끝으로 각각 폭을 밀착 시킨 후 바느질 한다. 허리말기 · 폭 잇는 방법은 <그림 88>과 같다.



<그림 88> 최상 허리말기 · 폭 잇기

(2) 완성작품



<그림 89> 최상 완성작품 (앞면)



<그림 90> 최상 완성작품 (뒤면)

3) 대수장군

대수장군은 대수(大袖)와 장군(長裙)을 합한 것을 말하며 대수는 저고리, 장군은 치마를 말한다. 남자와 똑같이 극추생포를 쓴다. 길이는 입는 사람의 키와 같거나 혹은 5척으로도 한다(포백척)⁹³⁾. 참 최는 가장자리를 바느질하지 않고, 재 최는 가장자리를 바느질 한다⁹⁴⁾. 의·상(衣·裳)은 베의 종류와 만드는 법은 남자의 옷과 같은데 대하척 과 임 이 없고 치마는 베 6폭을 사선으로 잘라 12폭을 만드는데 심의의 상을 바느질과 같은 방법으로 하여 저고리에 붙인다.⁹⁵⁾

(1) 대수장군 제작 치수

『사례편람』 전도에는 부판의 치수 만 기술 되어 있어 부판의 치수는 지척 23cm를 사용 하여 치수를 풀이 하였다. 다른 치수는 『전통한복구성학』⁹⁶⁾의 치수를 참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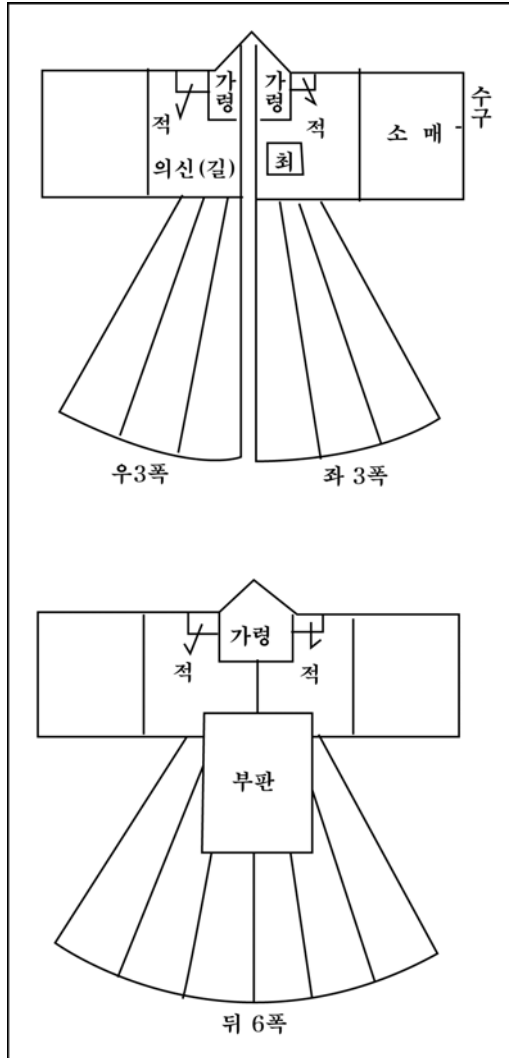
저고리는 어깨솔기 없이 골로 마르는데 폭 34cm로 길이 4자 6치가 필요하다. 소매는 골로 길이 6자9치가 필요하다. 앞쪽 좌상은 길이 19자7치가 필요하다. 가령은 1자8치가 필요하다. 적은 길이 7치가 필요하다. 부판은 1자3치가 필요하다. 대수장군 명칭은 <그림 91>, 제작치수는 <표 8>과 같다.

93) 상계서, ‘長與身齊或五尺(布帛尺)’ .

94) 상계서, ‘斬衰不緝邊,齊衰緝’ .

95) 상계서, ‘衣布升及裁制並同男子,但無帶下尺,又無袷裳用布六幅,交解爲十二幅,如深衣之裳連綴於衣’ .

96) 박선영(2001), 전계서, p.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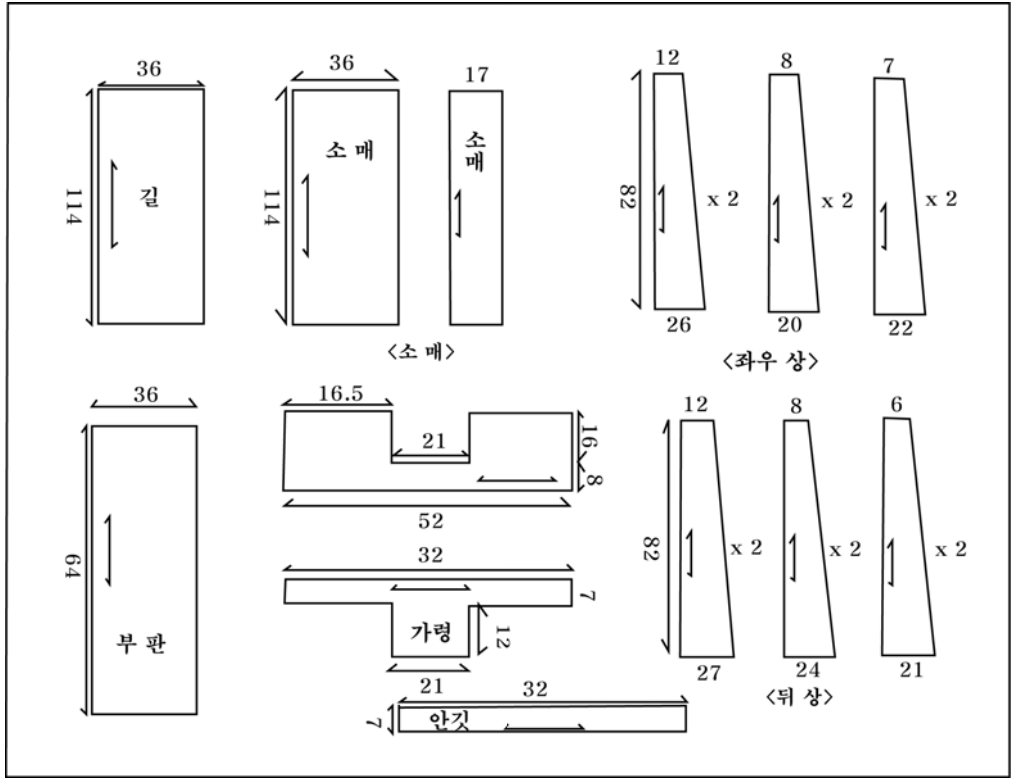
<그림 91> 대수장군 명칭

<표 8> 대수장군 제작치수

구분	치수	구분	치수
길이	56cm	폼	61cm
화장	75cm	고대	21cm
진동	31cm	수구	24cm
적	가로	가령	가로
	세로		세로
상길이	80cm	두리	5cm

(2) 본뜨기

길은 두리소매를 포함하여 한쪽 길만 본을 떠 좌·우, 앞·뒤를 같이 사용한다. 소매는 삼베 한쪽 크기로 선으로 재단 한다. 가령, 적, 쇠, 안깃의 본을 뜬다. 상은 좌·우 각각 3개 이므로 본은 하나씩만 뜬다. 뒤 상은 6개 인데 3개만 본을 뜬다. 본뜨기는 <그림 92>와 같다.



<그림 92> 대수장군 본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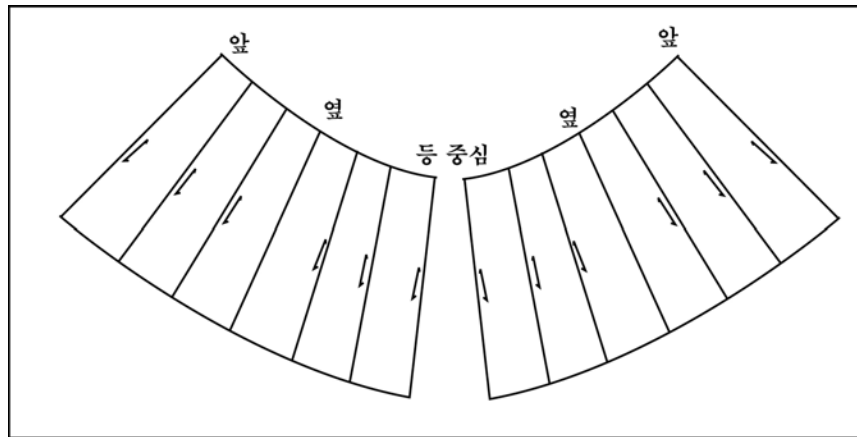
(3) 바느질하기

대수장군의 솔기는 겉쪽으로 오게 바느질 한다. 참쇠 바느질은 푸서의 울이 풀어지지 않도록 휘감치기 한다. 재 쇠 바느질의 푸서는 한번 꺾어 드문 홈질로 바느질 한다. 길·수구·도련·치마단도 같은 방법으로 바느질 한다. 소매 배래는 수구만 남기고 겉쪽에서 바느질 한다.

① 상 바느질

상 바느질은 심의의 상을 붙이는 법과 같다. 상 폭은 등솔 중심에서 폭의 직선을 맞추고 다음 폭은 중심에 붙을 폭 사선에 직선을 바느질, 또 앞에 폭 사선에 직선을 바느질 하고 사선에 앞쪽 폭 사선을 바느질, 직선에 다음

폭 사선 바느질, 직선에 다음 폭 사선을 바느질 한다. 다른 쪽도 같은 순서로 바느질 한다. 앞 중심과 뒤 중심에 직선이 와야 된다. 시접은 앞쪽은 옆선쪽으로 꺾고, 뒤쪽을 중심에서 좌·우 양쪽으로 꺾는다. 상 바느질 방법은 <그림 93>과 같다.



<그림 93> 대수장군 상 바느질

(4) 완성작품



<그림 94> 대수장군 완성작품 (앞면)



<그림 95> 대수장군 완성작품 (뒤면)

4. 제례복

『사례편람』에는 주인은 새벽마다 일어나 대문안에서 알현 하는데 주인은 심의를 입고 두 계단 사이에 놓아둔 향탁에서 향을 피우고 두 번 절한다 하였고⁹⁷⁾ 설날·동지·보름과 참례 때는 관직이 있는 사람은 공복, 진사는 난삼, 처사는 조삼을 입고 관직이 없는 사람은 삼(衫)이 없으면 심의를 입는다.⁹⁸⁾하였다. 『가례집의』에는 성복은 관직이 있는 사람은 공복, 관직이 없는 사람은 삼(衫)이고, 『가례』에는 도포이다. 『사례편람』에는 심의를 통용하여 입는다 하였다.⁹⁹⁾

1) 심의

심의는 고려시대 이후 상례(喪禮)·제례(祭禮)에 쓸 곳 사용되었다.¹⁰⁰⁾

심의의 색은 흰색이며 저고리와 치마가 허리에서 붙은 옷으로 검은색 선을 들었다. 4쪽으로 된 상의는 사계절을 의미하고 12쪽을 이어 붙인 치마는 12달을 의미한다.¹⁰¹⁾ 심의는 잿물에 삶은 흰 고운 베를 사용한다.

심의를 마르는 방법은 의(衣)는 길이가 5척 6촌의 베가 필요하고 앞쪽 길이는 2척 7촌, 뒤쪽 길이는 2척 4촌가 된다.¹⁰²⁾ 깃(領)은 길이 5척 6촌의 베를 사용하여 목 뒤 쪽부터 앞 쪽으로 돌려서 어깨 좌·우에 바느질 한다. 접어서 잘라낸 곳은 겹·안 각 2촌이다. 저고리는 앞뒤 4쪽이고 나비가 8척 8촌이 된다. 등슬기 시접은 각 1촌 이며 양쪽 깃을 접어서 자른 곳이 각 1촌이고 합해

97) 李緯, 『四禮便覽』, 卷紙八 祭 五, ‘主人晨謁於大門之內.....主人深衣焚香 於兩階間香卓’

98) 李緯, 『四禮便覽』, 卷之八 祭 五, ‘凡言盛服有冠者公服,進士襪衫,處士阜衫,無冠者通用衫,又不能具則深衣或涼衫’ .

99) 朴文鎬, 『家禮集議』, 卷之八 祭 朔參 二一一, ‘凡盛服. 有冠者公服, 無冠者衫, 『家禮』道袍, 『四禮便覽』通服深衣’ .

100) 김문숙(2002), 「製作 科程을 통해 본 朝鮮時代 出土深衣 研究」,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p. 12.

101) 유희경 외(2001), 『우리옷 이천년』, 서울 미술문화, p. 72.

102) 상계서, 冠 八, ‘若從裁法則(衣)用布長五尺一寸,前垂二尺七寸,後垂二尺四寸’ .

서 8척이 된다. 좌·우의 깃을 바느질한 나비가 2촌이 되므로 8척 4촌이 된다. 다시 양쪽 겨드랑이쪽 나머지 부분의 앞·뒤 각 3촌을 빼면 7척 2촌이 되어 아래에 치마를 달수 있게 된다. 치마를 달 때 시접 1촌을 빼면 저고리 길이는 2척 2촌이 되고, 왼쪽·오른쪽 각 폭마다 치마 3폭씩 맞당게 된다.¹⁰³⁾ 상(裳)의 길이는 입는 사람의 키 따르고 배 6폭을 쓴다. 의(衣)와 상(裳)을 연결하여 복사빠 까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배를 사선으로 잘라서 12폭을 만드는데 한쪽은 나비가 넓고 한쪽은 나비가 좁다. 넓은 쪽의 1척 4촌 이고, 좁은 쪽은 8촌이 된다. 좁은 쪽을 위로 하여 시접을 바느질 한다. 시접을 바느질 하는데 폭마다 시접을 1촌씩 빼면 위쪽은 폭마다 6촌이 되므로 합하면 나비가 7척 2촌 된다. 아래쪽은 각 폭마다 1척 2촌이 되고 합해서 14척 4촌이다. 위쪽은 저고리에 붙이는데 저고리의 등술기와 치마의 뒤 중심 술기가 맞아야 된다. 양쪽 시접은 폭의 자르지 않은 식서부분을 바느질 하고 양쪽 겨드랑 쪽의 앞·뒤쪽 폭의 시접은 사선 쪽을 맞추어서 바느질 한다.¹⁰⁴⁾ 두리소매(圓袂)는 길이가 4척 6촌인 배 두폭을 사용한다. 중심을 접어 저고리 좌·우에 붙여 아래쪽을 바느질하여 소매를 만든다. 시접 1촌을 빼면 길이가 2척 2촌이 되고 저고리의 길이와 같다. 소매 끝 아래쪽은 둥글게 하여 바느질 하고 소매부리 쪽에 1척 2촌은 바느질을 하지 않는다. 길에 붙인 각각의 시접 1촌을 빼고 소매부리 바느질 한곳을 각각 1촌을 빼고 저고리에 소매를 바느질 한곳에 각각 1치씩 시접을 빼면 길과 소매 폭의 양쪽 겨드랑이의 나머지 2촌을 합해서 2척 2촌이 된다. 소매의 길이는 뒤집어서 팔꿈치에 닿게 하는데 1폭을 댈 필요는 없지만 한 폭을 더 대어도 된다.¹⁰⁵⁾ 검은단(黑緣)은 수구·깃·치마의 앞쪽선 가장자

103)상계서, ‘用布長五尺八寸,自項後摺轉向前綴於肩上下左右至摺前羽處表裏各二寸,衣初裁時通前後四幅廣八尺八寸,除背後縫餘兩邊各一寸,皮兩衿摺前羽處各三寸則爲八尺,左右各綴領廣二寸則爲八尺四寸,又除兩腋之餘前後各三寸則爲七尺二寸以備下聯於裳聯裳時除縫餘一寸則衣長爲二尺二寸每幅屬裳三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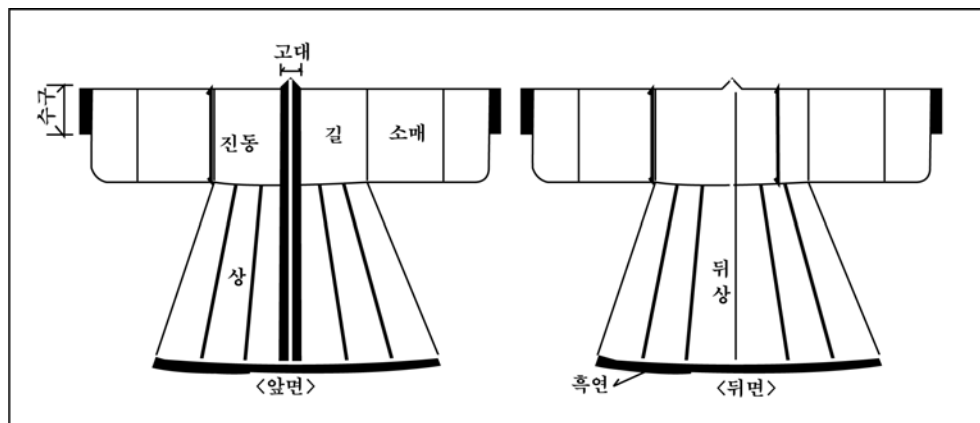
104)상계서, ‘用布六幅其長隨體之長短垂衣身以皮蹠爲準交解爲十二幅,一頭廣一頭狹廣頭爲一尺四寸,狹頭爲八寸以狹頭向上而聯其縫每幅兩邊,各除縫餘一寸則上頭每幅六寸,通廣七尺二寸,下齊每幅一尺二寸,通廣十四尺四寸上屬於衣背後衣裳之縫相當直下,此縫兩幅皆用不裁開處(俗稱直緒)合縫,其當兩腋之縫前後幅皆用裁開處(屬稱解緒)合縫’.

105)상계서, ‘用布二幅各長四尺六寸,中屈之屬於衣之左右而縫合其下,爲袂,除縫餘一寸爲長二尺二寸如衣之長

리와 아랫단을 검은 선으로 바느질 한다. 안과 밖을 각 1촌 5분으로 깃·치마 앞의 트인 곳과 아래 단은 베 위에 겹쳐서 바느질 하고 소매부리는 베 밖으로 따로 단을 대서 바느질 한다.¹⁰⁶⁾

(1) 제작치수

치수는 『사례편람』에 서술되어 있는 치수를 참고 하였고, 지척은 『사례편람』에 나와 있는 23cm로 계산 하였다. 시중에는 유백색 광폭의 밭이 고운 대마를 시중에서 구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옷감은 길과 연 모두 명주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옷감의 필요량은 110cm폭으로 길1.2마, 소매 1.2마, 상 4.1마로 6.5마가 필요하다. 검은색 연은 3.6마가 필요하다. 심의 명칭은 <그림 96>, 제작치수는 <표 9>와 같다.



<그림 96> 심의 명칭

袖端下旁，圓殺如規縫之遶，袂口一尺二寸屬衣處各除縫餘一寸，袂口綴緣處，又各除一寸而衣屬袖處亦除縫餘各一寸則袖廣通衣兩腋餘二寸，爲二尺二寸，袂之長短，反詘之皮肘不以一幅爲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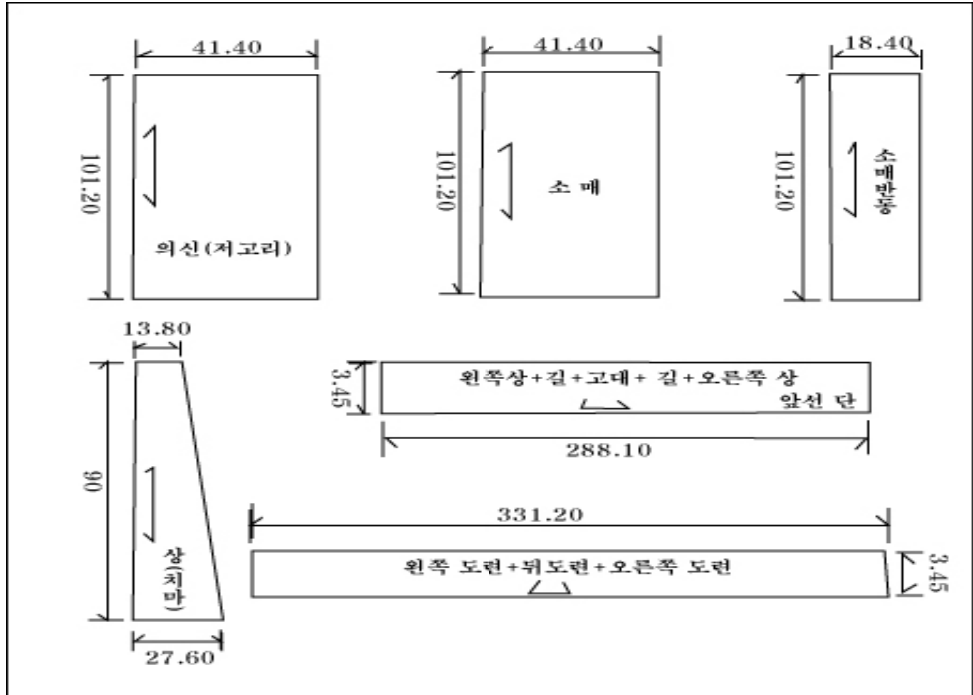
106)상계서, ‘用黑繒餘領皮袂口,裳旁下際,裏各一寸半,領皮裳旁下際則疊縫在布上袂口則布外別綴此緣之廣’.

<표 9> 심의 제작치수

구 분		치 수		구 분		치 수	
		지척	cm			지척	cm
의 길이		2척2촌	50.6	고대		3촌	6.9
소매	나비	2척2촌	50.6	쪽나비	위	6촌	13.8
	진동	2척2촌	50.6		아래	1척2촌(1척4촌)	27.6
	부리	1척2촌	27.6				
	길이	제한없음	101				
상	앞좌	3쪽		상	길이	제한없음	75
	앞우	3쪽			허리둘레	7척2촌	165.6
	뒤	6쪽			단둘레	1장4척4촌	331.2
깃 나비		1.5촌	3.45	검은선	수구	1.5촌	3.45
폼		1폭	41.4		의·상	1.5촌	3.45
고름	길이	60		소매반동나비	8촌		18.4
	나비	4					

(2) 본뜨기

길은 한쪽 길만 본을 떠 좌·우·앞·뒤를 같이 사용 한다. 소매는 수구 밑에 곡선 부분만 본을 뜬다. 상은 위아래가 다른 것만 본을 뜬다. 검은색 연은 왼쪽 앞선·고대·오른쪽 앞 선을 한번에 뜬다. 왼쪽 아래 도련·오른쪽·뒤 도련를 이은 나비의 길이로 본을 뜬다. 본뜨기 방법은 <그림 97>과 같다.



<그림 97> 심의 본뜨기

(3) 마르기

재단을 할 때는 완성치수로 본뜬것에 각각 1cm의 시접을 주고 어깨 솔기 없이 식서 방향으로 앞·뒤 길을 마른다. 식서 방향으로 소매 2장과 소매반동 2장을 마른다. 수구 단, 앞선단·길 앞선·고대선을 다 더하여 한번에 재단을 한다. 도련 단은 왼쪽 도련 단·뒤 도련 단·오른쪽 도련 단을 다 더하여 한번에 길게 재단을 한다. 고름을 재단한다.

(4) 바느질하기

바느질 순서는 등솔 바느질, 소매 바느질을 하고 상 폭 바느질, 수구 단 바느질, 의와 상 바느질, 앞선·도련선 바느질, 수구선 바느질, 고름 바느질을 한다.

① 등솔 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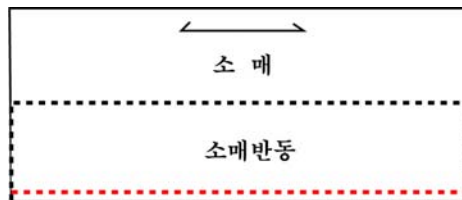
고대에서 아래쪽으로 바느질을 하고 솔기는 옛 통솔로 오른쪽으로 꺾어 다림질 한다. 등솔 바느질 방법은 <그림 98>과 같다.



<그림 98> 심의 등솔 바느질

② 소매폭 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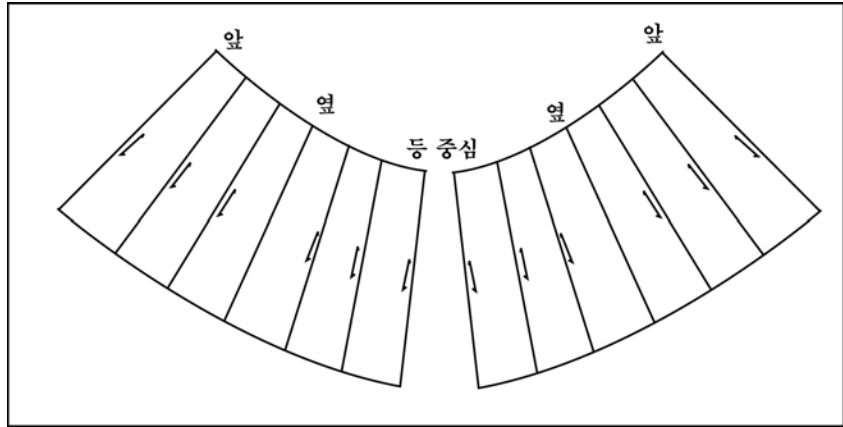
소매에 소매 반동을 배래 끝에서 배래까지 바느질 하고 솔기는 가름솔로 다림질 한다. 소매 바느질 방법은 <그림 99>와 같다.



<그림 99> 심의 소매폭 바느질

③ 상 폭 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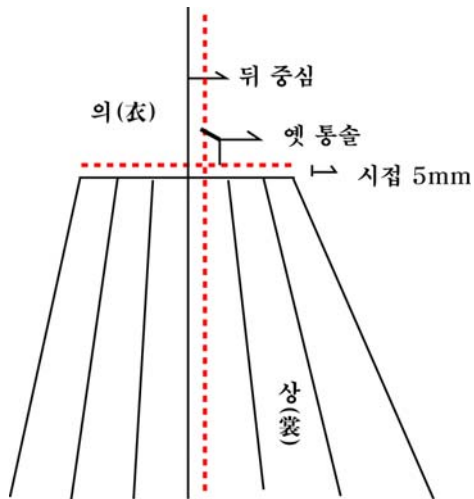
상 폭은 등솔 중심에서 폭의 직선을 맞추고 다음 폭은 중심에 붙을 폭 사선에 직선을 바느질, 또 앞에 폭 사선에 직선을 바느질 하고 사선에 앞쪽 폭 사선을 바느질, 직선에 다음 폭 사선 바느질, 직선에 다음 폭 사선을 바느질 한다. 다른 쪽도 같은 순서로 바느질 한다. 앞 중심과 뒤 중심에 직선이 와야 된다. 솔기는 옛 통솔로 바느질 한다. 상 폭 바느질 방법은 <그림 100>과 같다.



<그림 100> 심의 상 폭 바느질

④ 의와 상 바느질

의와 상을 바느질 하여 시접을 정리 하고 옛 통솔로 바느질 하고 시접은 위쪽으로 꺾어 다룬다. 의와 상 바느질 방법은 <그림 101>과 같다.



<그림 101> 심의 의와 상 잇기

⑤ 연 바느질

검은 선의 나비는 3cm, 연은 겹으로 만들어 연 사이에 심의의 바탕천을 사이에 넣고 공그르기로 바느질 한다. 왼쪽 상의 앞선·길 앞선·고대·오른쪽 길 앞선·상 앞 선에 연을 바느질 한다. 왼쪽 도련선·뒤 도련선·오른쪽 도련 선까지 공그르기로 바느질 한다.

⑥ 고름 바느질

의와 상이 만나는 허리 높이에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 되도록 바느질 한다. 고름을 달 때는 한번 바느질 한 후 넘겨서 접은 다음 다시 바느질 하여 눌러 단다.

(5) 완성작품



<그림 102> 심의 완성작품 (전면)



<그림 103> 심의 대대



<그림 104> 심의 완성작품 (뒤면)

2) 도포

우리나라에서는 조관(朝官) 사서(士庶)가 상시(常時) 표의(表衣)로 도포(道袍)를 착용 하였는데, 길복(吉服)으로 청색(靑色), 상복(常服)으로 백색(白色)을 착용 하였다. 귀천(貴賤)의 차별로 천자(賤者)에게는 도포를 불허(不許)하였고, 유생은 도포 착용으로써 공복(公服)이 되고 제복(制服)이 될수 있었다.¹⁰⁷⁾ 도포는 제례복이다.

『星湖僿說』에도 “제사(祭祀)에 도포를 쓰는 것은 그 뜻이 당연하다.”라 했듯이 제사복으로 입혀졌으며, 가제(家祭)에서나 향교에서 제복으로 착용 되었다.¹⁰⁸⁾

조선 후기의 보편화된 도포의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깨선에서 골로 연결된 좌·우, 앞·뒤 길, 옆선에 연결된 삼각 무, 뒷자락 안으로 들어간 좌·우(二葉菜·展衫) 뒷무, 둥그런 깃과 고름, 걸섶·안섶·어깨바대(汗版) 등으로 이루어지고 소매는 넓은 광수(廣袖)형 이다.

도포의 특징인 전삼과 뒷자락에 대하여 알아보면, 뒷자락은 이중으로 구분 되는데 흔히 알고 있는 전삼은 뒷자락이 아니라 이엽삼(二葉衫)을 말하며, 한판(汗版)에 붙였다고 하였다. 도포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끝은 깃의 모양, 소매의 형태, 섶의 형태, 무의 구조, 어깨바대의 유·무, 트임의 유·무의 겹침과 벌어진 등이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 하였다.¹⁰⁹⁾

(1) 제작치수

예서에는 도포의 제작 치수가 서술되어 있지 않아 『안동김씨 분묘 발굴조사 보고서』 110)의 도포 치수를 참고 하였고, 보고서에 서술 되어 있지 않은 치수는 『전통한복구성학』 111)의 치수를 참고 하였다. 옷감은 장지문 갑사를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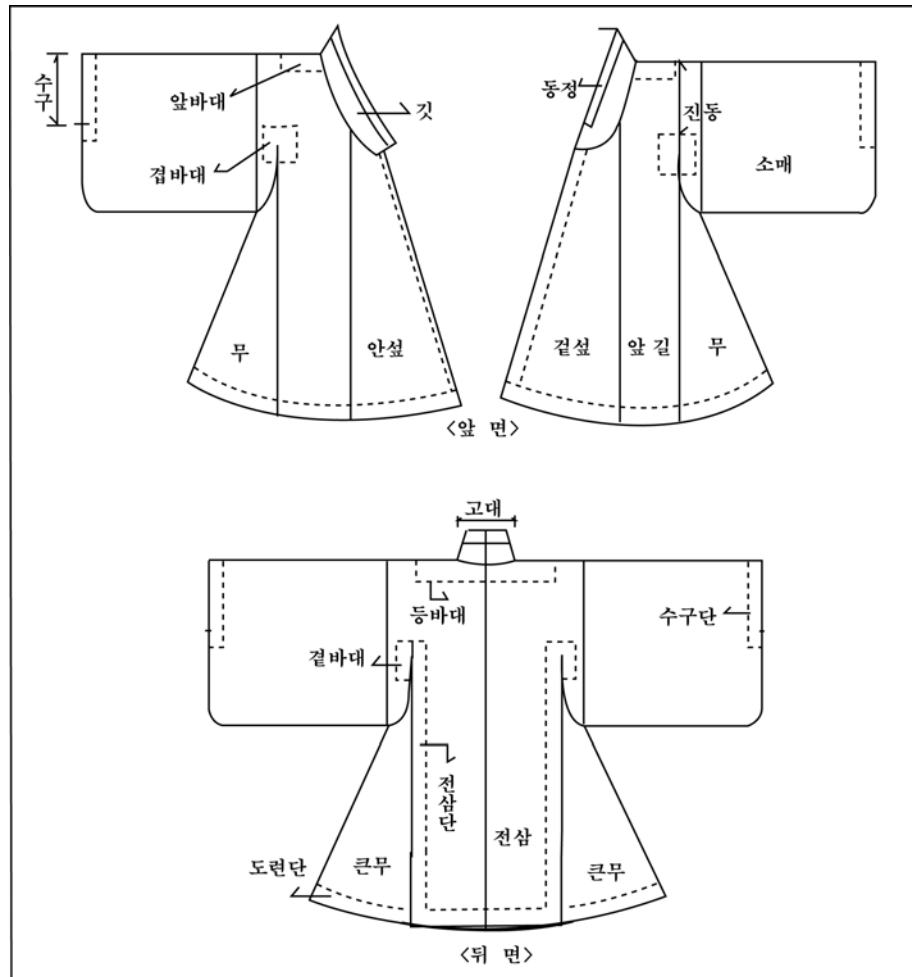
107) 석주선(1971), 전계서, p. 107.

108) 조근희(1986), 「道袍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 14

109) 김정애(2010), 「조선시대 도포(道袍)의 형태변화(形態變化)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 24.

110) 온양민속박물관(1989), 『안동김씨분묘발굴조사보고서』, 충남 : 온양민속박물관, p. 193.

하였다. 옷감 필요량은 110cm폭으로 길·소매 4.5마, 결섷·안섷 1.5마, 무 2.5마, 큰 무 1.5마, 등바대, 고름, 겹 바대는 1마가 필요하며, 총 11마가 필요하다. 도포 명칭은 <그림 105>, 제작치수는 <표 10>과 같다.



<그림 105> 도포 명칭

111) 박선영(2001), 전계서, p 142.

<표 10> 도포 제작치수

구 분		치 수	구 분		치 수
길 이		124cm	화 장		97cm
품		50cm	고 대		20cm
소 매 길 이		64cm	배 래 나 비		56cm
두 리 소 매		8cm	수 구		24cm
진 동		33cm	단 나 비		5.5cm
큰무접침나비		4cm	수구안단나비		5cm
겉 섹	상	16cm	안섹	상	11cm
	하	46cm		하	40cm
	직선길이	111cm		직선길이	84cm
	사선길이	94cm		사선길이	95.5cm
등바대	가로	52cm	겉바대	가로	13cm
	세로	40cm		세로	14cm
겉 깃 길이		37cm	깃 나 비		8.5cm
무	앞	40cm	안고름	길	50cm
	뒤	40cm		나비	3cm
긴고름	길이	100cm	짧은고름	길이	90cm
	나비	8cm		나비	8cm
큰무	상	35cm	앞바대	가로	7cm
	하	30cm		세로	52cm

(2) 본뜨기

길은 두리소매로 하고 도련쪽에 제단 5.5cm을 추가해서 한쪽 길만 본을 떠 좌·우, 앞·뒤를 사용한다. 소매는 수구쪽 아래 곡선 부분만 본을 뜬다. 겉·안섹, 무·무의 길이에 제단 5.5cm를 더하고 안섹·무 직선 부분에 5.5cm 제단을 추가해서 본을 뜬다. 등바대, 바대는 같이 연결하여 뜬다. 겉바대, 수구단, 깃은 직령깃, 겉고름, 안고름의 본을 뜬다.

(3) 마르기

제단을 할때는 완성치수 본뜬 것에 각각 1cm의 시점을 주고 어깨솔기 없이 식서 방향으로 앞·뒤 길은 도련 쪽에 제물 단 5.5cm 추가해서 마른다. 소매

는 식서방향으로 골로 2장, 겹섞은 도련 쪽에 제물 단 5.5cm를 더하고 섯상 부분에 여분을 15cm정도 추가해서 마른다. 안섞은 도련 쪽과 직선 쪽에 각각 제물단 5.5cm를 추가해서 재단한다. 무는 도련 부분에 제물단 5.5cm를 추가해서 마른다. 큰 무는 도련 쪽·직선 쪽에 각각 제물 단 5.5cm를 더하여 재단한다. 등바대는 앞 바대와 연결하여 재단을 한다. 곁바대는 사각형으로 말라서 세로 해서 중심 부분에 단 나비만큼 자른다. 곁고름, 안고름, 수구 단을 마른다. 깃은 직령 깃으로 재단을 한다. 옷이 훌이므로 곁 깃 천으로 골로 해서 마른다.

(4) 바느질하기

바느질 순서는 등솔바느질, 곁섯·안섯·무·등바대에 큰 무 바느질·소매·단·배래·도련 단·깃·고름·동정 순으로 바느질 한다.

① 등솔 바느질

등솔은 고대에서 도련 쪽으로 바느질 하여 솔기를 오른쪽으로 꺾어 다린다.

② 섯 바느질

곁섯 사선분분에 덧단을 바느질하고 섯상 부분은 진동 짐에서 진동 쪽으로 3.5cm정도 들어가고 아래 부분은 중심선에서 2.5cm 들어가서 바느질 하고 솔기는 섯 쪽으로 꺾어 다린다. 안섯은 직선쪽 제물 단을 안쪽으로 꺾어 다려서 공그르기를 하고 솔기는 길 쪽으로 꺾어 다린다.

③ 무 바느질

길 쪽에 사선을 바느질 하고 솔기는 길 쪽으로 꺾어 다린다. 무의 직선 부분에 다른 무의 직선을 바느질 하고 솔기는 뒤쪽으로 꺾어 다린다. 큰 무의 직선 쪽의 제물 단을 안쪽으로 꺾어 다려서 공그르기를 한다. 앞에 무의 사

선에 큰 무의 직선부분을 바느질 하고 솔기는 큰 무쪽으로 꺾어 다룬다.

④ 등바대 바느질

등바대와 큰 무를 연결하고 앞바대를 공그르기로 바느질 한다. 큰 무와 큰 무 사이의 간격은 5~6cm정도 벌어진다. 등바대와 큰 무 연결 방법은 <그림 10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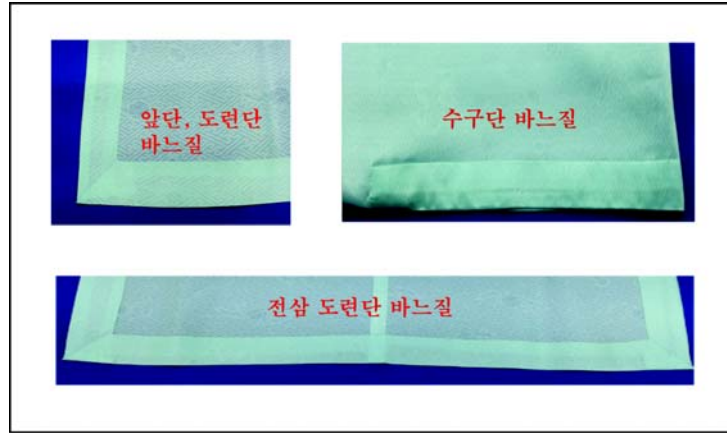
<그림 106> 도포 큰 무 · 등바대 연결

⑤ 소매 바느질

길 어깨중심과 소매 중심을 맞춰 바느질 하고 솔기는 가름솔로 처리 한다.

⑥ 단 바느질

안섷 · 겉섷 · 작은 무 · 큰 무 · 전삼 단의 제물 단을 안쪽으로 꺾어 넘기고 공그르기로 바느질 한다. 수구는 덧단을 겉쪽에서 바느질 하여 안쪽으로 꺾어 넘겨서 공그르기로 바느질 한다. 앞단 · 도련 단 바느질 방법은 <그림 107>과 같다.



<그림 107> 도포 단 바느질

⑦ 배래 바느질

수구 부분에서 부터 바느질 하여 진동 쪽으로 바느질 하는데 수구 아래와 진동 아래쪽은 모서리를 곡선으로 바느질해야 된다.

⑧ 깃·고름·동정달기

고름은 안고름과 겉고름을 달고 동정은 깃 끝에서 깃 나비만큼 띄우고 동정을 단다.

(5) 완성작품



<그림 108> 도포 완성작품 (앞면)



<그림 109> 도포 완성작품 (뒤면)

IV. 결 론

본 연구는 사대부가의 전통 사례가 보편화 되었던 조선시대로 제한하여 통과례(通過儀禮)인 사례복식(四禮服飾)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바를 각 과정별로 고찰 정리 한 후 출토된 의례 복식을 참고로 하여 관·혼·상·제례 복식에서 대표적인 복식만을 제작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는 복식과 관련된 이론적 분석보다는 현재 제작되고 있는 사례복식과 예서에 나와 있는 복식자료에 따라 실물을 제작하여 비교 분석하고 어떤 형태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복식을 올바르게 재현함으로써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 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예서에 제시된 복식을 고증 제작하여 본뜨기, 재단 및 바느질법, 구성법을 살펴봄으로써, 제작 당시의 의복구성 형태(색감과 질감) 등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서(禮書)는 인간이 지켜야 할 예법에 관하여 쓴 책으로 예법은 사회집단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기본으로 관·혼·상·제례(冠·婚·喪·祭禮)는 일상에서 중요한 의례이다. 사례(四禮)는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생애의 단계들을 거쳐 가는 의례인데 예법은 시대적인 현실과 상황에 의해 바뀌지 않을 수 없었고, 시대에 따라 수록된 내용도 시대가 요구하는 형태로 변해왔다. 본 고증제작 및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복식은 『사례편람(四禮便覽)』과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에 나타나는 의례복식을 위주로 하였고, 『사례편람』에 제시 되지 않은 복식에 대한 치수, 바느질 방법, 마름질 방법 등은 동시대 유물들을 참고 하였다.

둘째, 관례복은 초출복 사규삼, 재가복 단령, 삼가복인 난삼이 있으며, 여자의 계례복인 배자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관례식(성년식)에서 관례

복식을 남자는 앵삼을 착용하고, 여자는 당의 혹은 원삼을 착용하고 있으며
에서에 나와 있는 난삼과 배자를 착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관례복식에서는 초출복인 사규삼과 삼가복인 난삼, 여자의 계례복인 배자를
재현 제작 하였다.

사규삼은 『사례편람』에 제시된 것과 같이 제작을 하였고 화문단을 이
용하여 맞깃에 소매는 둥글며 앞깃을 열어놓고 뒤를 트고, 검은단으로 깃과
소매끝, 옷 가장자리에 단을 돌렸다.

난삼은 『사례편람』에 옷의 형태와 색깔에 대해서만 서술이 되어 있어서
『沙溪全書』卷之二十四의 난삼 전도를 참고 하여 제작 하였고 옥색 갑사를
이용하여 도련단이 넓고 뒷길에는 무를 달지 않고 사선으로 재단을 하고, 앞
길 무 옆선에는 검은색 단을 달았다.

배자는 『 사례편람』에 형태·재질·색깔에 대해서만 서술이 되어 있어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제작 하였고 길이는 치마와 같고, 겹으로 만들며 깃은 일반
둥근 깃으로 함인 것이다. 소매는 저고리의 배래와 같고 옆선과 앞·뒷길 좌우,
도련, 수구에 단을 대었고 진동 아래는 트였고 깃이 끝나는 지점에 매듭 단추
를 달았다.

셋째, 혼례복은 남자의 혼례 복식 단령, 여자의 혼례 복식에는 염의, 원삼,
당의, 활옷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남자 예복인 단령과 여자 예복인 활옷
을 제작 하였다.

단령은 『사례편람』에 자세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지 않아 동시대 출토유
물인 남오성묘 출토복식 단령을 참고 하여 녹색 운문단으로 제작하였고 쌍
학 흥배를 달았다.

활옷은 홍색 공단에 수를 놓은 것을 사용 하였고 뒤길이 앞길보다 길며
겹으로 만들고 등술이 없고 진동아래는 트여 있다. 깃은 따로 달지 않고 소
매에는 세가지 색깔의 색동과 한삼이 달린다.

넷째, 상례복은 남자 최의, 최상, 중의를 있으며, 여자는 대수장군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 예복인 최의, 최상과 여자 예복인 대수장군을 제작 하였다.

최의, 최상, 대수장군은 『사례편람』에 제시된 것과 같이 마포를 사용하여 제작 하였으며 치수는 지척으로 23cm를 적용하여 제작 하였다.

다섯째, 제례복은 남자 공복, 난삼, 조삼, 심의, 양삼이 있으며 여자는 대수장군, 배자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의 예복인 심의, 도포를 제작 하였으며 여자의 예복은 앞에서 제작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였다.

심의는 『사례편람』에 제시된 것과 같이 흰색 명주를 이용하여 의와 상이 허리에서 붙었고 앞선, 수구, 도련단에 검은 선을 둘렀다. 의는 4폭을 상은 12폭으로 제작 하였다.

도포는 『사례편람』에 서술되어 있는 것이 없어 안동김씨묘에서 출토된 도포를 참고하여 장지문 갑사를 이용하여 귀자락 안으로 들어간 뒤무, 직령깃, 어깨·등바대, 소매는 두리소매로 제작 하였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서의 이론만이 아니라 출토 복식을 고증하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앞으로 또 다른 복식이 출토될 경우 본 연구에 사용된 출토 의복의 고증제작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교 분석 및 수정 보완이 이루어질 때 이어지는 출토 복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출토 복식 재현 과정을 통해 치수와 옷감, 색상, 필요한 옷감의 양, 명칭, 본뜨기, 마르기, 바느질하기까지를 상세히 다루었다. 이러한 복식 재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감각을 뒷받침하는 예복이 제작에 심여를 기울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것은 우리 전통의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통로가 될 것이다.

셋째, 관혼상제 절차와 내용에 있어 사례전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예서에 제시된 것 사례복식 중 10가지를 선택하였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례복식들이 재현하는 연구가
후속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복남(1986), 『韓國傳統服飾史研究』, 서울 : 일조각
- 김문숙(2002), 「제작 과정을 통해 본 조선시대 출토복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애(2010), 「조선시대 도포(道袍)의 형태변화(形態變化)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광희(1999), 「한국의 상례복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
- 문영표(2003), 「四禮便覽과 居家雜服攷의 복식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옥표 외(1999). 역주해제. 『朝鮮時代 冠婚喪祭(Ⅰ)』 冠禮-婚禮篇, 서울 : 정아 인쇄사.
- 朴宣映(2001), 『傳統韓服構成學』, 서울 : 수학사.
- 朴錦珠(1988), 「四禮便覽의 婚禮服과 現行 婚禮服과의 比較研究」,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경원(1976), 「圓衫에 관한 研究」, 이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자(1983), 『韓國服飾論考』, 서울 : 신구문화사.
- 백영자(1993), 『한국의 복식』, 서울 도서출판 경춘사.
- 석주선(1971), 『韓國服飾史』, 서울 보진재.
- 손경자(1977), 「활옷의 형태와 무늬에 관한 연구」, 『복식』, 창간호.
- 이은주(1997). 『전통 의례복식의 변천』. 한국복식2천년 : 국립민속박물관 역음, 서울 : 도서출판 신유.
- 이윤정(2002), 「冠禮의 節次 服飾에 內在된 의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옥(1990), 「冠禮服飾研究」, 영남대학교 출판부

- 유송옥(1998), 『한국복식사』, 서울 : 수학사.
- 유송옥(1987), 「儀軌圖의 繪畫史的 特徵과 그에 나타난 宮中 服飾」,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유희경 · 김문자(1998),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유희경 외(2001), 『우리옷 이천년』, 서울 미술문화.
- 온양민속박물관(1989), 『안동김씨분묘발굴조사보고서』, 충남 : 온양민속박물관.
- 조근희(1986), 「道袍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효순(1995), 『한국인의 옷』, 서울 : 밀알.
- 조효순(1988), 『韓國服飾風俗史研究』, 서울 .
- 조효순(2006), 『韓國服飾論』, 서울 수학사.
- 홍나영(1999), 「혼례복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사례복(관·혼·상·제)의 전망과 발전」, 한복사랑운동협의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권』, 서울 : 삼화인쇄주식회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권』, 서울 : 삼화인쇄주식회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권』, 서울 : 삼화인쇄주식회사

<고문헌>

- 李緯, 『四禮便覽』 .
- 朱熹, 『朱子家禮』 .
- 李漢, 『星湖僿說』 .
- 李珥, 『擊蒙要訣』 .
- 朴珪壽, 『居家雜服攷』 .
- 辛應純, 『省齋集』 .

丁若鏞，『與猶堂全書』。

黃泌秀，『增補四禮便覽』。

洪淳泌，『懸吐註解 四禮便覽』。

『禮記』。

『經國大典』。

『世宗實錄』。

『國朝五禮儀』。

ABSTRACT

Reproduce of Costumes for Ceremony from Yeseo - Based on Saryepyenlam-

Kim, Kee-sang
Dep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research looks into Salyeboksik (traditional costume for four different events), a rite of passage, in Joseon Dynasty. To research Boksik (Costume), records of literatures are carefully considered step by step, since the historical research ba. Although many references of Salyeboksik exist, they don't usually includes specific production method or size, and they have records with characters and illustrations, only. With these resources, this research is willing to try to produce Boksik, from Yeseo (book of respect), as its original size.

Therefore, this research look for types and form of Boksik by extracting data, related to Boksik and recorded in Yeseo (Book of respect), and also materialize the value of data by producing original sized Boksik.

The preceded researches until now are mostly analysis research, such as Boksikgwan(the concept of costume), shape and composition of Boksik, Color of Boksik, and Symbols of Boksik. However, the most

important research, producing method of Boksik, is not enough. Based on historical research, we would like to search actual production method of Boksik. By producing representative Boksik in Gwanhonsangjerey Boksik (Costumes for Ceremony of Coming-of-age, marriage, funeral rites, and ancestral ritual), we are willing to help to continue the flow of traditional culture by correcting theoretical errors about Boksik. Moreover, by producing the Boksik, referred by Yeseo and all of historical researches and examining modelling, cutting, sewing method, and composition method, this paper is willing to figure out shape of clothes composition (Color and Quality) of those time of p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more about researching the difference of shape and distinction through comparing analysis of the shapes of Boksik from Saleyboksik and Yeseo with the Boksik in current days, not mostly about theoretical research about Boksik.

The range of research is limited to Joseon Dynasty, when gentry families' traditional custom was generalized, and also especially based on exist Yeseo's late Joseon dynasty. Moreover, the range of research includes Boksik for ceremony of Coming-of-age, marriage, funeral rites, and ancestral ritual, and its related Yeseo or data of relics.

The research method is searching process and case of Gwanhonsangje (Ceremony of Coming-of-age, marriage, funeral rites, and ancestral ritual) briefly by summarizing the traditional costume from Yeseo in the order of each Yeseo and describing and suggesting all of process sewing methods of important parts, concretely, through reproducing Boksik and historical researches after researching shape and characteristic of a representative and selected Boksik. In addition, Boksik, subject of

production and analysis, is focused on the ceremonial costumes in Saryepyenlam 『사례편람(四禮便覽)』 and Jungbosaryepyenlam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 Boksik, not from Saryepyenlam or without size or any illustration, is referred to Yeseo of Jujagarye and Sangryebiyo and excavated costumes.

Based on these Yeseo and this historical research of excavated costumes, total 10 clothes, costumes for ceremony of Coming-of-age (Sagyusan, Nansam, Baeja), wedding costume (Danlyeong, Hwalbok for birdal wear), costume for funeral rites (Daegunjangsu, the costume of Choi-ei, Choi-sang, and his wife), and costume for ancestral ritual formality (Simei, Dopo), are reenacted for Eireyboksik (costume for ceremony). On the other hand, those are produced not only through literatures, but also with standard of relics, because of the different length of Jichuk and Pobaekchuk, which are important for producing Boksik, by time period and location. Also, during the process of reproduction, size, sewing method, and cutting methods are referred to relics in same period of time,. The entire process, including size, fabric, color, quantity of necessary fabrics, name, modelling, cutting and sewing, are described.

*